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경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천 특성 연구
: 충남 홍성 문당리 마을을 사례로

A Study on Changing Process of Community and Spatial Structure
by Rural Development Project
: A Case Study of Mundang-ri, Hongsung Country, Chungnam Province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하 명 은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천 특성 연구

: 충남 홍성 문당리 마을을 사례로

지도교수 성 종 상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하 명 은

하 명 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孫 錦 勲 (인)

부 위 원 장 양 병 이 (인)

위 원 성 종 상 (인)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천 특성 연구

: 충남 홍성 문당리 마을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하 명 은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및 초빙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2월

위 원 장 孫 鎭 勲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 위 원 장 양 행 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위 원 이 정 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초빙 심사 위원 이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천 특성 연구

: 충남 홍성 문당리 마을을 사례로

하 명 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지도교수 : 성 종 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의 근대화 과정과 공간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농촌마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 특히 외발적 요인인 농촌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농촌마을의 공동체와 생활공간의 변천 특성을 파악하여 사업과 공동체, 공간간의 상호관계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분석하면 그간 농촌정비사업으로 변한 물리적이고 정태적인 연구방식에서 탈피하여 역동적인 농촌공간의 변화상을 분석할 수 있으며 농촌에 대한 공간과 나아가 경관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대상지는 사업시행 수가 많으면서 주민공동체가 활발한 절충형 농촌개발 사례로 충남 홍성 문당리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문당리 마을에 실시된 정부주관의 사업범위인 새마을운동 이후로 설정하였다. 문당리 마을 연구를 통해 단순한 물적 변화를 넘어 절충형 개발에서 농촌정비사업이 주민의 삶과 공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마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소화하며 발전해가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었다.

연구는 인간의 삶과 환경 간에 상호관계성이 존재한다는 문화생태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며 연구 방법은 사업보고서, 관련서적, 현지조사, 주민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항공사진 및 지도, 현장사진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대한 실체적으로 접근하며 가시적으로 연구결과를 들어내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는 문당리 마을의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천 특성과 주민의 삶에 끼친 영향, 향후 사업의 방향과 시사점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공동체 변천 내용과 특성을 종합한 결과, 1970년 농촌정비사업은 직접적인 조직결성에 영향을 미쳤고 1980년대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공동체의 활동을 해체시켰으며 2000년에 들어와서는 사업의 성격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함에 따라 마을공동체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변천 특성은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민 자발적 공동체, 환경 생태적 공동체, 지역 생산적 공동체로 변모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첫째 마을리더의 노력과 자발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소득중심의 주민 자발적 공동체는 2000년 상향식 사업의 방식과 상호작용하였으며 둘째, 친환경농업과 도농교류활동으로 특화된 마을의 환경 생태적 공동체는 사업의 내용과 일치하며 사회적 현상인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주5일제 여가생활을 반영하여 환경, 생태, 관광을 테마로 하는 사업들을 유치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셋째, 풀무학교와 지역생산조직으로 구성된 풀무기관중심의 지역 생산적 공동체는 소득창출이 목표인 사업에 안정성과 타당성, 실효성을 제공하였다. 문당리 공동체 특성연구를 통해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지역의 생산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마을만의 지역성과 육성될만한 사업, 기반시설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사업의 성공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다른 농촌마을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사업이 생활공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내용이다. 70-80년대는 마을기반시설 특히 주택과 길의 재료, 크기를 바꾸고 2000년대에는 도농교류를 위한 소득기반시설을 생성시켜 최근에 들어올수록 주민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들과 주민을 위한 환경 공간 조성은 미진한 편이었다. 즉각적인 소득창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 생활을 위한 시설 및 공간 계획 수립이 필요해보였다. 또한 사업이 시행되면서 생활공간은 시설중심의 내부지향적인 공간으로, 외부인을 위한 심미적 상징공간으로, 시장경제 방식을 지향하는 소득기반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는데 이는 생활의 편의성을 가져오고, 시각적 경

관을 개선시키며, 소득창출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으나 농촌커뮤니티, 특히 주민간의 만남, 주민의 공간, 주민간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불안 요소를 내재하고 있었다. 사업이 시행됨에 있어 시설위주의 사업, 생활개선차원으로 시행되는 내부지향적 설계, 주민이 아닌 소비자만을 위한 외부 휴식 공간 계획, 주민 일부에게 편중될 수 있는 소득창출 등은 농촌커뮤니티의 지속을 위해 최대한 지양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이전에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도록 공동체성을 높이는 사업이나 도움이 되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며 둘째, 지속적인 사업의 존속과 소득창출을 위해 지역의 생산 기반체계를 육성시키고 마을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셋째, 문당리 백년계획과 같이, 마을기본계획서를 통해 지역 특수성을 살리는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하는 것이고 넷째, 공간계획에 있어서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며 주민의 실생활을 반영한 공간계획을 하는 것이다. 다섯째, 주민이 사업내용을 선택, 원하는 사업, 원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의 폭을 넓혀 사회변화와 기타 마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비록 본 연구가 하나의 대상지에 주목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고, 공간변화를 조사하는 부분에서 주민 인터뷰 결과에 많은 부분 의존해 기억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나,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 생활공간간의 상호관계에 주목하여 변천과정을 살핌으로써 조경학적 의미를 확장하고 인문·사회·경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농촌을 해석했다는 점, 미시적으로 농촌의 생애를 살피며 그 내용을 가시적으로 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주요어 : 농촌정비사업, 공동체, 생활공간, 문당리 마을, 변천과정, 상호관계성

■ 학 번 : 2010-22372

■ 목 차

■ 국문초록	iv
■ 목 차	vii
■ 그림목차	ix
■ 표 목 차	ix

I.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14
3. 연구의 구성 16

3절. 선행연구고찰 18

1. 농촌정비사업 및 정책에 관한 연구 18
2. 농촌 공동체에 관한 연구 22
3. 농촌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24
4. 문당리 마을에 관한 연구 29
5. 선행연구의 한계점과 본 연구의 시사점 30

II. 이론적 고찰 33

1절. 농촌정비사업 고찰 33

1. 농촌의 변화와 농촌정책 33
2. 농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전개 양상 35
3. 농촌정비사업별 세부 내용 36

2절. 사업과 공동체 및 공간 간의 상호관련연구의 의미와 관점 39

1.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 및 생활공간 간의 상호관련성 39
2. 상호관련연구의 의미 40
3. 상호관련연구의 관점 41

3절. 분석의 틀	42
III. 문당리 마을 변화의 요인과 양상	44
1절. 일반 현황	46
1. 인문·환경	46
2. 사회·문화	47
2절. 문당리 마을 변화의 요인	47
1. 외발적 요인	48
2. 내발적 요인	55
3절. 문당리 마을 변화의 양상	59
1. 비물적 환경	59
2. 물적 환경	77
4절. 소결	78
IV. 문당리 마을의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천 특성	82
1절. 공동체 변천	82
1. 시대별 공동체 변천	83
2. 공동체 변천 특성	89
3. 종합	94
2절. 생활공간 변천	96
1. 시대별 생활공간 변천	96
2. 생활공간 변천 특성	125
3. 종합	128
3절. 소결: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변천 특성 및 영향	130
V. 결론	140
■ 인용문헌	146
■ 부록(자료조사표)	151
■ Abstract	158

■ 그림 목차

[그림 I-1] 문당리 마을 위치	8
[그림 I-2] 문당리 마을 구성	9
[그림 I-3] 연구의 시간적 범위	12
[그림 I-4] 연구의 구성	17
[그림 II-1] 농촌정비사업의 발생 배경	34
[그림 II-2] 농촌정비사업의 흐름	38
[그림 II-3] 문화의 변화과정	39
[그림 II-4]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 및 생활공간 간의 상호관계성	41
[그림 III-1] 문당리 마을 변화의 요인과 양상 체계	44
[그림 III-2] 문당리 마을 변화의 요인	48
[그림 IV-1]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천 특성 체계	82
[그림 IV-2] 1970년대 이전 문당리 마을 공동체	83
[그림 IV-3] 1970년대 문당리 마을 공동체	84
[그림 IV-4] 1980년대 문당리 마을 공동체	85
[그림 IV-5] 1990년대 문당리 마을 공동체	86
[그림 IV-6] 2000년대 문당리 마을 공동체	87
[그림 IV-7]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의 관계성	95
[그림 IV-8] 농촌정비사업과 생활공간의 관계성	139

■ 표 목차

[표 I-1] 선행연구의 농촌 공간 유형	25
[표 I-2] 본 연구의 농촌 생활공간 유형	26
[표 I-3] 생활공간과 농촌정비사업 간의 관계성을 고찰한 연구	28
[표 I-4] 선행연구의 한계점과 본 연구의 시사점	32
[표 II-1] 농촌의 변화	33
[표 II-2] 자료조사표	43
[표 II-3] 분석의 틀	43
[표 III-1] 연구조사방법	45
[표 III-2] 농촌정비사업의 연혁	49
[표 III-3] 농촌정비사업의 정책 배경	50
[표 III-4] 농촌정비사업 별 공간변화요소	52
[표 III-5] 사회 환경 변화	54
[표 III-6] 문당리 마을 인구구성	59

[표 III-7] 문당리 마을 인구추이	60
[표 III-8] 문당리 마을 연령별 인구구성	60
[표 III-9] 문당리 마을 유형별 인구구성	61
[표 III-10] 문당리 마을 경작 현황	62
[표 III-11] 문당리 마을 농법 변화	63
[표 III-12] 문당리 마을 작목 현황	64
[표 III-13] 문당리 마을 공동체 조직 연혁	65
[표 III-14] 문당리 마을 공동체 조직 구성	70
[표 III-15] 문당리 마을 지역 내부 조직 구성	72
[표 III-16] 문당리 마을 지역 외부 조직 구성	73
[표 III-17] 문당리 마을 공동체 조직 활동 및 역할	74
[표 III-18] 문당리 마을 행사	75
[표 III-19] 문당리 마을 변화 요인 종합	79
[표 III-20] 문당리 마을 변화 양상 종합	81
[표 IV-1] 1970년 이전 문당리 일대 산과 하천 모습	97
[표 IV-2]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문당리 마을	99
[표 IV-3] 1970년대 새마을운동 전후 산림 변화	100
[표 IV-4] 1970년대 사업 전후 생활공간 변화	100
[표 IV-5] 1980년대 경지정리사업 전후 경지 변화	101
[표 IV-6] 1980년대 문당리 마을	102
[표 IV-7] 1980년대 사업 전후 생활공간 변화	104
[표 IV-8] 1990년대 문당리 마을	106
[표 IV-9] 1990년대 사업 전후 생활공간 변화	107
[표 IV-10] 2000년대 사업 전후 생활공간 변화	109
[표 IV-11] 문당리 마을 삶터 변천	113
[표 IV-12] 문당리 마을 쉼터 변천	115
[표 IV-13] 문당리 마을 일터 변천	117
[표 IV-14] 1970년대 이전 문당리 마을 영역과 중심	120
[표 IV-15] 1970년대 문당리 마을 영역과 중심	121
[표 IV-16] 1980년대 문당리 마을 영역과 중심	122
[표 IV-17] 1990년대 문당리 마을 영역과 중심	123
[표 IV-18] 2000년대 문당리 마을 영역과 중심	124
[표 IV-19] 취락구조 개선사업 전후 주거 공간 변화	125
[표 IV-20] 문당리 마을 숲의 변화	126
[표 IV-21]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문당리 마을 생활공간 변천 내용	129
[표 IV-22] 농촌정비사업과 생활공간 간의 상호관계 분석표	134
[표 IV-23] 공동체와 생활공간 간의 상호관계 분석표	138

I.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 농촌마을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해방 이후 70여년이라는 길지 않은 세월 동안 사회·정책적 배경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급변하는 사회물결에 편승하고,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농촌마을에 시행된 다수의 정부 주관 사업들과 투자가 중요한 계기로 보인다(이만갑, 1973; 강영은, 2012). 1950년대 후반 한국전쟁 이후 국가 전체의 빈곤과 낙후를 피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지역사회개발사업을 필두로 새마을운동,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지자체를 제외하더라도 7개가 넘는 정부 부처에서 현재(2012)까지 20여개가 넘는 유형의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이 사업들은 바로 농촌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지대했음을 반증하는 동시에 과거의 모습과는 현저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린 현재 농촌공간과 주민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근간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농촌은 자급자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대도시와는 달리 외부공간이 특히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농촌주민들은 하루 중의 상당시간을 실내에서보다는 옥외공간에서 생활한다. 또한 이를 이웃과 함께 공유하며 공공의 생활과 생산의 장으로써 영위한다(김수진, 2010). 그러다보니 사업이 시행되면서 변화하는 물적 환경공간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특히 주민 간의 관계인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지금까지 마을에 지원된 사업들은 농촌 주민의 삶 또는 생활을 반영한 것일까? 또한 사업과 주민 생활상 간의 관계는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마치

막으로 이에 비추어봤을 때, 공간을 다루는 우리 내 학문분야에서 사업 이전에 고려 또는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지금껏 통념적으로 농촌사업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 경제, 도시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는 실증적 방식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농촌 지역 연구에 있어 무엇보다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들에 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며 미미했다. 사실 그 동안 시행된 농촌사업들은 정부가 설정한 소기의 목표치에 접근하고자 하는 목표지향적인 측면이 강했다. 그러다보니 실제 사업의 수혜자인 농촌 주민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어떠한 불편을 겪는 지 등 농촌주민의 삶과 생활에 대한 실체, 그리고 이로 인해 비롯된 요구 등에 대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책이 수립 및 시행되어 왔다. 물론 최근 들어 농촌주민들의 삶을 추적하며 여러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지만, 이 또한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농촌마을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 및 전문자료들은 단위수준이 전국 또는 시·도 및 시·군이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 밖에는 파악할 수가 없어, 마을과 주민 단위의 세부적인 실상이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김용렬 등, 2006).

이처럼 농촌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며 단편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또한 적당한 대안을 내지 못한 채 주민의 삶과 유리될 수밖에 없다. 덧붙여, 농촌 마을마다 서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시·공간적으로도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는 데도 불구하고, 농촌변화에 대한 역동적인 시각을 견지하지 못한 채 정적인 시각에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는 경향이 있어 농촌에 대한 정부사업은 마을의 특수성과는 별개로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 실행돼 사업 실효성이 미진한 수준에 그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앞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과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분석이 되어져야하고 미시적인 공간변화 내용과 영향을 살펴 농촌 주민을 위하면서도 농촌마을을 위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사업이 실행되었을 뿐 아니라 하향식부터 상향식 개발까지 사업 스펙트럼이 넓게 적용되어 다각도에서 사업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마을, 마을 주민의 활동 및 공동체 조직 활동이 왕성하고 사업 유치에 적극적이라 관계성 검토에 의의를 가지며 주민 생활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기 용이해 보이는 마을인 문당리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시행된 다수의 상향식 개발 사업 내용이 비교적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만큼 그 변화 내용과 변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앞으로의 농촌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또한 문당리 마을을 지침으로 모방하려는 다수의 농촌마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¹⁾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해 변모하는 마을공동체와 생활공간 간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역동적인 농촌의 변화상을 분석하여 농촌에 대한 공간변화, 나아가서는 경관변화를 총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충남 홍성 문당리 마을이 변하는 데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되는 농촌정비사업에 유념하여 농촌 근대화 과정을 이해하되 주민의 삶을 대변하는 공동체와 생활공간의 변천 특성을 함께 점검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공동체 활동이 왕성한 문당리 마을이 농촌정비사업이라는 변화요인을 통해 어떻게 변하는지 물리적 변화, 주민의 생활상, 공동체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고 생애를 도면화하여 마을의 변천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시계열적 연구는 특정시점으로 한정된 공시적 연구에서는 밝힐 수 없었던, 다수의 사업 진행에 따른 물리적·비물리적 변화와 그 누적상을 밝혀줄 것이다. 이는 사업과 마을의 보이지 않

1) 양병이 외(2002)는 문당리 마을이 우리 농촌이 나아가야하는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이라는 방향에 좋은 본보기라 언급한 바 있으며 송미령, 박시현(1999), 홍성환경농업마을(2000) 등은 최근 농촌사회 발전의 귀감이 되는 선진사례로 문당리를 꼽으며 관의 주도과 지원에 앞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귀감이 된다고 하였다.

는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마을이 사업을 어떻게 소화하며 변하는지 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사업이 시행되면서 변화하는 공간을 명확히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점과 주민의 삶과 물리적 공간, 사업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표피적인 연구에 그쳤다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본 연구에서 극복해보고자 한다. 집중적이며 구체적인 매체인 항공사진, 지도, 마을주민들의 개인사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변천과정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둘째, 농촌정비사업이 마을, 특히 주민의 삶에 끼친 물리적·비물리적 영향을 해석하여 좀 더 폭넓은 범주로서 조정학적 의미를 확장하고자 한다. 변화원인을 다각도에서 규명하고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최종적으로 물리적 공간변화 고찰만이 아닌 마을경관을 연구하는 바탕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의 진정한 영향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미진했던 농촌마을 변천과정 연구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문당리 마을을 통해 끌어내도록 하겠다. 셋째, 향후 시행할 농촌정비사업의 개발 방향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업시행이 우수하며 마을공동체 활동이 왕성한 문당리 마을의 사업과 공간, 공동체 간의 관계성을 미시적으로 조명하면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 왔던 일반 농촌마을²⁾의 통념적인 결과와는 다르게 보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 및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농촌마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구성체가 아닌 삶이 녹아든 공간이며 사회변화와 내적인 움직임 등이 상호작용하며 변화한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 이에 농촌정비사업의 내용을 내·외발적 요인들도 염두하며 미시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농촌정비사업의 방향 및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즉, 사업과 주민이 상생하며 마을개발을 도모하는 문당리 마을의 변천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농촌마을의 근대화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 농촌정비사업이 끼친 영향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이 농촌에 끼친 총체적인 해석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농촌개발계획의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한필원 외(1990), 김충식과 유주은(2009), 예용광(2003), 조진상(2009) 등과 같이 사업영향을 분석한 연구의 대부분은 인지도가 높은 마을이나 사업대상권역인 마을에 한정되어 있다.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 생활공간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연구의 범위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분명한 농촌정비사업의 시·공간적 범위와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될 것이라 판단되는 개념들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용어의 정의

연구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개념 정립이 필요한 용어는 ‘농촌정비사업’, ‘공동체’, ‘생활공간’, ‘변화와 변천’이며 이를 조작적 정의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농촌정비사업

농촌지역에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여 지칭하는 용어는 농촌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촌정비정책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2012)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농촌생활환경과 산업육성, 농촌유형자원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개발하여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업을 ‘농어촌정비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 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 지칭 용어으로써 농촌정비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이 명칭을 차용하여 농촌정비정책의 내용을 포괄하는 동시에, 사업으로써 성격을 지니는 농촌지역정책의 범주으로써 ‘농촌정비사업’을 바라본다. 이는 정부 부처 및 기타 산하기관에서 추진되는 농촌정비정책을 포괄하는 사업들을 총칭하는 용어으로써 새마을운동, 녹색농촌마을조성사업 등을 포함할 것이다.

• 공동체

공동체라는 말은 사회학이나 도시 계획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나이다. 그

렇지만 이 용어는 사용되는 용례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여 정확한 개념을 정의내리기란 쉽지 않다.³⁾ 과거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공동체를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 나가고 생계를 유지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의 대부분의 활동을 해나가는 장소’로 일컬으며 사용하였으나(Poplin, 1979) 최근에는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함께 공유하는 물리적 환경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이나 소속감을 느끼며 행동이나 목적을 같이 하는 집단’으로 사용하고 있다.(이영애, 2007) 이는 Hillery(1955)의 공동체 정의와도 상통하는데 Hillery는 공동체를 ‘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공동체에는 3가지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있는데 이를 지역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로 보았고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하였다.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이자 Hillery의 개념을 차용하여 ‘마을의 물적 환경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며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유대 집단’으로 정의내리고자 하며 물적 환경과 관계를 맺는 인적 집단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세부 활동 및 유대관계는 어떠한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 생활공간

농촌마을을 구성하는 공간에 관한 용어 역시 마을 공간, 공유 공간, 외부 공간 등으로 그 쓰임이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용어들은 기능적 측면보다는 형태적 측면 혹은 공간 성격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물적 공간의 형태 변화와 농촌주민의 생활상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용어보다 기능적 측면에 비중을 둔 용어의 선택이 필요해보이며 이에 ‘생활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농촌연구에서

3) Hillery(1955)는 공동체에 관한 94개의 다양한 정의를 재분류하면서 하나로 일치하는 개념을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4) 충남발전연구원(2010)은 지리적 영역(지역적 변수), 사회적 상호작용(사회학적 변수), 공동의 유대, 혹은 연대(문화, 심리적 변수)라는 요소로 해석하였지만 그 의미는 Hillery(1955)의 개념과 상통한다.

생활공간이라는 용어는 엄인섭 외(1991), 김진일(1980)처럼 주로 건축분야에 한정되어 살림공간으로 해석, 주택 내 공간에만 통용되어왔으나 사실 생활이라는 용어는 생계나 살림이라는 뜻이 아닌 생존, 나아가 생애, 일생의 의미가 보다 정확하다. 농촌의 생애, 생존은 생산과 생활이 주로 일어나는 농경지, 즉 외부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을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의 통합적 개념으로 해석하여 마을 외부공간까지 지칭하는 용어로 넓게 보고자 한다. ‘인문·사회·문화적 행위와 같은 주민의 삶의 행태를 닮는 공간 및 장소’의 개념으로써 물적 형태보다는 그 안의 내용, 즉 주민 활동을 부각하는 의미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다. 이에 맞추어 그간 타 연구에서 주로 사용해오던 농촌진흥청(2006)의 공간분류체계, 즉, 농촌생활공간, 자연환경공간, 농업생산공간을 재구성하여 [표 I-2]와 같이 삶터, 쉼터, 일터로 통칭할 것이다.

• 변화와 변천

국립국어원(2012)의 정의에 따르면 변화와 변천은 시간성의 유·무로 구분될 수 있다. 변화란 사람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시간 개념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공간적 변화나 사물 혹은 물체가 변경되는 것’을 지칭한다. 이에 반해 변천이라는 용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변함을 의미한다. 즉, ‘세월의 흐름에 따른 물리적 특성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성이 포함될 때는 ‘변천’을, 공간변화내용을 설명할 때는 ‘변화’를 사용하고자 한다.

(2)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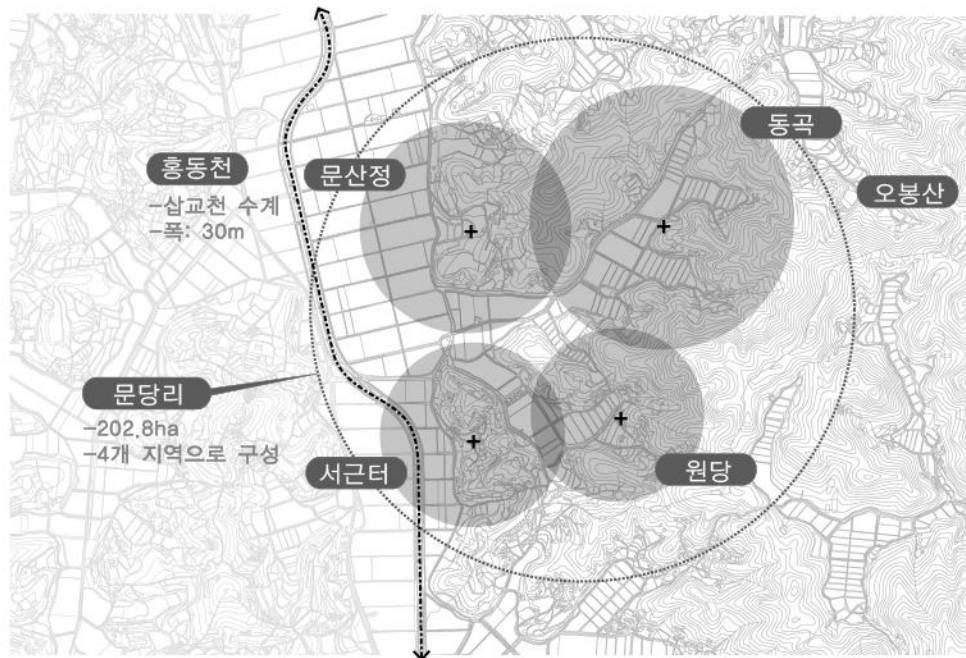
대상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공간변천과정 및 영향을 도출하기 위해 다수의 사업이 실행되었고 하향식부터 상향식까지 시기별 사업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을, 또한 연구의 핵심인 사업과 공간, 주민 생활상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비교적 마을 주민의 활동이 왕성하여 정보수집이 수월하고 변천 연구에 시사점을 가질만한 지역으로 충남 홍성 문당리 마을을 대상 마을로 선정하였다.

기본적인 문당리 마을의 공간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림 I-1] 문당리 마을 위치

문당리 마을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한 면적 202.8ha의 문산정, 서근터, 원당, 동곡, 4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된 집촌형 마을로 홍성군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은 홍동면의 범주에서, 한반도 서해안 지역의 일반적인 낮은 산지로 형성된 노년기 형태이고 그 중 문당리 일원은 동남북쪽으로 64-158m의 구릉지가 마을과 농경지를 둘러싸는 형태로서 동고서저형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마을 전면에는 평야지이고 서쪽으로는 마을의 북-북서측으로 유하하는 준용하천인 삼교천 수계를 받은 홍동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하천 폭원은 30m에 달하며 수량이 풍부하고 주로 농업용수와 홍수방지에 이용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홍동저수지를 접하고 있다(홍성 환경농업마을, 2000).



[그림 I-2] 문당리 마을 구성

얼핏 보면 일반농촌마을과 비슷해 보이나 실상은 타 마을과 다른 점이 많다. 문당리 마을은 과거 전국적으로 시행된 새마을운동, 경지정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뿐 아니라 2000년대 들어 농촌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정보화시범마을사업이 시행된 전국 36개 마을 중 하나이기도 하며⁵⁾ 주민조직이 잘 형성되어 공동체 활동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곳이기도 하다.⁶⁾ 주요한 두 개의 특징 외에도 문당리 마을은 몇 가지 다른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5)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정비사업들의 성격과 내용, 선정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새마을운동, 취락구조개선사업, 경지정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대다수의 농촌마을에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시행된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전국 농촌마을을 검토한 결과 36개 마을이 추출되었다.

6) 임은진(2011), 최승호(2009), 양병찬(2008), 양병이 외(2002) 등은 문당리 마을의 주민조직 활동이 타 마을에 비해 뛰어나다고 말했으며 특히 임은진(2011)은 문당리 마을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를 회복한 이상적인 마을이라고 하였다.

첫째,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공동체와 외부지원을 함께 고려한 절충적 개발⁷⁾의 사례라는 점이다. 농촌마을은 개발방법에 따라 내발적, 외발적 개발로 나눌 수 있는데⁸⁾ 내발적 개발방법은 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반면 외발적 개발방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부의 자본이나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농촌개발형태로 대부분의 농촌마을을 개발하는 방식이었으나 외부 환경이 바뀔 경우 곧바로 침체를 겪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해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유지된 사업수가 적다. 이에 최근 내·외발적 개발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절충적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절충적 개발은 사업이 마을의 내적 요인들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적용·유지될 수 있고 사업 및 공간 간의 관계를 면밀히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문당리 마을을 연구하면 절충형 개발의 프로세스를 알 수 있기에 향후 농촌정비사업의 방향성과 시사점 제시가 가능하다.

둘째, 문당리 마을은 대다수의 농촌마을에 주요하게 적용되는 테마인 친환경과 도농교류의 핵심지역으로 타 마을의 귀감이 될 수 있다. 전국 500개가 넘는 마을들이 도농교류를 위한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 대표적 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마을은 2017년에 1000여개 넘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⁹⁾ 이러한 마을들이 문당리 마을을 방문하여 선행된 사업내용과 방식을 차용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상당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즉, 도농교류와 친환경을 테마로

7) 국제농촌개발협력사업단(2011)에 따르면 절충적 개발이란 사업이 마을의 내적 요인들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8) 농촌개발은 지역주민들이 자연적, 인문·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생산성이 높고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변화시키거나 확대·재생산하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의 힘이 내생적으로 발현되었을 경우 내발적 농촌개발이라고 하고, 정부 등 외부의 지원에 의해서 발현되었을 경우 이를 외발적 농촌개발이라 한다(국제농촌개발협력사업단, 2011).

9) 도농교류활성화의 대표적인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으로 2002년에 시작하여 2010년 기준 516개 마을에 시행되었다. 또한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를 2010년만 80 곳을 선정하였으며 2017년까지는 1000개 권역을 개발하겠다고 공표하였다.

하는 기타 농촌마을의 공간 및 경관 변화에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문당리 마을은 농촌주민의 삶과 마을공동체 활동이 유지되면서도 외부의 영향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지속적으로 변모해온 대상지이기 때문에 사업 등의 외부지원에 의한 농촌마을의 변천 과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보인다. 또한 대상지가 선구적인 개발방법이라 볼 수 있는 절충형 개발 사례이기에 추후 시행할 바람직한 농촌계획의 모습을 제시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지는 바이다.

(3)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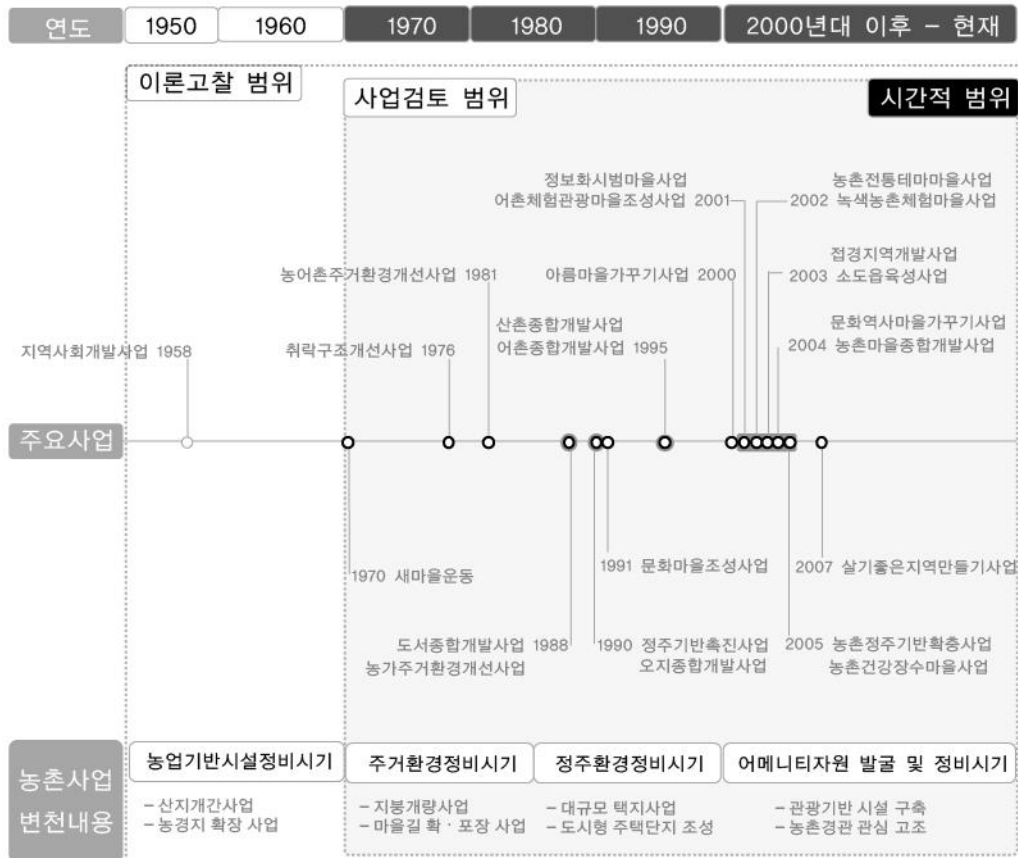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검토할 사업의 시행시기와 유사하다. 농촌정비사업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경제 관련 선행연구들은 195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CD사업)¹⁰⁾을 농촌정비사업의 기준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1950년대부터 시행된 사업 내용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하지만 공간변화를 다루는 건축, 도시, 조경 분야의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1960년대까지를 전통농촌마을 양식의 지속으로 보고 1970년 이후를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자 농촌 근대화의 시작이라 말하고 있으며¹¹⁾ 본 연구의 대상지인 문당리 마을 역시 농촌정책이 사실상 새마을운동부터 시행된 만큼 1970년 이후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는 1950년 이후 시행된 사업의 전반적인 변천 경향을

10) 지역사회개발사업은 1955년 한·미 합동경제조정관실(OEC)에 근무하던 아담스 (Lucy W. Adams) 지역사회국장이 한국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의 농촌 재건을 위하여 UN과 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가 채택하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을 도입할 것을 권장함에 따라 1958년도에 국가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다. 주 사업내용은 농경지 확대를 위한 개간, 마을 도로와 소규모 교량 건설, 소규모 제방과 수리시설 설치, 마을 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건설 등이었다. 사업은 농사지도중심의 개발내용에서 제한적으로 생활환경을 정비하고자 하였지만 이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1971년부터 시작된 농촌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편입되어 사실상 중단되었다(농촌진흥청, 1978; 농림부, 1999).

11) 이명진(2007)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발전방안에서 새마을운동이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라 명시한 바 있다.

밝혀 그 흐름을 이해하되 본격적인 연구에서는 문당리 마을에 해당하는 사업들만 집중 검토하여 공간변화와 생활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석하는데 본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자료: 강영은(2012) 참고 후 재구성

[그림 I-3] 연구의 시간적 범위

(4)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농촌정비사업은 주체가 다르면 사업 및 정책의 흐름을 해석하고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에서 일부 논했듯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정비사업, 즉 정부주관의 문당리 마을에 실시된 사업들로만 범위를 한정한다. 또한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이나 공간 및 경관개선 내용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사업과 공간 간의 관계가 밀접함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다음으로 앞으로 다룰 연구내용상의 범위이다. 이 범위는 연구 목적과 부합한다. 첫 번째 연구 목적인 농촌 마을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촌정비사업만이 아닌 문당리 마을 공간변화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외발적 요인을 모두 고찰한다. 이는 농촌공간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다양하며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¹²⁾ 농촌정비사업의 영향만을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사업의 영향인지 아닌지 선후관계 여부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종합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문당리 마을에 처음 사업이 도입된 1970년을 기점으로 하여 변화 요인과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인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문당리 마을의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천 특성과 주민 생활에 끼친 종합적인 영향 도출에서는 조사 분석된 현황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최종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사업과 공간, 주민의 생활상 간의 관계성 내용만을 고찰할 것이다. 관계성을 체계화하고 농촌주민의 삶에 끼친 총체적인 영향을 해석을 하기 위해 사업별 물리적 공간 변화 내용만이 아닌 공간 기능의 변화, 사업 전후 사회 상황의 변화 항목도 함께 고찰한다.

마지막 연구 목적인 농촌정비사업의 영향 및 시사점 제시에서는 문당리 마을 사례에서 보여지는 사업과 공간, 생활상 간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시대별 강점 및 약점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농촌개발계획의 추진방향을 제언한다.

12) Norton(1989)는 농촌의 변화를 초래하는 문화적 변수는 다양하며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변화의 영향과 정도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화생태학적 시각에서 마을의 인문·사회 변천 과정을 이해하여 각 사업의 내용 및 배경을 탐구하고 그 영향을 해석하는 정성적 방식을 기초로 한다. 인간이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변형시키는 방식들에 관한 연구를 의미하는 문화생태학은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를 중시한 생태학을 바탕으로 문화를 환경에 대한 적응체계로 간주하고 문화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강조한 시각이다. 생태학적 개념이 인류학에 도입된 이론으로 문화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농촌의 물질·비물질 환경과 문화로 대변되는 주민 생활상 간의 상호관계성을 고찰하는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문화생태학적 시각에 입각하되 실증적 분석방법이라 볼 수 있는 현장답사와 지도,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공간변화를 살피고자 하며, 실증적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공동체 변천 과정 부분은 현지조사와 주민심층인터뷰를 시행하여 관찰기록들, 대화들을 기술하는 방식의 연구를 진행하겠다. 아래는 주요 연구 내용들의 세부적인 분석 방법이다.

(1) 농촌정비사업 분석

정부부처 주관의 농촌정비사업 자료는 국가에서 보관하긴 하지만 새마을운동부터 1990년 이전까지의 자료는 개별 마을을 다루지 않는 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사업 자료는 정부보고서를 참고하나 기타 상세자료는 관련 논문과 사회, 정치 분야 등에서 다수 연구된 농촌정비사업에 관한 서적을 활용하겠다.

(2) 공동체 변천 특성 분석

공동체 변천 내용은 가시적인 분석이 불가능함으로 주민 인터뷰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연구의 신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과거 공동체와 조직 활동을 파악할 것이며 현지조사와 주민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직 대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 후 심층 기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¹³⁾

13) 조혜정(1981)은 농촌의 일반적인 사회 문제와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에는 현지에서 행해

(3) 생활공간 변천 특성 분석

생활공간은 용어의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환경공간, 농업생산공간, 농촌생활공간의 유형에서 탈피하여 생활을 담는 기능적 측면에 보다 무게를 두어 삶터, 쉼터, 일터로 구분하고 연구를 진행하며 [표 I-2]와 같이 보다 유형을 체계화시켜 분석에 반영하겠다. 분석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시대별 지도와 항공사진, 마을주민이 보유한 개인사진 등과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무엇이 사업 전후 변했는지 실제적으로 파악한다. 이후 상세내용은 주민에게 검증 받으며 공간 내 생활상 내용을 보충하겠다.¹⁴⁾

(4)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영향 종합 분석

즉, 농촌정비사업의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은 물질 변화뿐 아니라 비물질 환경 변화를 포괄함으로 사회문화 등의 현상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해석학적 연구방법¹⁵⁾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문화 현상은 행위자들의 주관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자연 과학과 같은 정량적 방법으로 답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공동체 분석방법과 같이 현지참여 관찰이나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개별적 사실을 전제로 일반적인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귀납적 방식을 사용, 행위자의 주관적 의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농촌정비사업이 삶에 끼친 총체적인 영향을 해석한다.

지는 참여관찰이나 심층면접방식이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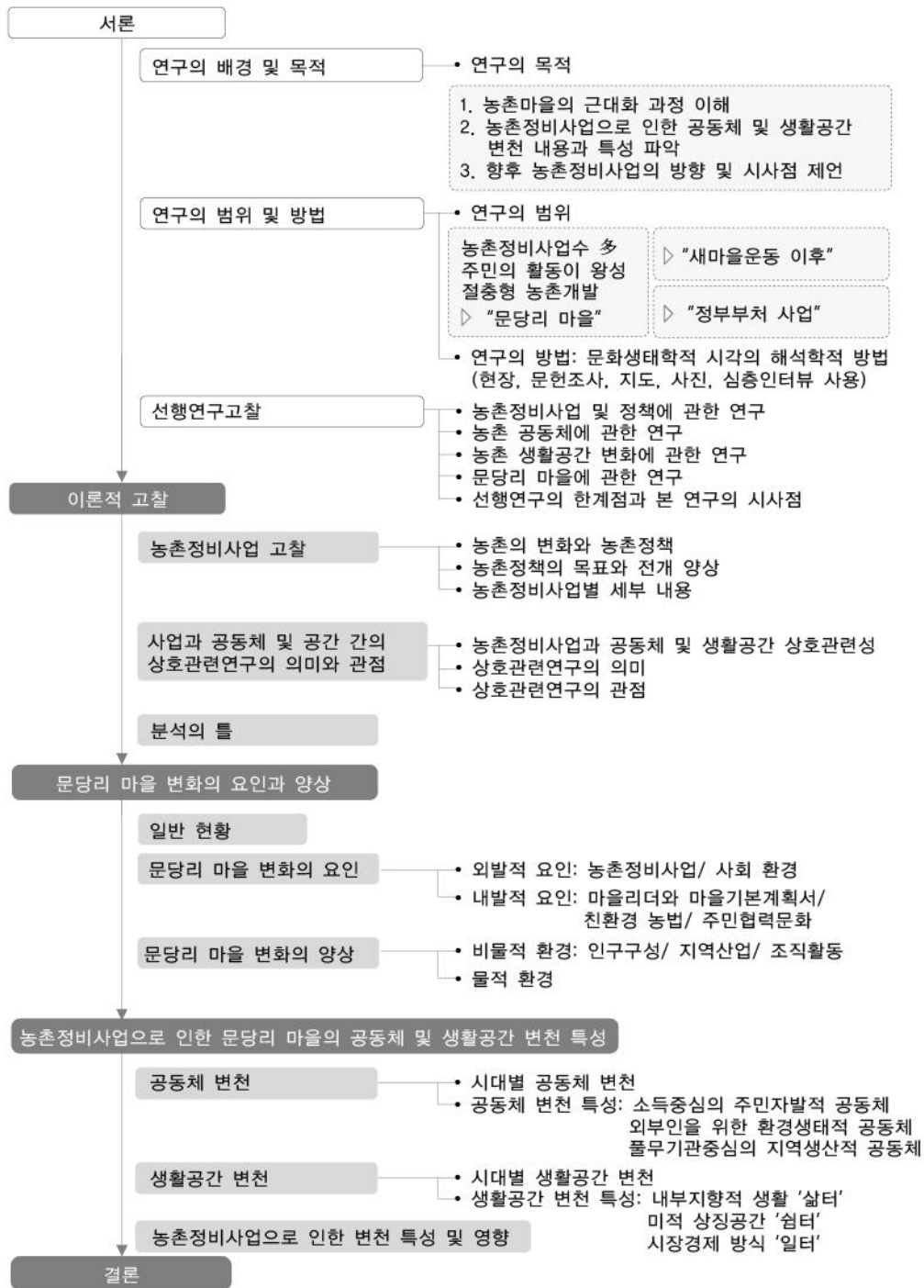
14) 한경혜 외(2005)는 정량적 연구는 가설검증, 연역적 이론형성과 인과관계 탐색 등에는 효과적이지만 사회현상과 과정에서는 탈맥락적인 표현양식으로 변환시켜버림으로써 농촌지역의 현지성과 주민 삶의 경험의 구체성이 증발되는 제한점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에 양적연구보다 통합적 관점의 질적 연구방법으로써 탐색적 심층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서술적으로 해석하였으며 특정집단의 문화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상황과 활동을 구체화하고 심층적으로 기술하는 기술법을 수행하였다.

15) 해석학적 연구 방법이란 통상적으로 수량적 자료 분석보다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에 의한 분석 방법을 일컫는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감정, 의도, 의미 등을 이해하면서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질적 접근 방법의 하나이다. 연구절차는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된 문제제기, 연구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결과의 일반화로 진행된다.

3.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며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며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산정하고 농촌정비사업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농촌 공동체에 관한 연구, 생활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그리고 문당리 마을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시작에 앞서 수행해야하는 연구 의의 및 연구 방향을 명확히 한다. 2장은 ‘이론적 고찰’로 연구를 위한 개념들을 정립하고 본격적인 연구수행 전에 선행되어야하는 조사·분석·해석의 기틀을 잡는 부분이다. 농촌정비사업을 고찰하고 사업과 주민의 삶을 대변하는 공동체 및 생활공간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본질적 의미를 제시한다. 또한 연구자의 시각, 관점을 분석의 틀로써 도출한다. 3장은 ‘문당리 마을 변화의 요인과 양상’에 대한 내용으로 대상지의 공간 변화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 양상을 파악하여 개략적인 문당리 마을의 공간변천 과정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가 농촌정비사업이라는 요인에 주목하고는 있지만 주민 생활상과의 관계성을 중점적으로 보기에 3장에서 종합적인 변화 요인과 양상을 보는 것이다. 변화 요인은 농촌정비사업, 사회 환경 변화인 외발적 요인과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내발적 요인들로 나누어 살펴보며 양상은 인적자원, 지역산업, 조직 활동과 공간을 분석하는 비물적 환경과 공간 및 물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 장은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영향력을 정교하게 추출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문당리 마을, 넓게는 농촌마을의 변천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4장은 ‘문당리 마을의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천 특성’장으로 조사된 변화요인과 양상을 토대로 농촌정비사업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삶을 대변하는 공동체 및 생활공간이 연대별로 변천하는 내용과 특성을 고찰하여 최종적으로는 사업과 공동체, 공간 간의 상호관련성을 도출한다. 사업이 미친 영향, 즉 주민의 가치와 삶에 미친 영향을 해석하는 것이 이 장의 핵심이다. 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사업 계획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언하여 연구의 의의를 밝히며 추가적으로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 이상 연구의 구성은 [그림 I-4]와 같다.



[그림 I-4] 연구의 구성

3절. 선행연구고찰

본격적인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천 특성을 연구하기에 앞서 기존 선행 연구를 농촌 정비사업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농촌 공동체에 관한 연구, 농촌 생활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문당리 마을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1. 농촌정비사업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농촌정비사업은 환경개선 및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소득창출 등을 목표로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농촌 마을에 지원·투자하는 사업들을 말한다. 2000년대 들어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가치와 중요성이 인정받으면서 농촌정비사업과 정책에 관한 연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촌정비사업과 정책에 관한 연구는 정치, 사회, 건축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도로 연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농촌정비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패러다임을 정리한 변천 과정 연구와 농촌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 간의 관계성을 고찰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농촌정비사업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농촌정비사업의 변천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건축이나 조경 등의 공간을 다루는 학문분야에서는 다소 연구가 미흡했으나 정책이나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농촌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간을 다루는 학계에서도 소수이지만 단발적 사업평가가 아닌 변천 과정을 고찰하는 연구논문들을 출간하고 있다. 그 중 참고할 만한 선행연구에는 김강섭과 이상정(2004), 김강섭과 이상정(2006)의 연구와 이해진(2009)의 연구가 있다.

김강섭과 이상정(2004)은 1958년 이후 시행된 우리나라 농촌정비사업을 모두 검토하여 변천 흐름을 규명, 정책이 변화하는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시대별 농촌정비사업의 내용, 변천 특성 등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참고하여 농촌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김강섭과 이상정(2006)은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각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방향, 정책추진방식, 정책시행의 3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해진(2009)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사례로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사업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규명하였다. 연대별 농촌정비사업의 변천 과정 연구들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필두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새마을운동 사업에서 급속도로 물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향식에서 상향식 사업으로 변하는 흐름이 농촌사회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변화속에서 추진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2) 농촌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정비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다수 있었다. 김승근(2005), 김강섭과 이상정(2006), 조진상(2009) 등이 그 사례이다.

김승근(2005)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집중하여 충북 감곡권역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마을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 사업들의 문제는 사업입찰방식과 사업 선정 및 평가를 주관하는 평가단 구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잦은 이동이라고 했다. 김강섭과 이상정(2006)은 농촌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정책방향, 정책 추진 방식, 정책 시행에 있다고 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은 친환경적인 개발개념의 부족, 농촌 경관 훼손 및 지역성 반영 부족, 중앙 정부 주도 하에 치우친 점, 비효율적인 정책 추진 과정, 사업지역 선정 문제, 정책 시행 후 평가시스템의 부재라고 지적하였다. 조진상(2009)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 주민소득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구례 방광권역을 고찰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이 권역 전체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주민역량과 권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농촌정비사업의 문제는 지역성이 반영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 지역 주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 주민들의 낮은 참여율 등이었으며 제시된 개선방안은 지역 환경, 경관, 농촌문화, 공동체성 등과 같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유념한 테마와 방식으로의 접근,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추진 체계,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원 투자 등 이었다.

선행연구들은 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례 지역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을 정밀 분석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진단된 사업의 문제점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정책 대안과 시사점을 모색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시계열적인 변천 과정에서 사업의 영향과 문제점을 검토한 논문은 전무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해 보였다.

(3)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 간의 관계성을 고찰한 연구

농촌정비사업 및 정책 연구들 중에는 소수이지만 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도 찾을 수 있었는데 고찰된 연구 모두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 간에 관계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었다. 또한 2000년대 농촌정책인 상향식 사업에서는 공동체가 기반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사업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주원(2003)은 인센티브형 상향식 농촌개발정책사업과 주민공동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상향식 농촌개발정책사업의 요지는 농촌주민들에게 참여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나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당시에만 마을주민들이 결집하기 때문이라고 이러한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용근 등(2008)은 농촌정비사업들로 인한 마을 지도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마을에 대한 관심 및 공동체 의식, 사

업의 이득을 공유하는 방법 등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다. 조진상(2009)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전인하는 중대한 역할은 주민소득사업이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역량과 권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범주에서 주민소득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한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신중진 외(2008)은 사업의 성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이후 주민들의 자체적인 운영과 관계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마을재정을 확보하여 중장기적인 계획과 운영·관리를 해야 하며 마을 정주 공간, 경관, 생태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한식 외(2008)는 사업 시 소득을 목적으로 마을의 경제공동체가 전환되는 과정에 다양한 갈등이 빚어진다고 밝히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갈등 해소를 위해 학습공동체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업의 해결책이 공동체적인 접근에 있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사업과 공동체 간에 관계성을 밝힌 연구들은 농촌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이나 사업 이후에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특히 마을 공동체와의 불화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실체적인 접근은 전무하다는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농촌정비사업이 마을 공동체에 끼친 영향 즉, 사업에 의한 공동체 변천의 실체를 가시화하여 볼 수 있도록 생활공간학적인 접근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종합적으로 농촌정비사업은 1970년 이후 생활 및 환경 개선 등의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고 평가받으며 농촌 지역 및 공동체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인지되지만 주민을 위한 사업이 부족하고(조진상, 2009), 주민 참여와 소통의 문제(김승근, 2005; 조진상, 2009; 신중진 외, 2008; 박한식 외, 2008)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동반하였다. 이 같은 현실은 농촌정비사업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발전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 농촌 공동체에 관한 연구

최근 공동체 해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도시 지역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 공동체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농촌 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는 몇몇 새마을 운동을 주제로 한 연구들과 2000년 이후 마을 만들기 연구에서 다루어지기는 했으나 대체로 전통마을, 자연부락에만 국한되어와 전반적인 연구진행이 미진한 편이었다. 이제라도 우리의 자생적 문화인 농촌 공동체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1) 공동체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농촌 공동체 연구 경향을 분석하여 공동체를 유형화하기에 앞서 먼저 공동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원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용어의 정의에서 잠깐 언급했던 공동체의 범위와 내용을 한정짓기 위해서이다.

이종수(2008)는 공동체란 지역을 단위로 하는 주민의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관계망으로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에 심리적 유대감과 정치·사회적 호혜관계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하며 비가시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중요하게 보았다. 채혜원과 홍형욱(2002)은 공동체란 물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동체라고 생각한 그 지역과 관련된 정체성을 가지는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즉,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연대감과 애착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공동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 상호작용하는 관계, 공동의식을 가지는 집단에 대한 검토를 역설한다. 따라서 본 연구 상 ‘마을의 물적 환경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며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유대 집단’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린 공동체의 범위를 문당리 마을에 적용하여 마을과 관계를 맺는 공동의식의 인적 집단, 문당리 마을의 정체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조직, 그들의 세부 활동 및 유대관계로 설정하여 연구에 임했다.

(2) 공동체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공동체 변천에 관한 연구를 찾기란 어려웠으나 공동체의 단발적 변화 내용을 다룬 논문들은 이정덕(2003), 이상현(2004), 조정현(2009), 강정원(2009)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이상현(2004)은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계가 마을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공동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조선시대까지 계란 마을 공동체 혹은 특정 마을의 집단을 결속시키고 친목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어 온 것으로 이를 실천하고자 다양한 문화적 행위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산업화와 마을 공유 재산을 금지하는 풍토로 계는 급속히 해체되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현재에도 일부 마을의 공동 노동과 건축물 관리, 혼례와 상례의 경제적 지원과 일손의 제공 하는 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였다. 이정덕(2003)과 조정현(2009)은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 예를 들어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재현하는 축제를 진행하면서 마을 정체성이 견고해지고 공동체가 강화됨을 밝히며 공동체에 작용하는 요인은 마을 내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정원(2009)은 서울 인근의 농촌마을이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인구가 유지되며 도시화를 경험하였지만 공동체 세시가 소멸된 과정을 살피고 그 의미를 제도와 협업 상식의 변화라는 요인을 통해 살펴보았다. 공동체 세시의 쇠퇴에 생활리듬의 변화가 기여했다는 점을 발견하여 정월 세시와 단오의 쇠퇴가 생활리듬의 해체와 연관이 있음을 민족지적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처럼 공동체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공동체가 산업화, 주민 인식,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해체되었다고 말하며 그 과정상에 사업 및 제도의 영향이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3) 마을 공동체와 공간 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마을공동체를 주민의 삶과 공간에 연관을 지어 해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수진 등(2007)은 전통마을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공간 의미가 마을 공간 구성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밝혀진 공동체적 공간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

미로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동체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며 놀이의 축제적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동의 노동과 회의, 만남도 우리의 전통적 문화의 하나라고 말하였다. 김수진 등(2010)은 전통마을의 공동체 공간을 사회적 영역과 의식적 영역, 기타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영역은 정치, 집회, 휴식과 생활로 분류하였고 의식적 영역은 유교적 의례, 민속적 의례로 구분하여 공동 공간의 유형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김수진 등(2007)과 김수진 등(2010)은 공동체와 공간이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였지만 보다 주민의 삶을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어 공동체적 공간을 가시화하고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이상 농촌 공동체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본 결과, 농촌 공동체는 물적 환경으로 대변되는 문당리 마을과 마을관련 공동 인적주체, 마을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유대 관계를 맺는 마을관련조직, 조직들의 상호작용하는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겠다. 즉 문당리 마을의 주체와 조직, 활동을 살펴보면 마을 공동체를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공동체가 공간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며 사업시행, 산업화와 같은 사회 환경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해체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동체 해체는 물적 공간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그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

3. 농촌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농촌 공간에 관한 연구는 건축분야에서 주로 진행해오면서 그 내용이 농가주택에 한정되어 있었다. 일부 농촌마을 공유공간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긴 했으나 물리적인 형태연구가 중심이 되었고 주민의 삶은 배제된 연구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여 주민의 삶의 터전으로써 농촌공간의 변천 과정을 바라보고자 한다. 통념적으로 공유 공간, 외부공간으로 사용해오던 용어에 생활의 의미를 가미해 ‘생활공간’이라 명명하고 공간유형 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공간 변천 과정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1) 생활공간의 유형에 관한 연구

생활공간의 유형은 일반적인 농촌 공간의 분류 체계를 참고하였다. 한필원 외(1990), 임승빈(1996), 농촌진흥청(2006), 최영완, 윤웅철, 김영주(2010), 정다영(2012) 등의 선행연구들이 농촌 공간을 유형화하였다.

[표 I-1] 선행연구의 농촌 공간 유형

구분	구성요소		
한필원 외(1990)	· 상징 및 의식 공간, 사회적 시설, 농업시설, 편익시설		
임승빈(1996)	· 생산관련 시설, 생활관련 시설, 마을기반 시설		
농촌진흥청 분류 (2006)	농업 생산 공간	농지	· 논, 밭, 목초지, 과수원 등
		농업 시설	·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저수지, 농업시설 및 설비(축사, 정미소, 비닐하우스 등) 등
	농촌 생활 공간	생활 시설	· 농가주택(담장 등), 공공시설, 상점, 도농교류시설 (마을회관 등), 공장, 도로, 안내시설 등
		문화 역사	· 사적, 유적, 관광시설, 마을행사 및 시설(동제, 축제, 사당, 당산목 등) 등
	자연 환경 공간	산림	· 산, 생태계(비오톱), 마을숲, 수목 등
		수	· 하천, 호수, 바다
최영완, 윤웅철, 김영주(2010)	환경공간		· 마을숲, 하천, 공원, 경관 등
	생산공간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하는 시설, 농촌체험시설, 소득과 연관된 공간 등
	생활공간		· 도로, 상하수도, 산책로, 마을회관, 주민교육프로그램 등
정다영(2012)	· 생활공간, 생산공간, 의식적 공간		

한필원 외(1990)는 상징 및 의식 공간, 사회적 시설, 농업시설, 편익시설로 유형을 나누었고 임승빈(1996)은 자연환경공간이 아닌 마을기반시설과 생산관련시설, 생활 관련시설로 체계화하였다. 농촌진흥청(2006)은 농지 및 농업시설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공

간과 생활시설 및 문화역사시설의 농촌생활공간, 산림과 수공간의 자연환경공간으로 유형을 나누었는데 이는 최영완, 윤웅철, 김영주(2010)가 나눈 환경공간, 생산공간, 생활공간과 동일하다. 정다영(2012)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공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생산공간,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의식적인 공간으로 공간유형화를 하였는데 이는 주민성을 반영하여 분류를 처음 시도했음에 의의가 있다. 이처럼 농촌공간의 유형은 농촌진흥청의 체계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나 주민의 삶에 따른 공간분류를 새롭게 시도하고 있었으며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조작적으로 그 유형을 달리 함이 눈에 띄었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의 생활공간 유형은 농촌진흥청(2006)의 체계를 따르고자 한다. 하지만 진입부, 마을길, 버스정류장 등 마을공동공간이 농촌생활공간 내 생활시설의 일부로 포함되어있어 의미상의 경계가 모호하다. 따라서 임승빈(1996)의 마을기반시설과 한필원 외(1990)의 사회적 시설 유형을 체계에 반영하여 농촌생활공간의 범주에 마을공동문화공간을 넣음으로써 공간유형을 세분화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생산공간, 농촌생활공간, 자연환경공간의 의미를 삶의 범주까지 확장하여 일터, 삶터, 쉼터로 명명하고 공간 유형을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표 I -2] 본 연구의 농촌 생활공간 유형

구분		구성요소
‘일터’ (농업생산공간)	농지	· 논, 밭, 과수원 등
	농업시설	· 농로, 농업용수로, 축사, 정미소 등
	소득시설	· 소득창출의 도농교류시설(체험장, 숙소 등) 등
‘삶터’ (농촌생활공간)	주거공간	· 주택(담장 등), 마을 안길 등
	마을기반공간	· 진입로, 도로 등
	공동문화공간	· 마을회관, 교육관 등
‘쉼터’ (자연환경공간)	산림	· 산, 생태계(비오톱), 마을숲, 수목, 하천 등
	수	· 습지, 휴계공간 등
	기타	· 마을행사 및 시설(축제, 사당, 당산목 등)

(2) 생활공간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농촌마을의 공간변천 과정을 분석한 연구에는 상당수가 있었으나 동종학계의 한필원 외(1990)와 최효승, 임금화, 김태영(2007) 논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한필원 외(1990)는 지적도, 마을배치도, 인터뷰 방법을 통해 마을 안길의 이동 및 확장, 주거의 독립화와 공동시설 변화내용을 정리하여 한국전쟁 이후 상원리 원터마을 공간구조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가족구조 변화와 농업 형태와 방식 변화, 생활양식 개별화를 주 변화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최효승, 임금화, 김태영(2007)은 두만강 북안에 위치한 4개의 조선족 농촌마을의 생성시기 및 배치형태, 마을주변과 주거지내 도로망, 주거지 구조의 시기별 변천과정을 인문, 실측, 인터뷰, 사진촬영 방법으로 평면 형태를 분석하여 농촌마을의 형성과 공간구조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들은 농촌의 공간변화에 접근하는 방법과 변화요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할 수 있게 해주었다.

(3) 생활공간과 농촌정비사업 간의 관계성을 고찰한 연구

농촌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중에는 농촌정비사업과의 관계성을 밝히며 사업 후 변경된 농촌 공간 요소 및 구조에 초점을 맞춘 연구 논문도 찾을 수 있었다.

김석규와 이상정(2000)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살펴 농촌마을의 공유 공간 구조 및 형태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취락구조개선 사업 이전에는 마을의 공유 공간의 구조가 소규모로 분산된 형태였으나 사업 이후 집약형이며 시설위주의 공간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외에도 외부공간의 콘크리트 포장, 모임장소 변화, 주민복지시설 증가, 공동주차장 설치, 마을 시설 및 편의시설들이 확충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시영과 심준영(2000)은 192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농촌 주거경관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농촌의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도시형 농촌마을로 변모시켰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사업 덕분에 비위생적인 환경 등이 개선되었으나 인공

시설물이 도입되고 도로가 확·포장 하는 등으로 농촌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예용광(2003)은 새마을운동을 대상사업으로 경기도 4개 사업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새마을운동 전후 마을 공간 구조와 주거 공간 실례를 분석하여 변모해가는 양상을 고찰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구성 요소를 파악하였다. 김충식과 유주은(2009)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 10개 권역을 설정하여 경관이 형성된 세부 내용을 종합하고 고찰한 바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후 운동 휴양시설을 설치하고 농촌관광체험 시설을 조성하며 마을소공원의 조성 등 새롭게 형성되는 양상을 들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밖에 기존 시설 유지 및 정비, 담장 보수 및 정비 등 보전형으로 유지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 I-3] 생활공간과 농촌정비사업 간의 관계성을 고찰한 연구

구분	변화 내용	변화 요인
이시영과 심준영 (2000)	· 농촌의 외적변화(도시형 농촌마을로 변모) · 자동차 다닐 수 있는 마을 진입로 발달	새마을운동 (취락구조개선사업)
김석규와 이상정 (2000)	· 외부공간의 콘크리트 포장, 모임장소의 변화, 주민복지시설의 증가, 공동주차장 설치, 마을시설 및 편익시설의 확충, 마을도로 정비, 사유농경지를 마을 공동소유로 매입하여 커뮤니티 공간 및 마을 창고 설치	
예용광 (2003)	· 마을영역 인식의 변화(물리적, 인문, 사회적 영역) 정자나무, 사당, 산신각 등이 사라지고 마을회관, 교회, 상업시설이 도입, 마을 입구 변화, 기존의 전통 담장에서 시멘트 블록으로 변화	
김충식과 유주은 (2009)	· 주택 정비 및 폐가 관리, 지붕 원색 정비 · 담장 보수 및 정비, 산책로 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종합해본 바, 선행연구들 모두 공간과 사업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하며 변화내용과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시계열적인 과정 연구가 아닌 단발적 사업의 영향을 분석했다. 이는 정책 시행 전후 직접적인 영향을 살피는 데는 유용하다고 판단되나 추후 발생할 사항, 사업과 주민과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였다. 따라서 마을이 사업을 수용해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4. 문당리 마을에 관한 연구

충남 홍성 문당리 마을에 관한 사례연구는 마을 내적인 움직임에 주목한 마을리더와 마을기본계획서, 친환경 농업, 주민협력문화에 한정되어있다. 이는 마을리더, 친환경 농업, 주민활동이 문당리 마을의 내적 특수성임을 역설하기도 하지만 외적 요인의 시각에서 문당리 마을을 연구한 점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1) 마을리더와 마을기본계획서

강용배(2004)는 충남의 농촌지역 홍성과 공주의 공통된 역량강화 전략은 공동체의 특성에 부합되는 리더십 육성과 지역공동체 지도자들의 헌신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 발휘, 그리고 마을 여건에 부합되도록 마을의 역량을 조직화한 것에서 발견하였다. 효율적인 리더십과 조직화 전략은 마을의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수준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 영향력도 확대함으로써 마을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2) 친환경 농업

김영민(2001)은 환경농업의 실천과 연계하여 문당리 마을을 사례대상지로 퍼머컬처 원리를 적용한 생태적인 농촌마을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마을의 생태적 환경을 보전하면서 물질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통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마을 공동체가 고취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백준(2000)은 마을이 경제적 일체성으로 생태친화적 재구성하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된 원인을 오리농법이라 말하였다. 또한 그 배경에 지역적 분위기와 마을이 가진 인적 잠재력을 들었다.

(3) 주민협력문화

임은진(2011)은 지속가능한 촌락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성이 상호작용하는 이상적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를 회복한 마을로서 문당리 마을을 사례 연구하였다. 마을의 지속성이 다른 농촌마을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최승호(2009)는 홍성 풀무마을의 공동체성은 학교가 기반이 된 지역 영세민의 자조, 자립, 지원과 복지 등을 연구하였다. 교육적 가치인 학교가 기반이 되어 사회적 자본을 형성, 주민참여와 협력, 동원을 가능하게 하였고 무엇보다 마을공동체성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협력하여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밖에도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에 관해 충남 홍동지역을 분석한 연구(양병찬, 200)가 있었으며,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과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충남 홍성의 풀무마을을 사례 조사한 연구(최승호, 2009) 등도 있었다.

문당리 마을의 선행연구들은 마을 공동체가 전통성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한 지속가능한 촌락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말하였다. 또한 이를 전제로 미래 농촌마을에 대안을 주는 연구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문당리 마을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특정 내용만을 중심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문당리 마을이 발전하는데 있어 다수의 사업 영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마을의 내적 자원과 특수성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과 조직 기반의 공동체를 염두 하여 농촌정비사업에 의한 관계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5. 선행연구의 한계점과 본 연구의 시사점

앞서 설명한 선행연구들 중 농촌정비사업 및 정책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을 만들고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시계열적 농촌정비사업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흘러온 농촌정비사업의 흐름과 내용, 시대별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농촌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업이 주민의 생활을 반영하지 못해 잦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농촌정비사업과 공간 간의 관계성을 고찰한 연구는 사업이 공간에 미친 영향은 어떠하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었다. 농촌 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공동체의 개념과 범위, 변천과정, 공동체와 공간 간의 관계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공동체 개념을 불명확하게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는 ‘마을의 물적 환경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며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유대 집단’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또한 정의에 따르면 공동체는 물적 환경으로 대변되는 문당리 마을과 주민들로 구성된 주체, 유대관계를 맺는 마을관련조직, 상호작용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고 판단되어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공동체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도 농촌 공동체가 최근 그 중요성과 문화적 연구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으나 연구가 미진한 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공동체 연구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 또한 공동체란 사회 환경적 정세에 의해 고유성의 해체를 겪음으로 사회·문화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시각의 심층적 연구가 제기되었다. 농촌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에서는 생활공간의 유형, 변천 과정, 생활공간과 농촌정비사업 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생활공간의 유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농촌생활공간을 재구분하고 분석 틀에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생활공간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와 공간과 사업 간의 관계성을 고찰한 연구를 통해서도 본 연구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분석 방법, 변화요인 등을 설정하였다. 문당리 마을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상마을만의 특수한 내발적 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마을리더, 친환경 농업, 주민활동이 주요 요인이었으며 이에 유념하며 다소 편중된 마을 분석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시 말해 선행연구들은 하나의 구체적 사례 지역을 통해 사업추진과정을 정밀 분석하고 사업의 문제점과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시사점을 모색하는 연구가 아직까지 수행된 적이 없다. 더욱이 사업과 공간, 생활상 간의 관계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공동체와 생활공간이 변천한 과정을 연구하는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다르게 하나의 사례 지역을 선정해 주민의 삶을 공간과 엮어서 해석하며 구체적으로 분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논문과 비교해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4] 선행연구의 한계점과 본 연구의 시사점

농촌정비사업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농촌정비사업의 변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정비사업의 전반적인 흐름 파악 · 농촌 환경에 미친 사업영향을 유추 <p>▷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고찰을 연구에 반영</p>
	농촌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문제점을 파악한 연구는 평가중심의 단편적인 분석에 한계점을 지님 · 개선방향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만을 제시 <p>▷ 단편적인 사업 분석이 아닌 사회 환경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심층적인 접근 수행</p> <p>▷ 구체적으로 공간 변천 과정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시사점 모색</p>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 간의 관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결과적 측면으로만 공동체 영향 해석 <p>▷ 사업과 공동체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한 문당리 마을 연구</p>
농촌 공동체에 관한 연구	공동체의 개념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개념이 불명확하여 연구수행에 어려움 <p>▷ 공동체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수행하여 마을주체, 마을조직, 조직 활동을 공동체의 범위로 설정</p>
	공동체의 변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공동체의 변천 흐름과 변화요인 파악 <p>▷ 공동체에 관한 전반적인 변천 내용 이해</p>
	마을 공동체와 공간 간의 관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체적 접근 부족 <p>▷ 공동체와 공간의 관계를 실체적으로 규명</p>
농촌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생활공간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와 내용이 주먹에 편중 <p>▷ 생활공간의 의미를 확장하고 개념을 재정의</p> <p>▷ 삶터, 쉼터, 일터로 생활공간을 유형화</p>
	생활공간의 변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구조 분석에 집중 <p>▷ 공간 기능에 주목하여 농촌 공간 변화 파악</p>
	생활공간과 농촌정비사업 간의 관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사업의 시점으로 한정된 공시적 연구 · 직접적인 변화내용이나 영향만을 고려 <p>▷ 시계열적 변천과정연구로 사업과 공간간의 물질·비물질 상호영향을 규명</p>
문당리 마을에 관한 연구	마을리더와 마을기본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대상의 범위가 다소 편중 <p>▷ 마을의 외적변화요인인 사업의 영향 파악</p> <p>▷ 마을 내 중요 내적요인으로 마을리더, 마을기본계획서, 친환경 농업, 주민협력문화를 염두 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양상 파악</p>
	친환경 농업	
	주민협력문화	

Ⅱ. 이론적 고찰

1절. 농촌정비사업 고찰

1. 농촌의 변화와 농촌정책

“현재 한국 농촌은 빠른 속도로 붕괴되는 사회이다.” 조혜정(1981)에 따르면 현 농촌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회가 매우 빠르게 근대화되고 있다는 점이며 근대화는 급진적 사회변동의 현상으로 사회체제 전체의 변화를 요한다고 했다. 사례로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경제로의 교체는 전통적인 자조적 가족중심경제의 붕괴를 가져왔고 그 변동으로 농촌공동체가 급격히 자조적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정지웅 외(1992)도 우리나라 농촌지역이 [표Ⅱ-1]과 같이 성급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가 성장 위주의 경제적 가치로 대체되며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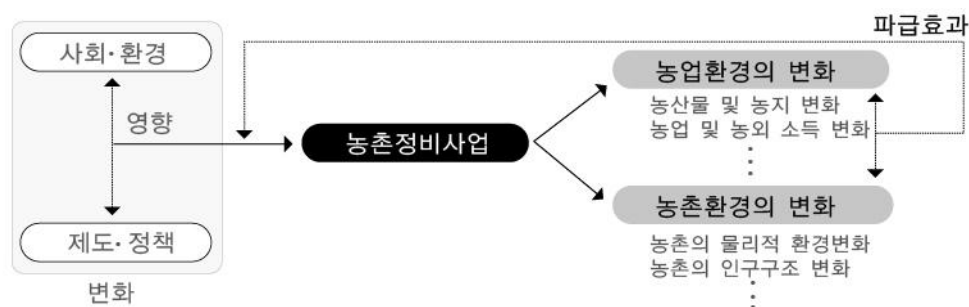
[표Ⅱ-1] 농촌의 변화

농 업	생계농업	▷ 상업농업
기 술	자연농법	▷ 기술농업
사회 구조	폐쇄형 생활공동체	▷ 개방형 생활공동체
문 화	정의 문화	▷ 경쟁의 문화
농촌 구성	농업중심	▷ 생활중심
조 직 체	마을중심	▷ 농가이익중심
이념적 중심	봉건주의	▷ 자본주의

※자료: 정지웅(1992) 참고

다양한 변화 중에서도 공간변화를 위주로 살펴보면 교통·통신의 발달에 의한 일일생활권의 확대,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인구 감소로 마을이 수행해온 다양한 기능이 축소·소

멀하여 농가와 마을 공간간의 관계가 더 이상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아닌 농가가 마을에서 독립한 개별주택 단위의 관계로 전이되고 있다. 중심 도·읍이 바로 연결되는 광역적인 지역단위로 변화되며, 마을 전체를 공유하던 것이 농가별로 구분되어 이용형태를 달리하고 있다(김영민, 2001). 사회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의 급격한 근대화,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커다란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¹⁶⁾ 경제적 가치에 의해 농촌을 둘러싼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농촌이 식량생산 공간이라는 전통적 기능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기능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의 소득향상과 주 5일 근무제의 도입, 국민관광형태의 변화 등 대외적 여건에서 농촌가치도 향상되었다. 즉 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가치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 농촌관광 진흥, 체험활동의 활성화 등 농촌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농촌정비사업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농촌 환경과 지역주민의 질적 생활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시장 개방, 소득 감소, 난개발, 농촌의 기능 변화, 관광수요 증가 등 농촌정비사업이 제정, 추진되게 된 배경에는 더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김강섭과 이상정, 2004) 선행연구들의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사회 환경적 요인과 제도 정책의 변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위기와 문제점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고 보인다.



※자료: 강영은(2012) 참고

[그림Ⅱ-1] 농촌정비사업의 발생 배경

16) 조혜정(1981)은 농촌이 전통적인 생계중심에서 경제적 가치로 교체된다며 국가 경제와 국제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특징지어진다고 했다. 특히 국가경제로의 흡수는 1970년대 이래로 빠른 속도로 일어났고 이는 전통적인 자족적 가족중심경제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2. 농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전개 양상

농촌의 위기로 농촌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 사업을 시행하였다. 중앙부처의 경우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2000년대 무렵에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관련 사업 및 정책들을 관할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관들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어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크지만 큰 흐름에서 농촌정책의 목표는 유사하다. ‘도.농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으로 도시 혹은 선진국과 발전 격차를 줄여 농촌을 쾌적한 삶의 터, 활력 있는 일터, 아름다운 쉼터로서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목표를 지역 내의 개발 잠재력을 찾아내어 육성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실현하고 있다.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근래에 들은 것으로 지역 스스로 변화하는 상향식의 내발적 개발을 지향하게 된 데에는 정책 전개 양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농촌정책의 초기단계에는 절대적 낙후와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도시화, 근대화를 지향한 터라 농촌개발사업의 내용이 주택개량, 도로정비, 공동시설 정비 등과 같이 주로 시설 정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사업내용은 예산집행에 따른 실적과약이 용이한 물량 위주였고 그러다보니 농촌의 환경관리, 소득개발, 주민교육 등과 괴리된 채 도시화, 생활의 편리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 농촌정책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물량위주의 사업은 주민의 의식 계몽, 조직화 등과 같은 활동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켰다. 이후 일관된 농촌정책의 흐름은 중앙정부가 농촌정비사업을 정책화하고, 지방에 지침을 내려주어 집행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파트너십, 지방의 창의와 특성 등은 발휘될 기회가 별로 없었고 지방은 그저 중앙정부가 기획한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전국 어디를 가나 비슷한 일률적, 획일적, 표준화된 모습과 문화가 농촌을 균일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농촌정책을 통해 물리적 정주여건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가 감소하였다는 측면이나 농촌이 가진 환경, 경관, 문화적 자원 등의 강점을 향유코자 하는 도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그릇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등의 반성이 대두되었다. 이

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답하고자 2000년을 지나면서 농촌정책은 변화를 도모하게 된다. 지방과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 사업의 내용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요체였다. (김경량과 김지용, 2005) 즉, 지방 스스로 기획하고 주민이 참여해야만 정책의 효과성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모든 농촌을 도시를 닮은 모습으로 정비하는 것보다는 저마다 농촌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을 잘 보전, 관리하고 그 일부를 소득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송미령, 2006). 2000년대 초반 들어 참여정부는 농촌 관련예산의 증가, 신규 사업의 도입확대, 농촌정책의 중요성 증대와 농촌정책 추진방식의 개선 등으로 농촌정책을 차별화하면서 주민주도와 상향식 개발전략의 중시, 농촌다움,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박진도, 2007; 김경량, 2007)

3. 농촌정비사업별 세부 내용

우리나라 농촌관련 사업의 시초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모델로 채택하여 보급한 1958년 지역사회개발사업(Community Development Program)에서 출발한다(정기환, 2002). 이 사업은 1960년대 ‘시범농촌건설사업’으로 추진되어 여러 개 마을을 개발단위로 주민조직화, 보건위생개선사업, 농촌기술 및 SOC 기반 구축사업 등을 전개했다(이해진, 2009). 국가주도의 산업화 전략에 따른 지역불균형 정책의 기조 아래 농촌정비사업은 1950년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 왔으며 시대별 사업의 내용과 성격, 특징 등을 다음과 같다.

UN과 ICA 공동 개발의 ‘지역사회개발사업’, 일명 CD사업은 농촌 낙후 지역을 부흥하고 기초 환경을 조성하며 개선하기 위한 주력 사업이었다. 소하천 및 교량 정비, 소규모 농로 등의 물리적 개선사항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었었는데 이는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볼 때 제한적이라 추후 새마을운동이 실시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

1970년에는 농촌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비 문제를 정책대상으로 대두시킨 새마을운동 사업¹⁷⁾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조직화를 특징으

로 한다. 1980년대까지 시행된 농촌 새마을운동은 농촌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이병기, 2006). 사업의 주 내용은 지붕, 소하천정비, 담장보수, 마을안길 확장 및 포장 등이었고 주로 기초생활환경 정비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일부로 취락구조개선사업도 뒤따랐으며 이 사업 이후 주택지붕이 슬레이트, 함석, 기와지붕 등으로 대대적으로 정비되면서 농촌 환경이 크게 변하기도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주로 낙후지역 및 원교형 농촌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문제가 대두되어 도로나 오지개발이 주를 이루었고 군 단위 개발로써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면정주권개발사업 등이 등장하고 시행되었다. 이는 이전 새마을운동과 비교했을 때 보다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농촌 주민들의 정주생활권의 확대와 더불어 농촌지역개발의 단위가 확대됨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군 중심의 도시개발과 배후 지역 연계 개발,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업 진흥,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군 단위 문화, 의료 개선 등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었다(송미령,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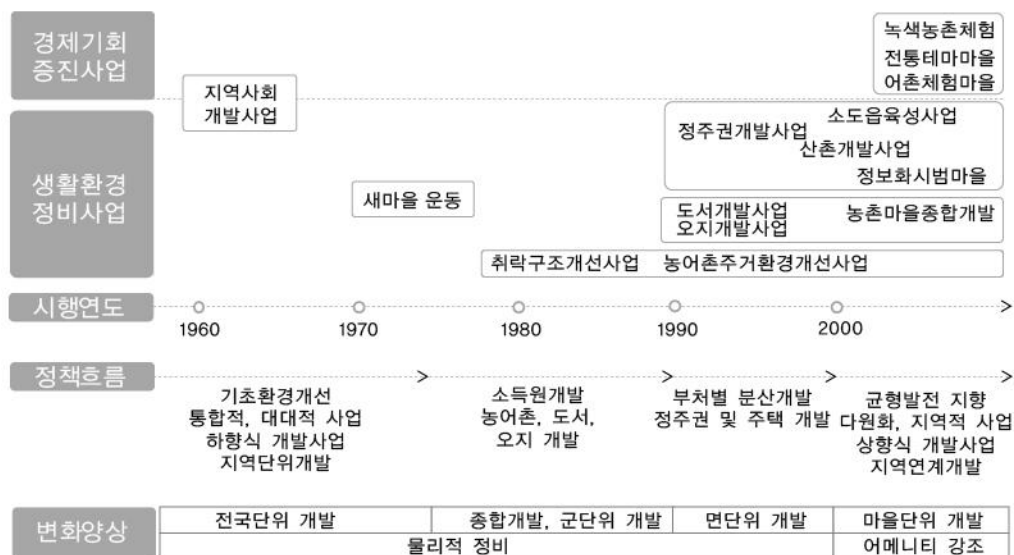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루과이라운드(UR)이 실행되어 국제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으며 면 단위 개발이 왕성하게 이어나 문화마을조성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등이 시행되었다. 이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정주권 및 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들이자 도·농간의 주거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도시와 유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되었다. 하지만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바탕으로 농촌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시설 설비 외 지역적 활성화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다(이해진, 2009).

이에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부처에서 마을단위의 지역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였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17) 새마을운동은 1972년부터 시작된 운동으로 국가와 정부 주도 하에 각 행정리 마을별 단위로 추진되어 농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의식개혁과 조직화를 통해 농촌의 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농촌마을개발사업이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사회의 조직화, 농민의 의식개혁을 통해 국가 발전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동원기제로 활용되었다(이해진, 2009).

3차 산업의 활로를 열었다. 사실 2000년 이전 농촌사업은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자율성을 가지고 진행되지 못하고 농업정책의 보완 수준에 머물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는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며 산업주의적 관점을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윤상우, 2007). 또한 농촌 자체의 물적 환경 개선과 지역 불균형을 극복·해소하기 위한 전략사업에서 벗어나 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도농 교류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메니티 중심형의 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등이 해당되며 이미 대다수 마을에 시행되었다. 그 밖에 권역 단위의 개발사업도 있었는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대표적 사례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정비공간이 등장하였다(강영은, 2012).

이처럼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농촌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 속에 농촌정비사업이 등장, 농촌지역개발로 농촌의 가치를 유지하고자하는 전략적 사고가 등장하며 이러한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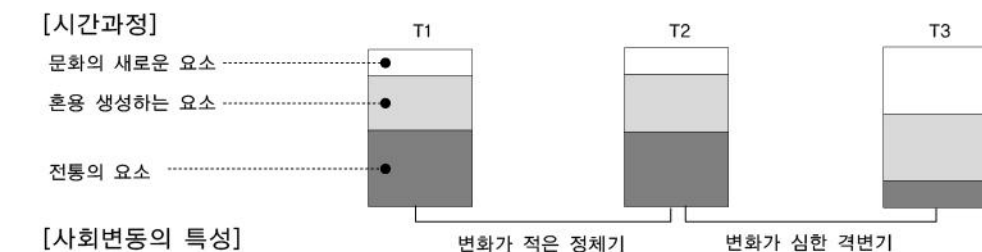
※자료: 충남발전연구원(2008)과 송미령(2007)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Ⅱ-2] 농촌정비사업의 흐름

2절. 사업과 공동체 및 공간 간의 상호관련연구의 의미와 관점

1.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 및 생활공간 간의 상호관련성

농촌공간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며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간변화의 완급이나 영향 정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나 변동은 농촌 내부의 교육수준 향상, 생산양식의 변화 등 일련의 내발적 변동에 의해 유도된 것도 많지만 국가의 정책이나 공업화, 도시화 등과 같은 외발적 변동에 의해 보다 급격한 양상을 띠고 있다.(이만갑, 1973) 이와 같은 외발적 요인인 사업, 제도 및 정책에 의한 변화는 넓은 범위에서 빠르고 강하게 일어나(조준범과 최찬환, 1999; 강영은, 2012) 공간을 바꾼다. 이는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이만갑, 1973; 조준범과 최찬환, 1999; 강영은, 2012)에서도 주장하던 바로, 농촌공간의 변화와 문제들은 농촌정비사업과 강한 관계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근대 이후 빠르게 변화되며 축적되어온 농촌공간의 현 모습은 국가 및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정비사업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자료: 최재권(2002) 참고

[그림Ⅱ-3] 문화의 변화과정

그런데 농촌 근대화의 요인인 농촌정비사업으로 변화한 공간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산, 생활 및 자연환경으로 구성되는 농촌마을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의 제반조건에 따라 일반 농민들에 의해 축적된 생활을 표현한다. 즉

농촌마을 공간에서 [그림Ⅱ-3]과 같이 사회변동에 따라 문화적인 과정¹⁸⁾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업으로 인해 공간이 생성되거나 소멸됨은 공간이 내재했던 문화의 존재여부도 결정짓는다(최재권, 2002). Lewis(1979)는 “문화란 많은 시간과 자본, 감정의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때문에 만약 문화적 공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의 문화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이를 해석하면 ‘공간변화가 크게 일어난 시점에 큰 주민 생활상에도 큰 변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뜻이다. 이처럼 농촌문화란 농촌사회 특유의 행동방식 또는 농촌에서 흔히 보이는 생활양식의 총칭이며 문화의 구체적인 형성은 이러한 생활양식으로 나타난다.(최재율, 2009; 정지웅, 1984) 다시 말해 문화의 표출은 주 생활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주 생활양식은 생활과 공간의 대응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생활행위의 양식 차원이 아니라 생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주공간이 어떻게 구성, 배열되어 있는가, 즉 주생활의 의미가 부여되고 정해진 기능을 갖는 주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느냐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허영숙, 1997)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변동으로 변모한 공간을 생활양식의 표출인 문화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공간과 생활상의 상호대응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농촌정비사업의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2. 상호관련연구의 의미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 생활공간 간의 상호관계성을 분석하면 그간 농촌정비사업으로 변한 물리적이고 정태적인 연구방식에서 탈피하여 역동적인 농촌공간의 변화상을 분석할 수 있으며 농촌에 대한 공간과 나아가 경관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촌 공간은 농촌이 가진 인문·사회·문화적 속성을 진단해보면 그 이면에 복잡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¹⁹⁾ 특히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오던 관습, 행태가 공간에 내재되어 발현하기도 변형되기도 하며 외부변화에 취약하여 수용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다양한 주체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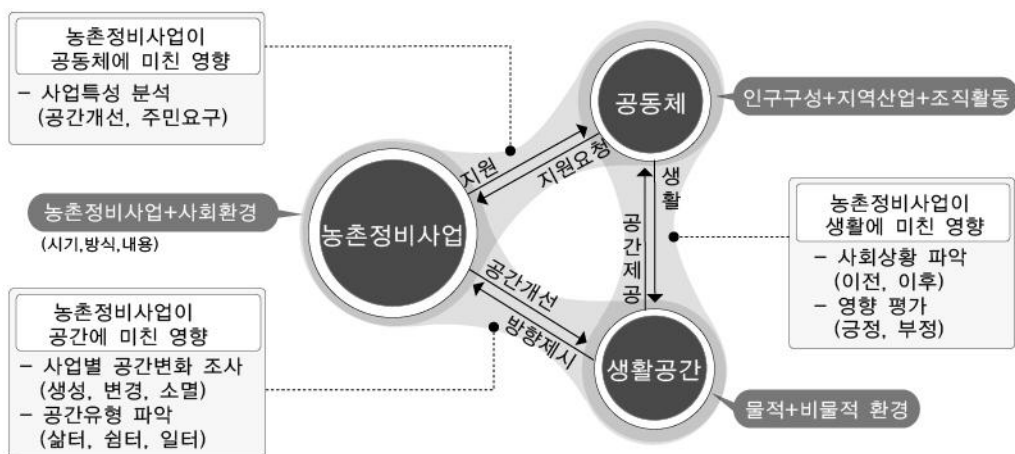
18) 여기서 문화적인 과정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19) 한필원(1990)은 마을공간의 구성요소들이 공간조직에서 가지는 상호관련성을 바탕으로 변화의 내용과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농촌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를 살폈다.

자본의 논리들이 함의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관계성 파악의 의미인 문화생태학적 관점으로 마을을 바라보는 것은 사업으로 변한 물리적 공간에 동반되는 내적 변화, 즉 복잡한 배경을 드러냄으로서 마을을 보는 시각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과정인 것이다. 농촌변화 요소인 공간과 시설뿐만 아니라 내적 의미와 생활과의 관계성을 찾아냄으로서 사업의 영향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향후 계획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3. 상호관련연구의 관점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 변화하는 생활공간 간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과 환경이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문화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한 해석학적 접근 방식으로 도출되었다. 사업과 공동체 간의 관계는 공동체가 사업 유치에 주체적이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이는 공동체 구성요소로 정의한 주체, 조직, 활동을 조사하며 농촌정비사업의 시기, 방식, 내용과 대조하여 공간개선 및 주민요구 시기의 선후관계로 파악한다. 사업과 생활공간은 사업 시행에 따른 물리적 공간의 생성, 변경, 소멸 여부와 사업 전후 사회 상황의 변화 내용을 살펴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인지를 해석한다. 그러면 농촌정비사업에 의한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천을 알 수 있으며 생활공간과 공동체간의 관계를 들어내 사업이 생활에 미친 종합적인 영향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Ⅱ-4]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 및 생활공간 간의 상호관계성

3절. 분석의 틀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알고 내용의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 [표Ⅱ-2]와 같은 자료조사표를 만들어 주민 심층인터뷰와 현지조사, 각종 문헌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이후 [표Ⅱ-3]인 분석의 틀에 종합적인 내용을 대입하여 사업과의 상관관계 및 그 영향을 해석하고자 했다.

우선, 농촌정비사업, 공동체, 생활공간의 범주는 용어의 정의에서 설정한 조작적 설정 범위로 한정하였다. 농촌정비사업은 관련 사업 및 정책의 시행시기, 개발방식, 사업 내용으로 파악하고 사회 전반의 환경 변화를 통해 그 배경을 이해하였다. 공동체는 문당리 마을만의 특수한 내발적 변화 요인인 마을리더와 마을기본계획서, 친환경 농업, 주민협력문화를 통해 이해하고 비물적 환경인 인구 구성, 지역 산업, 조직 활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 내용을 분석했다. 생활공간은 물적 공간의 변화를 공간 기능 및 이용적 측면에서 삶터, 쉼터, 일터로 구분하고 동반변화요소, 주민의 활동변화를 함께 살폈다. 각 내용은 시계열로 구성하여 대조·고찰하였으며 사업과 물적 공간 변화, 공동체, 생활상 간의 관계는 사업을 경험한 바 있는 주민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전후 관계, 영향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규명하였다.

즉, 외발적 요인으로 사업배경과 내용을 살펴 종합적인 농촌정비사업을 분석하고 내발적 요인이자 비물적 환경 변화 양상(인구구성, 지역산업, 조직 활동)을 토대로 공동체를 해석하며 물적 변화와 공간의 기능, 주민활동을 조사해 생활공간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된 내용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표Ⅱ-3] 분석의 틀에 대입, 사업이 공동체에 미친 영향과 사업이 생활공간에 미친 영향을 도출하여 전반적인 농촌정비사업의 영향을 분석 및 해석하고자 하였다.

[표Ⅱ-2] 자료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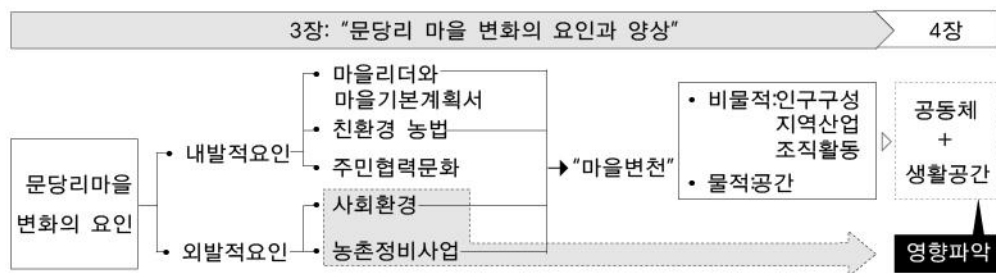
구분			분석 내용		해석 내용	
시기			· 공간 변화의 구체적 시기		▷ 시기별 구분	
외발적 요인	농촌정비사업 (관련사업+정책)		· 시행된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		▷ 농촌정비사업의 발생 배경과 사업내용 이 해	▷ 농촌 정비 사업
	사회 환경		· 공간변화 시 사회적 상황			
내발적 요인 및 비물적 변화양상	인구구성		· 마을인구의 변화		▷ 마을 내부 변화 파악	▷ 공동 체
	지역산업		· 마을의 주요 산업			
	조직 활동	조직명	· 주민 공동체 조직			
		활동	· 주민 공동체 활동 여부			
물적 변화양상	쉼터	생성	· 새로 생긴 생활요소		▷ 물적 공간 변화 조사	▷ 생활 공간
		변경	· 변경된 생활요소			
		소멸	· 사라진 생활요소			
	일터	생성	· 새로 생긴 자연요소			
		변경	· 변경된 자연요소			
		소멸	· 사라진 자연요소			
	삶터	생성	· 새로 생긴 생산요소			
		변경	· 변경된 생산요소			
		소멸	· 사라진 생산요소			
동반 변화	생성		· 함께 생성된 요소		▷ 사업 전후 공간기능 및 활동 파악	
	변경		· 공간변화로 함께 변경된 요소			
	소멸		· 공간변화로 사라진 요소			
	인근시설		· 공간변화와 연관된 요소			
기능 변화	이전 기능		· 이전 공간의 기능		▷ 사업 전후 공간기능 및 활동 파악	
	현재 기능		· 현재 공간의 기능			
주민 활동			· 공간에서 일어났던 삶의 행태			
근거			· 현장답사, 지도, 주민인터뷰, 사진, 신문기사 활용			

[표Ⅱ-3] 분석의 틀

시기	공간변화					사 업	사업특성		사회상황		영향	
	공간	생성	변경	소멸	유형		공간 개선	주민 요구	이전 상황	이후 상황	긍정	부정
▽	▽						▽		▽			
연대 구분	사업이 공간에 미친 영향						사업이 공동체에 미친 영향		사업이 생활에 미친 영향			

Ⅲ. 문당리 마을 변화의 요인과 양상

3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인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 및 생활공간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대상지인 문당리 마을의 기본적인 공간변화양상을 조사·분석하여 마을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자 했다. 따라서 대상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마을 공간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한다고 판단되는 내·외발적 공간변화요인들²⁰⁾을 추출·분석하며 물리적·비물리적 변화 양상을 파악, 마을의 전반적인 변천과정을 고찰하는데 본 장의 주된 목적을 두었다. 변화요인은 기본적으로 외발적 요인과 내발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의 핵심인 농촌정비사업은 사업이 등장하게 된 원인인 사회 변화와 함께 외발적 요인의 절에서 검토하였으며, 내발적 요인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문당리 마을의 중요 변화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는 마을리더와 마을기본계획서, 친환경 농업, 주민협력문화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요인 분석 후에는 물적·비물적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비물적 변화 양상은 마을을 구성하는 인구, 친환경 산업에 따른 농업, 마을 조직들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그림Ⅲ-1] 문당리 마을 변화의 요인과 양상 체계

20) 내·외발적 공간변화요인은 국제 농촌개발 협력 사업단(2011)의 질충적 농촌개발의 구성요소를 참조 후 문당리 마을에 맞게 각색하였으며 해당내용은 [그림Ⅲ-2]이다.

외발적 개발이 주를 이루는 일반농촌마을과 다르게 절충형 농촌개발의 우수한 사례로 문당리 마을만의 특수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공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기초 사항 및 양상을 개략 검토하였다. 이는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물적·비물적 영향력을 정교하게 추출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문당리 마을, 넓게는 농촌마을의 변천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 내용은 각종 사업 보고서 및 홍동면지, 신문기사, 관련 서적과 선행연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조사하였고 2차는 총 4차례(2012년 9월 27일, 10월 9일, 10월 11일, 11월 26일)에 걸친 현지조사로 수행하였다. 마을대표와 50대 이상의 마을 주민을 대상²¹⁾으로 시대별 자료를 수집하고 변화내용에 대한 관계성 확인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표Ⅲ-1] 연구조사방법

구분	날짜	내용			
이론연구	2012.9-11월	· 사업보고서, 홍동면지, 신문기사, 관련서적, 선행연구 검토			
현장조사 및 주민인터뷰	2012.9.27	· 류근철	남자	마을대표	4명
		· 김영숙	여자	마을주민	
		· 신범용	남자	마을주민	
		· 김기동	남자	마을주민	
	2012.10.9	· 홍순명	남자	전 풀무학교 교장	2명
		· 황강석	남자	전 마을이장	
	2012.10.11	· 이변영	남자	홍성신문 대표	5명
		· 배성덕	남자	마을주민	
		· 정민영	여자	마을주민	
		· 주형로	남자	전 마을대표	
		· 정예화	여자	전 부녀회장	
	2012.11.26	· 김기웅	남자	법인직원	2명
		· 최현민	남자	마을주민	
	종합	· 총 4차례 현장조사 및 13명 주민 심층인터뷰			

21) 대상자는 마을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을 시작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다음 사람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을 내 주민 외에도 마을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지역 조직의 대표도 인터뷰하여 공동체 조직의 활동 분석에 타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1절. 일반 현황

문당 환경농업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가 높은 마을로 도농교류가 활발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촌마을이다. 마을기본계획서인 문당리 백년계획을 통해 다양한 소득원 창출과 삶의 질 개선, 환경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마을이다. 기본적인 인문·환경과 사회·문화 현황은 다음과 같다.²²⁾

1. 인문·환경

문당리 마을은 자연발생마을로 정확한 형성 시기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문당리 지명은 조선시대 말엽 홍주군 홍안송면의 지역이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광제리, 동곡리, 원당리, 하소리와 가곡리, 문산리, 상소리의 일부, 유곡면, 마정리의 일부를 합병하면서 문산과 원당의 이름을 따 문당리라 명명했다고 전해진다. 마을구성을 살펴보면 문당리는 현재 문산과 동곡, 2개의 행정부락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중 문산은 문산정, 서근터, 안말, 원당, 즉 4개 지역으로 또 다시 나뉜다. 각 지역의 지명에는 독특한 유래가 있는데 문산정은 원당 서쪽에 큰 정자가 있었다 하여 문산정, 또 옛날에 학문으로 이름 높은 곳이어서 문산정이라고 전해오고 있으며 서근터는 곡식이 썩어서 썩은터, 원당은 문산정 동남쪽으로 옛날에 큰 무당이 살던 집이 있었다고 해서 원당이라고 한다. 전주 이씨와 창원 황씨를 위주로 13성이 문산에 정착해 살고 있다. 동곡의 경우는 옛날부터 동쪽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동곡이라 부르며 뒷산에는 오봉산이 있어 인재가 많이 나는 마을이라 한다. 현재는 오봉산 끝자락 골짜기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다른 부락에 비해 사회, 경제적으로 다소 낙후되어 있다(홍동면지, 1994). 이들 각각은 골짜기들 따라가는 형태의 집촌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밭으로 둘러싸여 있다. 각 골짜기들 사이에는 도로와 농경지가 위치하며 마을 경계는 차가 다니는 소리가 나있다. 기본적으로 문산과 동곡을 통칭하여 문당리라 일컬어지고 있으나

22) 홍성 환경농업마을(2000),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

마을대표 및 마을회관, 부녀회 등이 구분되어있어 생활권은 별도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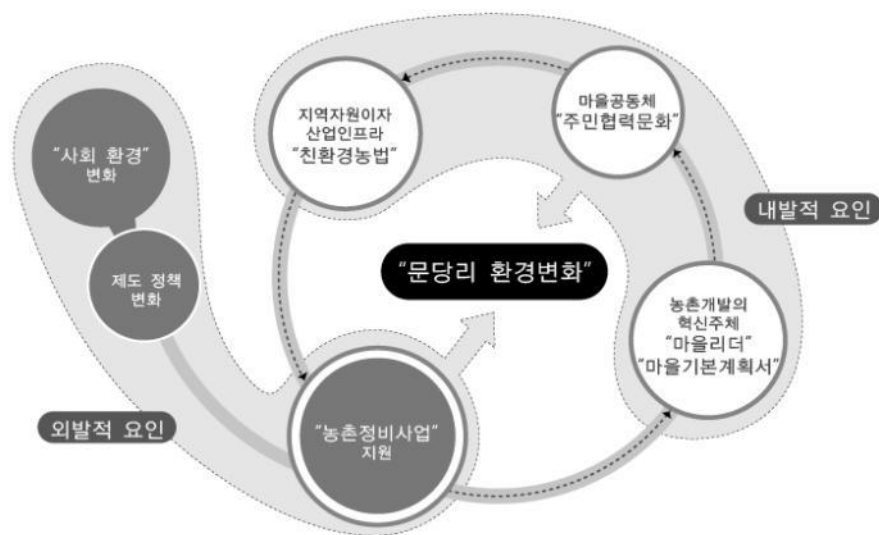
문당리 마을은 생태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1990년대 초부터 선도적으로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과 유기농 농산물 생산에 의한 환경농업을 실현하고 있는 친환경의 메카이다. 농산물 유통망을 마을 스스로 개척하고 개선하여 경제적인 여유를 확보하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체 에너지를 사용했으며 생태적 오페수 시설의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일상의 삶과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촌락으로서 다른 농촌 마을에 희망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많은 농민들과 지도자들이 견학할 뿐 아니라 도시민들을 위한 생태관광이 활성화되어 녹색농촌체험마을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임은진, 2010; 윤갑식, 2006; 양병이, 2002; 권승문, 2011; 김영민, 2001). 마을 내 역사문화자원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근원 직경이 170cm, 190cm되는 팽나무가 두 그루 있고 서근터 마을의 뒤쪽 구릉 위에 근원 직경 20-25cm의 수령이 약 100년 된 소나무림이 보존되고 있다(홍성 환경농업마을, 2000).

2절. 문당리 마을 변화의 요인

문당리 마을과 같은 절충형 농촌마을의 경우, 현재 모습까지 발전해오는 데 여러 가지 내·외발적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환경변화를 일으켰다고 보인다.²³⁾

23) 국제농촌개발협력사업단(2011)은 농촌개발을 내생적 농촌개발과 정부 등 외부의 지원에 의해서 발전되는 외생적 농촌개발로 구분하였다. 내생적 농촌개발 (endogenous rural development)은 주민주도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 가는 것이라 하였고 외생적 농촌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부의 자본이나 기술적 재정적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문당리 마을의 경우 정부나 외부의 지원도 받으면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발전한다는 점에서 절충형 농촌개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내발적 요인에는 인구, 지역자원, 지역산업, 주민조직 등이 있는 데 [그림Ⅲ-2]에서 알 수 있듯이 문당리 마을에 적용하면 풀무학교 출신의 지역 리더, 친환경 농법을 실시한 지역 산업, 왕성한 주민들의 협력 문화로 대변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농촌개발의 내발적 요인에도 부합하면서 문당리 마을의 핵심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²⁴⁾ 외발적 요인에는 농촌정비사업이 있으며 농촌정비사업과 정부지원의 정책사업의 배경인 사회 환경 변화도 있다. 따라서 국제 농촌개발 협력 사업단(2011)의 농촌개발 요소를 적용하되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문당리 마을의 특수성을 대입하여 문당리 마을만의 변화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자료: 국제농촌개발협력사업단(2011)의 질층적 농촌개발의 구성요소 참조 후 각색

[그림Ⅲ-2] 문당리 마을 변화의 요인

1. 외발적 요인

문당리 마을의 외발적 요인에는 제도 및 정책 내용을 포괄하는 농촌정비사업과 사회 환경 변화가 있다.

24) 문당리 마을 관련 선행 연구를 유형화해본 결과 마을리더와 마을기본계획서, 친환경 농법, 주민 협력문화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농촌정비사업

지역답사와 항공사진, 주민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봤을 때, 문당리 마을에 실시된 정부 주관의 사업은 총 10개로 1972년 새마을 운동이 초시였다고 판단된다. 이전에는 낙후된 농촌마을 중 하나로 별다른 사업혜택이 없었으나 새마을운동 이후 운동의 일환이었던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실시, 1980년대 들어서 경지정리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정부지원 하에 시행되면서 타 농촌마을과 비슷한 물적 개발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마을 내 자체적인 변화에 의해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환경농업시범 마을가꾸기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다. 이를 필두로 2000년대 다양한 상향식 정책 사업들도 실시되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뿐 아니라 정보화마을 사업,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들이 상향식 사업개발 형태로 문당리 마을주민들과 상호작용하며 유치되었다. 최근에는 문당 환경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사업과 도농교류활성화 사업이 시행예정이나 조사분석할 내용은 현재까지 완료되어 결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업으로만 한정하였다.

[표Ⅲ-2] 농촌정비사업의 연혁

연도	주요 내용	근거 ²⁵⁾
1970	1972* · 새마을운동	· 구술, 신문기사
	1978 · 취락구조개선사업	· 홍동면지, 구술
1980	1982* · 경지정리사업***	· 구술, 신문기사
	1989 · 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 구술
1990	1999 · 환경농업시범마을 가꾸기 사업	· 홈페이지
2000	· 정보화시범마을사업	· 홈페이지
	2003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2004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2단계)	·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 마을경관조성사업	· 홈페이지, 구술
	2009 ·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 홈페이지

※자료: *는 추정연도임, **은 사업보고서 없음, ***사업명칭추정

외발적 요인인 농촌정비사업은 정책의 배경을 알아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표Ⅲ-3]과 같이 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 정책의 배경, 목표, 세부내용을 함께 고찰하였다. 또한 [표Ⅲ-4]에서 사업별 공간변화내용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농촌정비사업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당리 마을의 변화를 1차적으로 유추하였다.

[표Ⅲ-3] 농촌정비사업의 정책 배경

연대	사업		정책		
	종류	세부내용	배경	목표	세부내용
1960	-	-	· 전후 재건	· 지역 사회 개발	· 농지개혁법 (1949)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7-1971)
1970	새마을 운동	· 기초생활환경개선	· 산업화	· 주민 동원	· 새마을운동 (1970)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1976)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7-1981)
	취락 구조 개선 사업	· 마을기반시설정비			
1980	경지 정리 사업	· 영농관리 · 농촌 환경개선 · 생산성 향상	· 도농 격차	· 기반 시설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82-1986) · 도서개발촉진법 (1986) ·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87-1991) · 오지개발촉진법 (1988)
	주거 환경 개선 사업	· 불량주택개량사업 보조 · 부대시설 개량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농가주택 개량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25) 마을대표자 류근철씨와 주형로 외 마을관련인 11명의 인터뷰에 근거했으며 [표Ⅲ-1] 참조.

[표Ⅲ-3] 계속

연대	사업		정책		
	종류	세부내용	배경	목표	세부내용
1990	환경 농업 시범 마을 가꾸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정비 · 문화 복지시설 · 도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 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발전특별법 (1990) · 지방자치제 본격화 (1991) · 지방잉여금제도 (1991) ·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 (1991) · 신 농정5개년 계획 (1993) · 준 농림 제도 시행 (1994) · 농어촌 정비법 (1994)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2000	정보화 시범 마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인터넷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자유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000-2020)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2003) · 농업, 농촌 종합대책 (2003)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4)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 · 포괄보조사업 도입 (2010)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체험 기반시설 설치 · 마을경관조성 · 생활편의시설 설치 			
	농촌 종합 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개선 · 기초 생활환경정비 · 소득기반확충 · 지역역량강화 			
	마을 경관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반시설 · 경관형성 · 부대시설 · 프로그램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 조성 · 소득기반 조성 			

※자료: 정보공개시스템의 사업별 기본계획보고서 및 이해진(2009)과 강영은(2012) 참고 후 재구성

[표Ⅲ-4] 농촌정비사업 별 공간변화요소

연대	사업종류	사업상 공간변화요소
1970년대 이전	-	-
1970-80 년대	새마을운동	· 지붕개량, 담장보수 · 소하천개보수, 농로, 마을안길 확포장 · 사방, 조림
	취락구조 개선사업	· 주택 신축·개축
	경지정리사업	· 농경지 교환 및 변형 · 개간·배수·관개 설비 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 농가주택 및 불량주택 개량 ·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불량변소 개량
1990년대	환경농업시범마을 가꾸기 사업	-
2000년대	정보화시범마을사업	· 컴퓨터 보급 · 정보화시설센터 설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 마을경관정비사업 · 생활편의시설조성 · 농촌체험기반시설
	농촌종합개발사업	· 마을소공원, 담장과 마을 숲 정비, 빈집철거 · 마을 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 산·개축 · 공동육묘, 공동저장, 집하시설, 프로그램
	마을경관조성사업	·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전기통신시설 · 조경, 부지정리 · 주택건축, 농장농원, 마을회관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 마을별 테마관광사업 지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 문화 복지시설 확충

※자료: 사업별 기본계획보고서와 강영은(2012) 참고 후 재구성

(2) 사회 환경

문당리 마을의 물적 환경을 바꾼 직접적인 원인은 농촌정비사업에 있지만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발적 요인의 하나로 분류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다. [표Ⅲ-5]와 같이 문당리 마을과 국내·외 정세에는 사회 환경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마을 주민의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내발적 변화의 동력이 되었다.

사회 환경의 변천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국외는 70년대 하향식 정부주관의 성장과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는 지역개발 및 성장거점 전략이었으나 80년대 들어서 지역 간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90년대 UR 협상이 체결되면서 농촌의 위기가 맞물려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이 제시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겪게 된다. 2000년대 들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농촌과 농업의 상업화가 진행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는 70년대 대도시와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탈농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을 둔 물량 위주의 농촌 근대화 사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였다. 80년 대 자동차 및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여 생산량도 증가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도농격차가 심화되어 농촌주민의 질적인 삶에 눈을 돌리게 되기도 하였다. 90년대는 농촌의 급속한 도시화와 UR 협상 타결의 여파로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대되었다. 이는 2000년대 주 5일제 시행과 맞물려 도시민을 위한 공간 및 경관 계획의 집중적 투자로 이어졌고 농촌에 대한 다원적 기능을 재조명시켰다. 여기서 문당리 마을은 국내·외 사회 정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했음이 눈에 띈다. 문당리는 다소 이른 시기인 70년대 마을리더에 의해 친환경 농사가 전파되었으나 생산 위주의 정책과 소득지향의 경제체제 확산으로 보편화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90년대 UR 타결을 기점으로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 농업이 재조명되었고 이에 마을리더가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확산시켰다. 주민 의식변화에 따른 주체적인 활동이었기에 친환경 농업은 지역에 소득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주민 공동체를 재결성시키는 효과까지 창출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주 5일제 시행으로 도시민의 여가활동시간이 늘어나고 환경과 건강,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확산되면서 문당리 마을과의 도농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이처럼 문당리 마을의 사회 환경 정세는 직접적인 물적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2000년대 상향식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마을을 변모시켰다.

[표Ⅲ-5] 사회 환경 변화

연대		사회 환경		
		문당리 마을	국내	국외
1960	내용	-	· 기초생활환경수준 열악함 · 공업화, 산업화 촉진	· 외국의 지원 정책 · 대외 지향적 발전전략
60	영향	-	· 기초생활 및 기반시설확충 · 농업경영의 기계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 · 지역개발전략 강화
1970	내용	· 친환경에 관심	· 급격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 기초생활환경수준 열악함 · 인구감소 및 고령화	-
70	영향	· 벼농사 유기농업 시작	· 물량위주의 성장 · 경제적 가치로 변화 · 국토이용 비효율 및 사회적 비용 증대 · 일손 부족 등 농촌경쟁력 저하	-
1980	내용	· 주민복지에 대한 요구	· 자동차 문화 확산 · 도농 격차 증가 · 문화 복지에 대한 요구증가	· 성장거점전략 (하향식 개발) · 88올림픽 개최
80	영향	· 어린이집 운영 시작	· 농촌도로개발사업 수요 증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도 (기반 및 기초시설 확충) · 농촌주민의 질적 삶과 여성에 관심	· 농촌지역의 계획 및 개발 간과 · 사회적 불평등 심화 · 정주기반시설 확충
1990	내용	· 친환경 농법 도입 · 도농일심 행사시행 ·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 · 문당리 백년계획 수립	·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 · 사회적 형평과 지역균형개발 관심 증대 및 환경, 쾌적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수요 팽창 · 농촌의 자연과 도시적 편리함이 조화되는 환경 요구	· UR 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화와 단계적 실시
90	영향	· 오리농법 · 나눔의 행사 · 오리입식 행사 시행 · 환경기금을 조성하여 교육관부지구입 · 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	· 농촌에 다양한 요구 발생 · 지역균형개발 사업제기 및 활성화 · 쾌적한 주거환경 및 여가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 전원형 공간 조성 요구 증가	· 농업구조조정 ·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 마련

[표Ⅲ-5] 계속

연대	사회 환경		
	문당리 마을	국내	국외
2000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가처분 소득 향상 · 주5일 근무제 도입 · 농촌경관의 수요 증가 · 초고속교통 및 정보망 형성 · 마을가꾸기 사업 증대 · 귀농, 귀촌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자유주의 ·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 경제 블록의 강화 · 남북한 평화분위기 조성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심 · 국민관광행태의 변화 · 농촌관광요구 및 수요증가 · 정보생활화 요구 증가 · 주민참여 증가 · 전문가 연계사업 활발 · 쾌적한 농촌지역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상업화 · 사회 양극화 심화 · 농업의 여건 및 경쟁력 악화 · 미래지향적·해방적 국토 기반 구축 의지

※자료: 강영은(2012) 논문 및 주민 인터뷰 참고

2. 내발적 요인

앞서 사업과 사회 환경을 검토한 내용에서 발견한 사업과 밀접한 관계성의 내발적 요인에는 마을리더와 마을기본계획서, 친환경 농업, 주민활동이 있으며 이는 다수의 문당리 마을 연구에서도 현재의 문당리를 이해하는 핵심요소라고 명시된 바 있다.²⁶⁾

(1) 마을리더와 마을기본계획서

문당리 마을 변화의 가장 주요한 내발적 요인은 마을 발전의 구심점이 되었던 마을리더와 마을기본계획서인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이하 통칭 백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마을 리더는 마을 발전을 위해 친환경 농사를 도입하여 탁월한 비전을 제시하

26) 윤갑식(2006)은 문당리 마을에서 전개된 오리농법의 확산, 도농교류 이벤트 개최 등의 혁신활동이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요인에는 마을발전계획 등을 수립한 지도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동 및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 협력 문화,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네트워크 기반, 정부를 포함하는 외부의 적극적인 사업 지원이라고 말하였다.

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노력하였다.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을 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친환경 관련 조직들을 창설하고 조직의 대표를 역임하여 마을을 일관된 방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마을 리더는 4대째 문당리에서 농사를 짓는 마을 출신으로 1970년대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를 다니며 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깨달아 더불어 사는 삶을 문당리 마을에 실현하고자 했다(윤갑식, 2006). 사실 처음 유기농업을 마을에 도입했을 당시 농업정책의 기본 방향은 생산성 증대에 있었고 농약사용을 하지 않으면 잡초제거 등과 같은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유기농업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마을 리더는 이렇게 냉대받던 유기농업을 지속하며 1994년부터는 오리농법을 새롭게 도입하였고 마을주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전파하여 마을 전체로 친환경 농사를 확산시켰다. 이 뿐 아니라 마을 발전계획 수립에도 주도적으로 참여, 환경농업교육관을 건립하는 등 친환경 마을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해왔다. 마을리더의 노력 덕분에 홍성군 농촌지도소와 홍성군청의 지원 혜택도 상당 부분 받을 수 있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농업 추진 의지도 높아 다수의 상향식 사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하여 마을을 변화시켰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도 마을을 바꾼 주된 요인의 하나이다. 문당리 백년계획은 ‘생각하는 농민, 준비하는 마을’을 표방하며 녹색연합과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양병이 교수가 주관한 연구이다. 이는 마을리더와 함께 마을개발에 있어 중요한 지침 기능을 하였다. 홍성 환경농업마을(2000)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 책자에 따르면 계획 내용은 4가지의 마을 만들기 사업전략을 취하고 있다.²⁷⁾ 첫째는 오리농법 쌀 특화와 녹색관

27) 4가지 사업전략의 첫째는 넉넉한 마을 만들기로 오리농법 쌀을 특화하고 한약원, 한우원, 종합가공장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이다. 교육관을 비롯하여 마을의 옷샘터 등을 관광자원화하여 녹색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터넷을 통한 유통 거래로 도농 간의 다양한 교류와 홍보활동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여기서 마련된 소득은 공동 소득으로 관리하고 재투자하여 마을 경제를 완성한다. 둘째는 오순도순한 마을 만들기이며 교육관에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소 제공을 제안했다. 젊은 귀농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10~30대 인구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한 인근 의료시설을 연계하여 평생의료 체계를 확보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춰 마을 정보를 네트워크화 한다. 셋째, 자연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이다. 우선 하천을 살리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작은 하천과 농수로로 자연형 하

광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시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방안들에 관한 전략, 둘째는 면학시설과 정보시설을 구비하여 주민 평생교육을 시키고 젊은 귀농인을 유치하며 의료시설 체계, 정보네트워크화 등으로 주민들의 소속감 강화와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방안을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셋째는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적인 관리계획에 관한 전략이다. 자연형 하천, 지역 식생을 이용한 자연 정화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생태계를 살린다는 내용이고 넷째는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풍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자연형 소재의 주택을 사용하며 빗물순환,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방안 등을 함께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적 자립방안 마련, 공동체 문화 복원,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 에너지 절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백년계획의 내용은 특히 상향식 사업 지원 혜택으로 마을을 개발하는데 반영되어 공간테마와 콘텐츠 등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2) 친환경 농법

마을리더의 노력 외에도 마을을 변화시킨 내발적 요인에는 친환경 농법이 있다. 친환경 농법은 2000년대 사업들의 방향성과도 부합하여 문당리 마을을 급변시켰다고 보인다. 친환경 농법 중 1994년 오리농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문당리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은 마을 대표 밖에 없을 정도로 마을 주민들의 환경의식은 미숙했다.²⁸⁾ 다양한 형태의 지역 활동이 나타나게 된 계기를 마련한 오리농법이 마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생산된 쌀의 수매가격이 관행 농법으로 생산된 쌀보다 확연하게 높았기

천으로 살려 식생을 자연적으로 형성하게 하며, 삽교천 유입구에 자연정화 처리시설을 도입한다. 또한 숲을 가꾸어 녹색휴양림으로 활용하고 토양 미생물을 이용한 정화시설을 만들어 지역생태계를 살린다. 넷째는 자연과 조화되는 마을 만들기이다.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주택의 전면 에 온실을 설치하거나 지붕녹화로 단열하는 등 특별한 기계장치 없이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태양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만들어 사용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집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돈분, 인분 등을 재료로 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자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자연과 조화되는 주택을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 나오는 소재로 지붕을 만들고 살기 편한 구조의 주택 유형을 선택하고, 빗물을 이용하고 빗물이 통과하는 마당과 길을 포장하는 한편 자연정화 연못을 만들어 물이 순환할 수 있게 하며,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생태적인 화장실을 만들어 쓰레기 없는 마을이 되게 한다(홍성환경농업마을, 2000).

28) 유기농법을 마을에 처음 도입한 주형로 씨는 UR로 오리농법이 활성화되기 이전 친환경 농법 전파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였다.

때문이다.²⁹⁾ 또한 생산된 친환경 쌀에 대한 안정적인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도 오리농법이라는 활동이 마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친환경 농법의 도입은 마을에 2가지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하나는 도농교류의 핵심지역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2000년대 주5일제 도입, 도시민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인정받아 다양한 사업 지원혜택이 생성되었는데 문당리 마을은 친환경 농법이 확산되어 있어 사업 적용에 적합성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농법이 실질적 소득과 결부되면서 다양한 시설 건립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친환경 쌀을 분리하고 저장, 가공하기 위한 RPC 공장, 마을 내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축사들이 친환경 농법에 의해 들어섰고 마을을 급 변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3) 주민협력문화

마을리더가 제시한 비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협력 없이 그것이 실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활동도 마을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내발적 요인의 하나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협력 문화란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협동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우러나는 것이다. 문당리 마을은 친환경 농법인 오리농법이 확산되었고 마을리더의 추진아래 환경기금을 적립³⁰⁾, 환경교육관이 건립되고 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운영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어 협력관계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협력관계의 강화는 주민활동을 또다시 불러일으켜 마을에 대한 주민의 애착심과 이웃 주민과의 연대감 및 신뢰감을 제고시킴으로써 마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현재는 마을의 공식적·비공식적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윤갑식, 2006).

29) 문화체육관광부(2011) 연구에 따르면 1994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흑향미가 들어왔고 문당 마을은 1995년부터 유기농법으로 흑향미를 재배했는데 그 부가가치가 일반미에 비해 2~3배가량 높았다고 한다.

30) 황강석씨는 1996년부터 30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하고 벼를 수매할 때마다 가마당 약 1만원을 환경기금으로 적립하여 현 환경교육관 부지를 구입했다고 말하였다.

3절. 문당리 마을 변화의 양상

1. 비물적 환경

문당리 마을이 내·외발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양상은 물적·비물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물적 환경의 대상으로써 공간을 살펴보고, 비물적 환경으로써 인구구성과 지역산업, 조직 활동을 검토하였다. 전술한 마을리더, 마을기본계획서, 친환경농업, 주민활동이 계기가 되어 마을을 변화시켰음이 잘 나타난다.

(1) 인구구성

인구구성의 변화를 논하기 앞서 현재 마을의 인구구성에 대해 말하자면 마을의 총 가구³¹⁾는 82세대로 문산 60세대, 동곡 2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농가는 68호이고 비농가는 14호로 농가중심의 마을이다. 총 인구수는 226명으로 문산 167명, 동곡 59명이며 그 중 남성은 124명, 여성은 102명으로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약간 많다. 인구수로 볼 때 ‘리’ 단위의 마을로서는 비교적 큰 마을이다.

[표Ⅲ-6] 문당리 마을 인구구성

구분	마을전체			세대수	가구 수			
	계	남	여		농가	비농가	공가	계
문산	167명	91명	76명	69세대	50	10	-	60
동곡	59명	33명	26명	28세대	18	4	-	22
총계	226명	124명	102명	97세대	68	14	-	82

※자료: 홍성면사무소(2012) 참고

일반적인 농촌인구의 도시로 이주와 출산을 저하 등의 이유로(김영민, 2001) 문당리 마을도 1990년 460명, 1995년 291명, 2000년 283명, 2005년 230명, 현재 226명으로

31) 마을 내 주택은 80%가 한옥이며 양옥은 20%이다.

감소추세에 있으며³²⁾ 전국 및 홍동면, 홍성군도 197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연령층을 분석하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마을의 노동력 인구가 107명으로 전국 연령별 노동현황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살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환경농업시범마을 영농조합법인의 회원(51농가)으로 가입되어 마을의 주요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홍성 환경농업마을, 2000).

[표Ⅲ-7] 문당리 마을 인구추이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현재(2012)
문당리	460	291	283	230	235	226
남성	-	-	-	-	122	124
여성	-	-	-	-	108	102

※자료: 김영민(2001)과 홍성통계연보(2010) 홍동면사무소(2012) 참고

[표Ⅲ-8] 문당리 마을 연령별 인구구성

구분		계	20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문당리	마을 인구	226명	29	20	17	31	39	90
	비율(%)	100	12.8	8.7	7.5	13.7	17.2	39.8
	노동력 인구	107명	-	20	17	31	39	-
	비율(%)	100	-	18.69	15.89	28.97	36.45	-
전국	전체 인구	3,063천명	403	213	217	364	587	1,279
	비율(%)	100	13.16	6.95	7.09	11.88	19.16	41.76

※자료: 농림부 통계연보(2010) 및 홍동면사무소(2012) 참고

32) 홍동면사무소(2012)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1990년대 이전 통계는 리 단위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구 유형별 구분에서 단신 유형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부부유형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 들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4%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가족중심의 전통적 구성이 해체되어 감을 뜻한다.³³⁾ 또한 아직은 소수이나 귀농인과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마을에 나타나고 있었다. 기존주민 중 풀무학교 출신의 주민은 약 10여명이었다.

[표Ⅲ-9] 문당리 마을 유형별 인구구성

계 (명)	가구유형				계 (명)	주민유형		
	단신	부부	부부+ 자녀	부부+부 모+자녀		기존주민 (기존 +풀무)	귀농인	외국인
226	128	62	18	18	226	215	10	1
	56.64%	27.44%	7.96%	7.96%		95.13%	4.43%	0.44%

※자료: 흥동면사무소(2012) 및 현지조사(2012) 참고

인구구성의 변화양상은 인구와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남녀의 비율은 남성이 다소 높은 편이었고 타 마을과 다르게 노동인구 수가 높은 편이었지만 전체 인구수는 일반 농촌과 비슷하게 감소 중이었으며 고령화가 진행 중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이사항은 2000년대 들어 풀무학교 출신의 마을주민과 귀농인, 외국인이 소수이지만 마을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중에는 마을리더도 포함되며, 이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개발시켰다. 가구는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농가중심의 마을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가구특성은 단신가구, 부부가구 중심으로 가족구성이 변화하고 있었다.

33) 김영민이 2001년에 조사한 문당리 마을의 인구구성 중 단신은 17.6%, 부부가 30.5%, 부부와 자녀는 29.5%, 부부와 부모, 자녀는 22.4%였다. 현재와 비교하면 단신 가구의 유형이 약 30%가량 급증했으며 부부와 자녀, 부부와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가 급감했음을 잘 보여준다.

(2) 지역산업

문당리 마을은 [표Ⅲ-10]과 같이 현재 임야 101.3ha, 전 37.4ha, 답이 68.7ha로 농업중심마을이다.

[표Ⅲ-10] 문당리 마을 경작 현황

구분	농가호수(호)		경지면적(ha)			임야(ha)
	세대수	농가수	전	답	계	
문산	69	50	26.5	53.6	80.1	101.3
동곡	28	18	10.9	15.1	26	
계	97	68	37.4	68.7	106.1	101.3

※자료: 흥동면사무소(2012) 참고

문당리 마을의 가장 특징적인 지역산업의 변화는 친환경 농법 시행에 있다. 친환경 농법은 1977년 마을리더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확산되지 못하다가 1994년 UR 타결 이후 친환경농법의 하나인 오리농법을 시행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전체 68.7ha 중에 64.5ha, 약 94%면적에 우렁이를 이용하여 유기농 경작을 하고 있으며 특히 문산 부락 쪽에서 금평리에 연계되어 친환경 농법을 주로 실천하고 있다.

다음은 이 마을에서 추진했던 친환경 농법 중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에 관한 상세내용이다. 오리농법은 정농회 회원인 주형로 씨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흥동면과 흥성군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모내기가 끝나고 벼의 착근이 이루어지는 6월에 오리를 논에 입식하여 8월에 오리를 철수시키는 방법이다. 오리농법의 실천은 주민들로 하여금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마을민의 협동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기여효과를 낳았다. 1996년 8월 일본 오리농법 실천농민과 1차로 교류를 가졌으며 해마다 아시아 오리농법 농민 교류회를 통하여 오리농법에 대한 상호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표Ⅲ-11] 문당리 마을 농법 변화

구분	문당리				전국	
	총 경지면적	일반농법	친환경		총 경지면적 (천 ha)	친환경농법 (ha)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1994	600,000㎡	590,000㎡	10,000㎡	—	—	—
1995	600,000㎡	569,000㎡	31,000㎡	—	1,985,000	—
1996	600,000㎡	564,000㎡	36,000㎡	—	1,945,000	—
1997	600,000㎡	534,000㎡	66,000㎡	—	1,924,000	—
1998	600,000㎡	516,000㎡	84,000㎡	—	1,910,000	—
1999	600,000㎡	491,280㎡	108,720㎡	—	1,899,000	—
2000	687,000㎡	515,472㎡	171,528㎡		1,889,000	—
2001	687,000㎡	357,000㎡	330,000㎡		1,876,000	—
2002	687,000㎡	267,000㎡	420,000㎡		1,863,000	2,039(0.1%)
2003	687,000㎡	240,100㎡	446,000㎡	900㎡	1,846,000	22,238(1.2%)
2004	687,000㎡	213,200㎡	473,000㎡	800㎡	1,836,000	28,218(1.5%)
2005	687,000㎡	186,300㎡	500,000㎡	700㎡	1,824,000	49,807(2.7%)
2006	687,000㎡	159,400㎡	—	527,600㎡	1,800,000	74,995(4.2%)
2007	687,000㎡	132,500㎡	—	554,500㎡	1,782,000	122,882(6.9%)
2008	687,000㎡	105,600㎡	—	581,400㎡	1,759,000	174,107(9.9%)
2009	687,000㎡	78,700㎡	—	608,300㎡	1,737,000	201,688(11.6%)
2010	687,000㎡	51,800㎡	—	635,200㎡	1,517,000	194,006(11.3%)

※자료: 농림부(2010), 홍동면사무소(2012), 홍성 환경농업마을(2000) 참고

하지만 2008년 유행한 조류독감의 여파로 오리농법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현재는 오리농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당리 일부지역에 농촌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오리마당과 오리집이 존치되어 상징적인 의미는 남아있다(주형로 인터뷰에 근거). 과거 오리농법을 시행하던 농경지는 현재 또 다른 유기농재배기술인 우렁이농법으로 모두 전환되었다. 환경농업을 통한 수매가가 일반 벼보다 1.5~2배 이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당리 마을 소득도 1.5~2배 이상으로 주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할 것이라 예상

해볼 수 있다.³⁴⁾ 이 같은 환경농업을 통해 아침마루, 그 옛날 오리 쌀, 칠색미인 쌀 등 고품질 유기농 쌀 브랜드를 구축하였고 유기벼 뿐 아니라 유기채소, 유기축산까지 확장하였다. 이처럼 문당리 마을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농촌마을 만들기에 주목하고 있다. 그 밖에 주요 소득 발작물은 채소, 밀, 두류 등이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선순환을 위해 축산업도 하고 있다. 축산업은 1990년대 후반 IMF 여파와 축산가격의 불안정으로 축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 마을 도처에 대형 소 축장이 빈 공간으로 남은 상태로 있기도 하나 현재는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30명이 30동의 축사를 운영하며 가구당 평균적으로 20-30마리의 소를 보유하고 있다. 마을 내에 총 소의 수는 502마리이다.

[표Ⅲ-12] 문당리 마을 작목 현황

계 (ha)	논(ha)				밭(ha)				특수작물		과수
	계	일반 농업	오리 농업	우렁이 농업	계	채소	밀	두류	표고	생강	
106.6	68.7	4.2	-	64.5	37.4	31	0.4	6	-	-	0.5

※자료: 홍동면사무소(2012) 참고

문당리 마을의 지역산업은 과거부터 농업생산중심의 마을이었지만 마을리더에 의해 친환경 농업이 도입되었고 사회 변화로 UR협정이 타결되면서 환경친화적인 산업중심의 마을로 변모하였다. 또한 1994년부터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리농법이 확산되었고 친환경농사가 정착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우렁이 농법으로 전환, 지금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친환경 농사의 메카가 되었다. 여기에는 마을리더와 친환경 농업의 전파, 친환경을 지향하는 마을기본계획서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보인다. 작물도 일반작물에서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눈에 띄며 재배 작물수도 과거와 비교해 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34) 물론 단순히 수매가격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친환경 농업인 오리농법 등으로 생산할 경우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더 투입되어야 하며 기타 오리나 우렁이 구입비와 각종 시설투자비 등과 같은 추가 소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확한 경제적 이익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반농법에 비해 친환경농법이 소득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3) 조직 활동

문당리 마을은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조직을 구성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주관하며 지역을 결집시키는 형태를 보여 왔다. 1970년대 이전에는 일반적인 농촌마을에서 볼 수 있는 공동체 조직들로 구성되어있었으나 1970~1980년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이하 풀무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풀무신헌, 풀무농협, 풀무생협 등을 조직되어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활동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후반까지는 풀무생협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내면서 지금의 유기농 메카로써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9년 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고 마을 내·외 조직들의 관계망이 다시 짜여져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을 수립, 환경농업교육관 건립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도농교류를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에는 풀무학교에서 설립한 전공부가 갯골생태농업 연구소, 마실이 학교 등 새로운 방식의 지역과의 연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홍동농협 홍성친환경 작목회 등 지역순환농업을 주도하는 수많은 조직들이 지역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권승문, 2011).

[표Ⅲ-13] 문당리 마을 공동체 조직 연혁

구분	내용	상세 내용
1970년 이전	1957	· 홍성농업기술센터 설립 -
	1958	·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 설립 · 지역사회 활동가 양성
	1959	· 풀무학교 교내 구매부에서 · 협동조합 시작 · 학생 생협 및 무인구판장 개설 · 학교 내 공동구입과 운영의 터전 마련
	1960	· 풀무신헌협동조합 시범운영 · 풀무학교 내 조합
	1969	· 풀무생활협동조합 발족 · 풀무학교 내 조합, 이사장 홍순명 발족
		· 풀무신헌협동조합 발족 · 학교 졸업생, 교사, 이사장 주옥로 발족

[표Ⅲ-13] 계속

구분		내용	상세 내용
1970년	1970	· 홍동조합 발족	· 현 홍동농협, 14개 마을 이동조합 합병
	1970	· 문당리 마을 새마을지도자회 ·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결성	-
	1972	· 풀무신용협동조합 정식업무 시작	-
	1974	· 홍동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	· 현 홍동농협
	1974	· 홍동신문 발간	· 풀무학교 수업생 이병영, 첫 지역신문
	1976	· 문당리 마을 유기농업 시작	· 풀무학교 졸업생 정병진, 정규발 시작
	1977	· 무농약 재배 시작	· 풀무학교 졸업생 주형로
1980년	1980	· 풀무소비자협동조합 설립	· 학교교직원, 졸업생, 지역주민 31명 · 출자금 모아 면소재지 창립 · 수도권 지역과 농산물 직거래 운동 시작
	1982	· 풀무신협, 유기농업 작목반 결성	· 10명 결성, 운영비 지원받아 운영
	1983	· 풀무신협 건물 준공	· 홍동면소재지에 현재 건물 준공
		· 풀무소협 해체 및 재 창립	-
	1984	· 풀무소협, 강남 소협과 · 쌀 직거래 사업 시작	-
	1987	· 여성민우회와 풀무생협 직거래	· 풀무생협 농산물 전국으로 확산 판매 · 친환경 채소, 업체류
		· 풀무소비자협동조합 판매 중단 · 풀무생활협동조합으로 변경	· 서울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기며 변경 · 유기농산물만 전문 판매하는 생산자조합
1990년	1990	· 소협을 생산자협동조합으로 변경	· 풀무생협, 유기농 생산자 40~50명
		· 정농회 홍성지회 구성	· 회원확보 및 친환경농업 전파
		· 영농조합법인 설립	

[표Ⅲ-13] 계속

구분	내용	상세 내용
1990년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업생산자회 발족 · 풀무생협 35평, 35명 · 생산자조직으로 발돋움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무학교 교직원생활협동조합 창립 · 재생비누 생산 시작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당리 오리농법 최초 시작 · 주형로(9000평), 광민기(1000평), 이동준(1000평)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동면 오리농업작목반 구성 · 금평리, 운월리, 효하리, 금마면 등 · 19농가, 31,90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무학교에서 지역에 청둥오리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소비자 오리입식 자금접수 · 소비자 250여 가족이 200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일심 오리농기 행사 시작 · 소비자 500명 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농회 홍성지회 주최로 회원들 · 회원 20명, 미국 캘리포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업연수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무신협 홍동천변 경관조림 · 임직원들, 벚나무 묘목 구입 · 홍동천 양쪽 4.5km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농 쌀 판매 및 흑향미 계약재배 · 홍성오리농업단지 홍동 농협에서 · 수매제도 방식으로 판매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향미 수매 시 환경기금적립 · 가마당 2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오리농업단지 단체품질 인증 · 친환경 유기농산물 국가인증제 시작 ·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 확대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무소비자협동조합을 풀무생활협동조합 재 창립 · 풀무생협, 생협법 시행에 따라 재 창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 설립 · 21세기 문당리 발전 기본계획 수립 · 문당리 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오리농업단지 삼자계약재매 실시 · 오리농벼생산자, 홍동농협, 유통업체

[표Ⅲ-13] 계속

구분	내용	상세 내용
2000년	2000	· 특수법인 풀무생협으로 재 창립 · 1999년 생활협동조합법 시행 여파
	2001	· 풀무학교 환경농업과 전공부 설립 -
	2002	· 홍성친환경 쌀 작목연합회 발족 · 유기인증 430농가, 115만평
	2003	· 풀무 친환경 축산 위원회 결성 · 한우, 토종닭, 유정란, 요구르트 등
		· 풀무생협, 풀무햇살 유기농 전용 · 벼 건조보관센터 준공 · 대지 1500평, 건물 200평
		· 생산자 조직 분리 합의 · 홍성친환경 쌀 작목연합회 회원 증가
		· 풀무생협, 풀무 쌀 생산위원회 발족 · 8개 작목반, 200명
		· 농협, 홍성환경보전 쌀 작목회 발족 · 16개 작목반, 300명
		· 홍동 초, 홍동 중에 급식비 지원 · 홍성군 친환경 쌀 작목연합회, 1,084만원
		· (주)풀무사람들 시작 · 청정 닭 가공사업 시작
		· 풀무생협 산하 법인 · 풀무환경영농조합법인 설립 · 지역 순환형 농업지향 · 생산-가공-판매 시스템 구축
	2004	· 풀무생협, 유기축산, 한우출하 시작 · 풀무생협 작목반 25개 쌀 작목반, · 15개 채소작목반, 5개 축산 작목반
	2005	· 홍성 유기농영농조합 창립 · 45명
		· 영농조합법인 준공 · 풀무신협 부속
	2006	· 홍성 유기농, 직영정육매장 1호 개설 · 홍성축협 하나로 마트 친환경야채입점
		· 홍동농협, 홍성 환경보전 쌀 작목회를 홍성 친환경작목회로 변경 -
		· 풀무생협 매장 및 가공 건물 준공 -
	2007	· 풀무생협, 쌀 센터 준공 -
		· 벼건조 저장시설(RPC)준공 · 홍성 친환경 작목회 산하 홍동 친환경 쌀 영농조합법인
		· 홍성보육시설 유기농 쌀 급식 -
	2008	· 갯골생태농업연구소 준공, 운영 -
		· 문당리 정미소와 홍성 친환경 작목회 벼 건조 저장시설 통합, 확장 -
	2009	· 기계화 영농단 사업단 출범 · 홍성 백년대계클러스터사업단사업
		· 홍동농협, 전국 유기농 쌀 최초 수출 · 홍콩

※자료: 윤갑식(2006)과 주민 인터뷰, 문당리 마을연합을 바탕으로 재구성

현재 문당리 마을의 자치조직은 일반적인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외부 행정과 연계되어 있는 마을회의, 마을개발 위원회, 새마을 지도자회, 새마을 부녀회 등이 있으며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인 상여계와 대동계가 아직 남아있다.

마을개발위원회는 이장이 대표로 마을 전체 일에 대한 주요 결정사항을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같이 협의한다. 새마을 지도자회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마을의 잔일을 의논하고 관여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장은 마을 전체 일에 대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새마을지도자회의 지도자는 아이디어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 새마을 부녀회는 마을의 모든 기혼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조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년 수금하여 마을 행사나 일이 있을 시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마을 개발 및 대소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은 ‘환경농업시범마을 영농조합법인³⁵⁾’이다. 이 조직은 정부가 친환경 농업 장려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당리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농업 추진하는 것이 맞물리며 조직되었다. 외부의 각종 단체와 관계성을 맺으며 왕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환경농업뿐만 아니라 마을의 사회적 통합, 물리적 계획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생활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일체성이다. 전통적인 공동체로는 두레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상여 시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진 상여계와 마을계인 대동계가 남아있으며 옛날 농촌지역의 공동체적인 풍습이 다양한 형태로 아직 남아있다. 실제로 마을 주민은 오리망치기, 오리집 만들기 등의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오리농법과정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를 주민들이 서로 의논하고 협력함으로써 해결해왔다. 이러한 공동 작업은 마을주민들이 한자리에 만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 간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제고하고 있다(홍성 환경농업마을, 2000).

35) 문당리의 마을 운영 방식은 이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몇몇 공동체 조직으로 구성된 여느 농·산촌 마을과는 달리, ‘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주형로의 주도하에 1994년 4월에 설립되었는데, 법인 대표를 주축으로 유급제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과 영농분과, 축산분과, 교육관분과, 정미소분과, 찜질방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에 필요한 일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별로 맡은 일이 분담되는 구조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표III-14] 문당리 마을 공동체 조직 구성

구분	주체		조직		활동		
	조직명	담당자	조직원 (명)	조직원 구성	모임횟수 (1년)	주요 모임장소	비고
마을 조직	마을개발 위원회	임동안	9	주민	수시모임	환경농업 교육관	· 이장 의결기구 · 1반당 3명/ 총3반
	새마을 지도자회	이선재	57	주민	정기 6번	환경농업 교육관	· 군단위 모임, 행사 · 면단위 모임, 활동
	새마을 부녀회	권영분	55	주민	정기 2번	환경농업 교육관	· 면단위 모임, 활동 · 마을내 음식, 행사
	노인회	이재황	63	주민	정기 6번	노인회관	· 노인회관, 찜질방, 식당에서 활동
	청년회 (문우회)	이덕종	20	주민	정기 6번 수시모임	환경농업 교육관	· 마을단위 활동 · 천재지변, 어려움
	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류근철	51 (가구)	주민:48 외지:3	총회:1-2회 이사회:12회 분과모임:수시	환경농업 교육관	· 마을소득기관 · 개별가입 · 군단위 활동
	상여계	이규재	36	주민	상여시	장례식장	· 2개조로 운영
	대동계	이덕종	82	주민	겨울 1번	환경농업 교육관	· 총 3반 구성

※자료: 마을현지조사(2012)와 윤갑식(2006)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

그 밖에 마을과 관련된 지역내부조직은 흥동농협, 정농회, iCOOP 생활협동조합, 작목회, 풀무신용협동조합,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 등을 들 수 있다.

흥동농협은 1996년 문산 마을의 환경농업 생산자들과 단지계약을 맺고 선수금 방식으로 오리농 쌀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 결정방식은 흥동 농협 실무자의 마을 회의 참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선수금을 받기에 자금부족 문제가 해소되어 친환경 농업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다. 1999년 오리농쌀의 전량을 흥동농협에서 구매하여 4월 10일 전문 업체에 판매하는 협정식을 체결,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협에서 판매·유통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조영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흥성 정농회는 기독교 단체로서 1976년 1월 부천시 도당동에서 발족 후 매년 1월에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87년 이래로 유통기구인 정농 생협도 운영하고 있다. 정농회는 농민을 중심으로 유기농업 실천 교육과 전파를 담당해 오고 있다. iCOOP 생활협동조합은 2010년 이후 풀무생활협동조합³⁶⁾이 사라지면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풀무생활협동조합은 친환경 농업을 선도한 조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적은 1990년 시기 거의 유일하게 유기농업을 집단적으로 실행해 소규모 생협에 대한 독점적이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각 단위의 소비자 생협들이 물류를 통합하면서 생협 물류 연합체를 구성, 그 양상이 바뀌었다(권승문, 2011). 2010년에는 풀무 생협이 기능을 잃고 iCOOP 생활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유기농산물 직거래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풀무신용협동조합은 풀무학교 교직원과 학생 18명이 조합원이 되어 1974년 창립되었다. 유통 및 금융기능을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각종 지역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있다. 1995년에는 임직원들이 흥동천 양쪽에 벚나무 묘목을 직접 구입하여 식재함으로써 지역에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는 1958년 이래로 기독교 신앙과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데 주력하며 지역의 혁신인력들을 배출해왔다. 문당리 마을도 오리농업 생산자들 가운데 몇몇이 이 학교 졸업생이며 그들 모두 학교 이념에 따라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풀무학교를 졸업한 초창기 졸업생들은 지역의 각종 자치조직들, 특히 유기농업생산자회, 바른 식품, 밀사랑, 흥동한우, 갯골 어린이집, 시골 문화사, 지역 유물 전시관, 재생비누 협동조합, 흥성신문, 흥

36) 풀무생활협동조합은 흥성 YMCA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1986년 이래로 서울, 성남, 대전, 흥성 등 관련 YMCA와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했었다. 총 조합원은 1984년 설립 당시는 77명, 1997년 387명이었다. 1992년부터 유기농업생산자회를 조직하여 생산자간에 품목별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수요 과잉이나 생산 과잉 문제를 극복하고 공동수송에 의한 수송비, 인건비 절감 효과를 이루고자 하였다(흥성 환경농업마을, 2000).

주신문, 풀무신험 등 교육·생산·사회 전반에 걸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홍성 환경농업마을, 2000).

[표Ⅲ-15] 문당리 마을 지역 내부 조직 구성

구분	주체		조직		활동		
	조직명	담당자	조직원(명)	조직원 구성	모임횟수(1년)	주요 모임장소	비고
지역 내부 조직	홍동농협	주정표	46	주민90%	정기 1번	환경농업 교육관	· 마을 내 행사 · (10월 행사 주최)
	홍동 정농회	조영남	600	대다수 가입	-	환경농업 교육관	· 문당리와 상관無 · 군 단위 모임·행사 · 행사만 문당리 · (2번/1년)
	iCOOP 생활 협동조합	이동욱	120	대다수 가입	-	-	· 문당리와 상관無
	작목회	주형로	200	주민	4번	환경농업 교육관	· 문당리와 상관無 · 군 단위 모임, 행사
	풀무신험 협동조합	홍덕표	23명	풀무학교 졸업생 교사	6번	-	· 군 단위 모임, 행사 · 개별가입
	풀무농업 기술고등학교	오홍섭	18명 (현84명)	홍동면 및 전국 학생	-	풀무농업 기술고등학교	· 교사2명 (현30명) · 농업전공부 · 학생신험 운영

※자료: 마을현지조사(2012)와 윤갑식(2006)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

기타 마을과 관련된 지역 외부조직에는 홍성군청과 홍성 농업기술센터, 전국귀농본부 소속의 홍성귀농본부 등이 있다.

우선, 홍성군청은 문당리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시범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각종 정부시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오리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비를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홍성 농업기술센터는 오리농법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오리 및 관련시설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문당리 마을에 오리농법이 뿌리를 내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친환경 농업 교육, 외국 농촌마을과 교류 시 지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홍성귀농본부가 소속된 전국귀농본부는 1996년 창립한 민간단체로서 귀농학교 운영과 후원 활동을 통해 귀농자의 정착 활동을 지원 협력하고 있다. 귀농학교 운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풀무학교, 정농회와 연결되어 있다. 전국귀농본부는 1996년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전국본부가 운동과제로 채택하고 관련 단체들이 연대하여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98년 구제 금융으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의 대안으로 귀농이 이슈화되었고 96년 출범할 당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귀농학교로 몰려들었다. 계간으로 정기 간행물인 귀농통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 문당리에는 동곡마을 1가구와 원당마을 1가구가 귀농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홍성 환경농업마을, 2000; 홍동면사무소, 2012).

[표Ⅲ-16] 문당리 마을 지역 외부 조직 구성

구분	주체		조직		활동		
	조직명	담당자	조직원(명)	조직원 구성	모임횟수(1년)	주요 모임장소	비고
지역 외부 조직	홍성군청	김광태	14	공무원	-	-	· 마을 내 워크숍 · (2번/1년)
	홍성 농업기술센터	이승복	10	전문가	5번	-	-
	홍성귀농본부	손미승	549	귀농자	6번 (자체모임)	-	· 모임만 문당리 · 교육관 (4번/1년)

※자료: 마을현지조사(2012)와 윤갑식(2006)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

[표Ⅲ-17] 문당리 마을 공동체 조직 활동 및 역할

명 칭			활동내용	역할
마을개발위원회			· 마을의 주요결정사항 협의 조직	· 마을 행정업무처리 및 지원 · 마을의 긴급사항 처리
새마을지도자회			· 마을 잔일 의논 및 관여	· 마을개발위원회 도와 마을개발
새마을부녀회			· 마을의 애경사 담당	· 일정 금액으로 노인 목욕 · 마을행사 시 식사 제공 · 마을여성들의 모임 주관
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 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	· 마을의 소득창출, 소득사업 유치
상여계			· 장례 시 지원하며 상수도계와 함께 운영	· 장례 시 지원
대동계			· 마을자치회	· 명절시 행사나 모임 주관
산	홍 동 농 협	일반	· 농산물 판매 및 마케팅, 친환경 농업에 필 요한 자재 공급 · 정미소 도정의 미질향상을 위한 시설지원	· 농업자금 공급 및 조합원 관리 · 농업기술 및 자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도사업
		정농회	· 유기농업관련 기술정보 교환	
	풀 무 생 협	일반	·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 판매·유통 · 유기농업생산자회 조직 · 매출규모 신장(03':31억 원, 05':131억 원)	· 생산자중심의 생활협동조합으로 주변 대도시 및 수도권 직거래 (공동유통)
		작목회	· 농촌 소득 창출 및 공동생산 및 출하	
	풀무신협		· 공과금 수납 · 지역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벚나무 식재	· 농업자금공급 및 각종 지역사업
학 연	풀 무 학 교	일반	· 일본의 오리농법 견학 후 지역주민에게 기 술보급(서적 번역, 전문가 초청 특강) · 아시아오리농법대회 유치 및 관련업무 지원 (논문번역, 통역 등)	· 농업전문교육기관으로 우수인력배출 · 졸업생들 대다수가 지역 내 환경 농업관련 단체의 리더 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지역발전 선도
		농업 전공부	· 유기농업 전문가 초청 후 지역 주민 교육 · 지역주민이 강사역할 담당	· 졸업생들이 지역사회의 리더역할 (작목반, 생협)
	외부전문가		· 필요 시 외부 전문가와 적극적 교류 추진	· 지역발전 컨설팅 및 계획 수립
관	홍성군청		· 각종 사업 지원(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 · 오리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비 지원	· 각종 행·재정적 지원
	홍성농업 기술센터		· 친환경농업 교육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지원	· 각종 행·재정적 지원
기 타	홍성 귀농본부		· 귀농인 정착 지원	· 귀농인 행·재정적 지원

※자료: 홍성 환경농업마을(2000)과 윤갑식(2006)

마을 공동행사에는 풀무생협과 정농회 주관으로 환경 오리농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매년 도시소비자들이 자녀를 동반하고 마을을 방문하여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상호간의 협조전략을 위한 행사가 있었으나 현재는 오리입식 행사가 사라지고 가을걷이 나눔의 축제 행사만 열리고 있다.³⁷⁾

[표Ⅲ-18] 문당리 마을 행사

구분	행사주체	축제 내용	소비자 참여규모	생산자 참여규모	행사 종류
1995	정농회	도시민들 4,000마리 오리 구입해 생산지 농민들과 함께 방사	400여명의 도시민 참여	문당리를 비롯, 19농가 참여	6월 오리축제 10월 가을걷이 축제
1996	풀무생협과 정농회	도시 소비자들 청둥 오리 6,500마리를 농민들과 함께 방사	600여 명의 도시민 참여	문당리, 금당리 등 32농가 참여	오리방사축제 가을걷이축제
1997	정농회	일본, 베트남 농민과 홍동면 농민 오리농사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	외국 농민 50명 홍성군 생산자 약 200여명 참여	제2회 아시아 청둥오리벼농사 농민 교류회
1998	풀무생협과 풀무학교	오리입식행사와 생산지견학 중심	소비자단체회원 약 800여명 참여	홍동면 중심 생산자 45농가 참여	오리입식행사 오리 방사축제 메뚜기잡기행사
1999	풀무생협	오리입식행사와 생산지견학 중심	소비자단체회원 약 1,200여명 참여	문당리, 금당리 등 약 200여명 정도 농민 참여	오리입식행사 오리 방사축제 메뚜기잡기행사
2000 - 2008	풀무생협과 홍동농협	오리입식행사와 생산지견학 중심	소비자단체회원 환경단체 등 약 1,500여명 참여	문당리, 금당리 등 약 300명 정도 농민 참여	오리입식행사 오리 방사축제 메뚜기잡기행사

37) 오리입식행사는 1995년 6월부터 매해 6월 도농일심으로 가을 나눔의 행사와 함께 1년에 2번의 행사를 치러왔다. 하지만 2008년 조류독감이 유행함과 동시에 5월 중순 모내기 이후 6월 6일 오리입식행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변 의견을 모아 행사를 없앴다. 가을걷이 나눔의 축제는 1992년 10월부터 시작, 신종플루 유행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해 개최되었다. 마을주민이 80%이상 참여하여 행사를 지나는 지역축제이자 마을축제이다.

[표Ⅲ-18] 계속

구분	행사주체	축제 내용	소비자 참여규모	생산자 참여규모	행사 종류
2009	환경농업 교육관과 농협, 작목회, 문당권역, 풀무생협	문당리 일원 도시민과 홍성군민의 탈곡체험, 허수아비 만들기 등 체험행사	소비자단체회원 환경단체 등 약 1,500여명 참여	문당리, 금당리 등 약 300명 정도 농민 참여	10월 가을걷이 나눔의 축제
2010	환경농업 교육관과 농협, 작목회, 문당권역, 풀무생협	문당리 일원 도시민과 홍성군민의 탈곡체험, 허수아비 만들기 등 체험행사	소비자단체회원 환경단체 등 약 2,500여명 참여	문당리, 금당리 등 약 500명 정도 농민 참여	10월 가을걷이 나눔의 축제
2011 ~ 2012	환경농업 교육관과 농협, 작목회, 문당권역, 풀무생협	문당리 일원 도시민과 홍성군민의 탈곡체험, 허수아비 만들기 등 체험행사	소비자단체회원 환경단체 등 약 1,500여명 참여	문당리, 금당리 등 약 300명 정도 농민 참여	10월 가을걷이 나눔의 축제

※자료: 홍성 문당리 정보화센터 자료(2012)와 환경농업교육관 사무장 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2011) 자료 참고

문당리 마을의 공동체 조직 변천을 살펴보면 두레 조직을 제외하고는 크게 사라진 것이 없었으나 70년대 후반-80년대에는 공동체의 활동 빈도가 다소 줄었다. 하지만 90년대 풀무학교를 졸업한 마을리더가 오리농법을 마을에 도입하면서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 유통, 가공하기 위한 관련 조직들이 생성되었고 지역조직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마을 내부적으로는 생산기법에 대한 주민 간의 정보교류 활동이 증가하였다. 마을 내 직거래 행사들도 생겨 도시민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이처럼 문당리 마을은 마을리더의 노력과 지역적 범주에서 체계를 갖춘 친환경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주민의 자발적 활동을 유도해 상호협력적인 관계성을 맺으며 마을 공동체 조직들을 활성화시켰다고 보인다.

2. 물적 환경

1970년대 이전 문당리 마을은 전형적인 일반농촌마을의 하나로 낮은 오봉산 자락으로 둘러싸인 집촌형의 마을이었다. 다랭이논과 자연형의 농수로, 하천이 흘렀음은 항공사진에서 잘 보인다. 건물들은 자연에서 공수 가능한 볏짚, 목재, 흙을 이용한 전통식 가옥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우물과 빨래터, 사랑방들이 주민모임장소로 기능하였다.³⁸⁾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 마을은 물리적으로 격변하였다. 농로가 확장되었고 진입로도 확·포장되었으며 건물의 지붕이 초가지붕에서 슬레이트나 함석, 기와지붕으로 개량되었다. 마을에는 주민들의 집회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으로 마을 초입에 새마을회관이 설립되어 입구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다랭이논이 반듯하게 정리되면서 홍동천도 더불어 직강화되어 인공형 하천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농지개간은 농수로, 농로 등이 직선형으로 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하천변에 위치한 빨래터나 우물가를 훼손시켜 사라지게 만들었다. 마을 내 주택들도 개량 및 개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외부 화장실과 부엌이 사라지고 건물내부로 들어가는 등 서구식 주택 모습을 띄었다. 1990년대에는 농업생산에 관련한 시설들이 마을 전역에 급증했다. 기존 마을 입구 부에서 운영되던 전통적인 형태의 방앗간이 사라지고 친환경 유기쌀을 구분하고자 대형 RPC 공장이 마을에 들어섰으며 유통 후 남은 유기쌀의 재이용과 선순환을 위해 축사들이 생겨났다. 2000년대 들어서는 마을의 주요 인프라인 소득관련시설들이 대거 신축되었다. 최초로 환경농업교육관이 건립되었으며 그 이후 방문객 숙박을 위한 황토건강 체험실, 생태에너지 체험장 및 900평 규모의 자연정화처리 생태 체험장, 환경농업역사관 등 다양한 도시민을 위한 체험시설들과 문화시설들이 잇달아 신설되었다.

즉, 1970년대는 주택이나 마을길과 같은 마을기반시설이, 1980년에는 농경지 등의 농업생산공간이, 1990년에는 축사, 공장과 같은 농업생산 관련 시설들이, 2000년에는 외부인을 위한 체험 및 소득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

38) 마을주민 황강석, 김기돈 인터뷰 내용 참고.

4절. 소결

문당리 마을의 물적 변화는 농촌정비사업이 주된 원인이라 분석되나 사업으로 인한 공간 형태 변화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주민의 삶을 이해하여 공간과의 관계성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기 때문에 마을의 주된 내·외발적 변화요인과 양상을 검토하여 기본적인 문당리 마을의 변천과정을 이해하였다.

우선 마을의 변화요인 중 외발적 요인에는 정책내용을 포함하는 농촌정비사업과 사회 환경이 있었다. 1970년대는 하향식 사업개발형태의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전후 재건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마을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였다. 1980년대에는 인근 도시가 변화하면서 농촌과 소득격차가 발생, 도농격차를 줄이고자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지정리사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생활개선의 차원에서 불량주택도 개량하였다. 1990년대에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국가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주로 면단위 사업이라 문당리 마을이 받은 혜택은 적었다. 하지만 UR시장이 개방되면서 마을이 자체적으로 친환경 농법을 도입한 후 환경농업시범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혜택을 크게 받지 못한 과도기적 시기라 볼 수도 있겠지만 마을 내부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큰 시기였다. 2000년대는 다수의 상향식 사업이 실시되었다. 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해 경관을 개선하고 환경을 정비하였다. 이처럼 시기별 정부시책에 따른 사업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흐름을 함께하며 마을에 실시되었다.

내발적 요인에는 특징적으로 마을리더와 마을기본계획서, 친환경 농법, 주민협력문화가 있었다. 마을 리더는 1977년 유기농업을 처음 마을에 도입, 1994년 오리농법을 전파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친환경 농사를 확산시켰으며 마을의 기본계획서인 백년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환경농업교육관을 건립하였다. 여기서 마을기본계획서는 백년계획을 뜻하는 것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소속 양병이 교수의 도움으로 향후 백년간의 마을 계획을 수립, 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 이 덕분에 마을은 친환경 녹색 마을로써 일관되게 조성되고 있었

다. 친환경 농업은 UR 타결로 생태·건강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의 가치가 제고되어 마을의 중요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전 마을리더에 의해 도입된 친환경 농업은 사회 변화와 맞물려 마을의 1차 산업을 2,3차 산업으로 변화시켰다. 이에 마을이 활성화되면서 단순한 경작을 벗어난 식품·가공·판매 공간이 들어섰다. 또한 도·농 교류형 녹색 마을이라는 이미지가 구축되면서 마을 수익을 발생·증가시켰다. 주민협력문화도 중요 변수의 하나였다. 마을리더의 노력과 마을기본계획서, 친환경 산업의 확산은 주민의 협력문화가 바탕이 되어 발전할 수 있었다. 즉, 문당리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여 마을의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하였다.

[표Ⅲ-19] 문당리 마을 변화 요인 종합

변 화 요 인	외 발 적	농촌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이전: 전후 농업기반시설 정비 · 1970년대: 마을기반시설과 주거환경정비 · 1980년대: 생산량 증대를 위한 경지정비와 불량주택정비 · 1990년대: 생활환경 및 정주환경 정비 · 2000년대: 경관 및 어메니티 시설 정비
		사회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이전: 생활수준이 열악함 ·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 생활개선 요구 · 1980년대: 차량과 농기계보급, 도농격차발생 · 1990년대: UR 타결, 친환경에 관심 · 2000년대: 주5일제, 도시민 여가활동 왕성
	내 발 적	마을리더 마을기본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마을리더가 친환경 농업 도입 · 1990년대: 마을기본계획서 수립, 마을리더의 오리농법 전파 · 2000년대: 마을기본계획서 시행, 환경농업교육관과 영농조합법인 설립
		친환경농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이전: 일반농사 · 1990년대: 오리농법, 도농교류 시작 · 2000년대: 우렁이농법, 도농교류 왕성 및 수출 시작
		주민협력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사업 직접 유치, 자발적인 마을경관개선

이와 같은 내·외발적 요인들에 의해 문당리 마을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내용을 비물적·물적 환경의 변화 양상으로 살펴보았다. 비물적 환경은 인구구성, 지역산업, 조직 활동의 양상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인구는 인구수와 인구구성, 성별, 연령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그 특성은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풀무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및 귀농인, 외국인과 같은 新계층이 소수 유입되고 있었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고 비교적 노동인력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 때문에 같은 지역학교 출신의 리더 활동을 보다 수월하게 수용할 수 있었고 비교적 젊은 주민들이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결집될 수 있던 것으로 보였다.³⁹⁾ 마을의 지역산업은 과거부터 농업중심이었으나 사회 변화에 의해 농법은 지속적으로 변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는 일반 농사를 지었으나 1994년부터 오리 농법을 시행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우렁이 농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같은 친환경 농사 비율은 전국 통계와 비교해봤을 때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마을주민의 친환경 의식이나 참여도가 높아짐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마을의 조직 활동은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초창기 조직은 마을 내에서만 운영되는 생활형 공동체였으나 이후 생산을 위한 마을 내 조직들이 생겨났고 그 후에는 법인이라는 경제공동체가 등장하여 마을의 소득을 책임지는 공동체 조직과 생활 공동체가 구분되었다. 또한 법인은 지역 산업과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며 수도권과의 도농교류 활동, 마을홍보 및 소득창출을 위한 친환경 관련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⁴⁰⁾

39) 문당리 마을을 운영하는 실질적 주체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이는 환경농업만이 아니라 마을의 사회적 통합, 물리적 계획 등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영농조합법인은 1999년 4월 1일 설립된 조직으로 설립 당시 출범의 주역들은 1993년부터 오리농법과 흑향미 농사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처럼 마을 조성의 1세대로 이루어져 있어 보다 마을개발에 적극적이며 친환경농사에 관심이 높아 젊은 주민들과도 구애가 없는 결집력을 보여준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40) 마을은 2009년 방문객 1만 7천 6백 명 정도, 총매출 약 3억 원, 2010년 방문객은 2만 1천명, 총매출 2억 6천만 원, 2011년은 방문객 2만 3천 7백 명, 총 매출은 3억 3천만 원을 달성, 증가하는 관광시장을 위해 주로 2,3차 산업인 숙박 및 교육시설 이용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농산물 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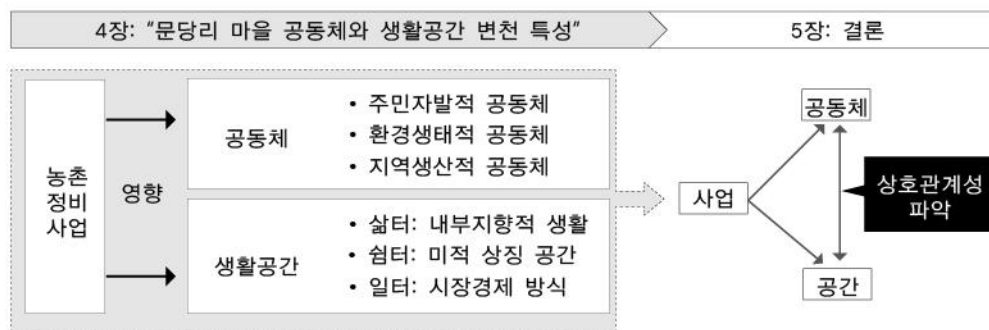
물적 환경은 초창기 마을의 기반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변해오다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생산 및 생활공간, 즉 농경지가 대대적으로 개간되었고 도시형 주택들이 등장했다. 이후에는 농촌의 가치를 인정받아 마을의 어메니티 자원들을 발굴하거나 소득관련시설을 신축·정비하고 있었다. 농촌의 공간변화에는 사회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주민 의식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으나 내적인 요인보다는 외적인 요인, 즉 개발압력과 외부사회의 충격에 의하여 변화한 것이 많다고 보인다. 농촌인의 의식구조나 생활의식이 변하고, 농업생산양식이 변한 것은 외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물리적인 구조를 바꾸는 기본적 요인에도 외부지원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금이 투자되고 직접적인 공간 변화를 일으킨 외적 요인인 농촌정비사업을 살펴보면 농촌공간변화와 농촌 주민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Ⅲ-20] 문당리 마을 변화 양상 종합

변 화 양 상	비 물 적	인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수 감소, 고령화 진행 · 타 지역에 비해 남성 수, 노동인력 수, 新계층비율이 높은 편
		지역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이후 친환경 산업이 정착 · 도농교류에 의해 2,3차 산업 시작
		조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이전: 전통적인 농촌생활조직 · 1970-80년대: 이장중심의 마을개발조직 생성, 지역조직 분화 · 1990-현재: 마을대표의 영농조합법인과 이장의 마을개발조직이 구분, 지역조직과 연계
	물 적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주택, 마을길과 같은 마을기반시설 · 1980년대: 농경지 · 1990년대: 축사, 공장 등 농업생산시설 · 2000년대: 어메니티자원과 소득기반시설

IV. 문당리 마을의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천 특성

4장에서는 앞장에서 조사된 현황을 바탕으로 농촌정비사업에 주목하여 사업으로 인한 문당리 마을의 공동체와 생활공간 변천 특성과 그 영향을 고찰하였다. 사업의 영향은 상호관계성의 분석체계로 파악할 수 있었다. 사업에 의해 마을환경과 주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온 것인지, 최종적으로는 농촌정비사업이 농촌의 삶과 공간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해석하였다.



[그림Ⅳ-1]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천 특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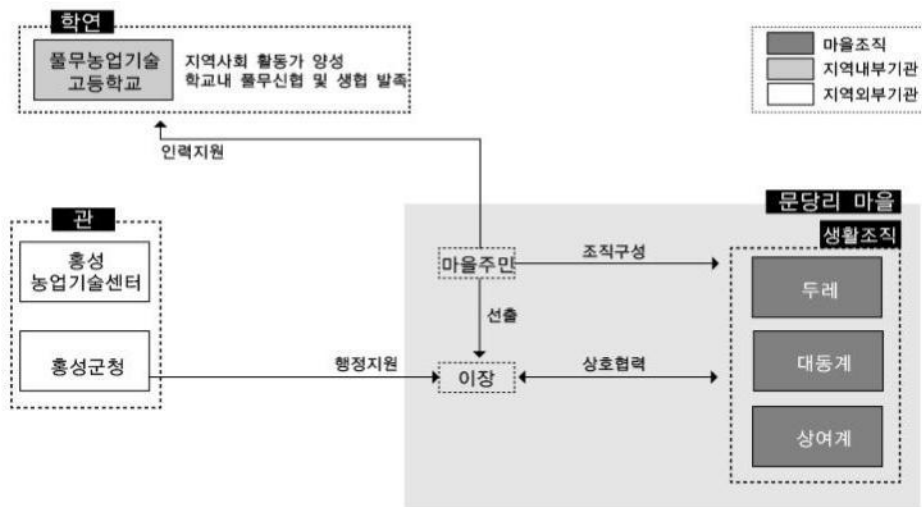
1절. 공동체 변천

문당리 마을은 농촌정비사업, 사회 환경, 마을리더와 마을기본계획서, 친환경 농업, 주민협력문화와 같은 내·외발적 요인들에 의해 물적, 비물적 환경이 변해왔고 이는 공동체와 생활공간 변천에 영향을 주었다. 우선 공동체 변천에 관한 상세내용과 심층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파악한 변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대별 공동체 변천

(1) 1970년대 이전

1970년대 이전부터 살펴보면 초창기 농촌 공동체의 모습으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의 주체와 조직,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조직은 두레, 대동계, 상여계가 있었으며 마을이장에 의해 마을 내에서만 운영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농업기반의 생산 공동체로서 자급자족의 체계였다. 주로 노동력 기반의 두레와 같은 공동행사가 일어났으며 연령이나 성별은 구분이 없었으나 노동인력이 주축이 되는 통합조직이었다. 주 활동은 공동타작, 공동 모내기 등이었으며 주 활동지는 농경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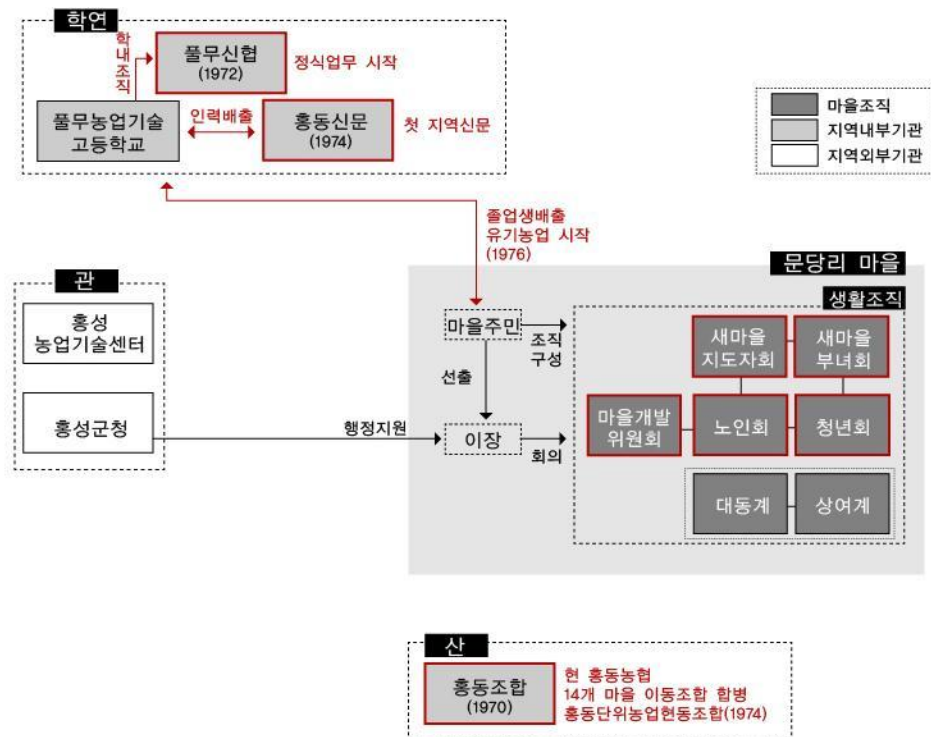
※자료: 문당리 역사관 연혁과 주민인터뷰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성

[그림Ⅳ-2] 1970년대 이전 문당리 마을 공동체

(2) 1970년대

1970년대는 지역 공동체의 기반조성기이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는 1970년대 이전과 동일한 문당리 마을의 주민들이었으나 풀무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소수 마을에 입

성하여 마을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경제성장위주의 사회 풍토 때문에 미미했다. 대신 이 시기는 마을 내 조직체계에 변화가 컸다. 마을의 핵심 인물이 이장이었음은 변함없었으나 이장의 의결조직으로 마을개발위원회가 생기고 새 마을운동에 의한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노인회가 분화, 생성되어 마을개발에 관한 담당 체계가 세분화되었다. 전통적인 마을조직이었던 대동계와 상여계가 사라지는 않았지만 기능을 달리하며 생활조직으로 분리되었으며 두레가 사라지게 되었다. 조직의 변화는 마을 내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농업생산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체 활동이 기계화가 진행되고 두레가 사라지면서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 영향으로 공동체성이 약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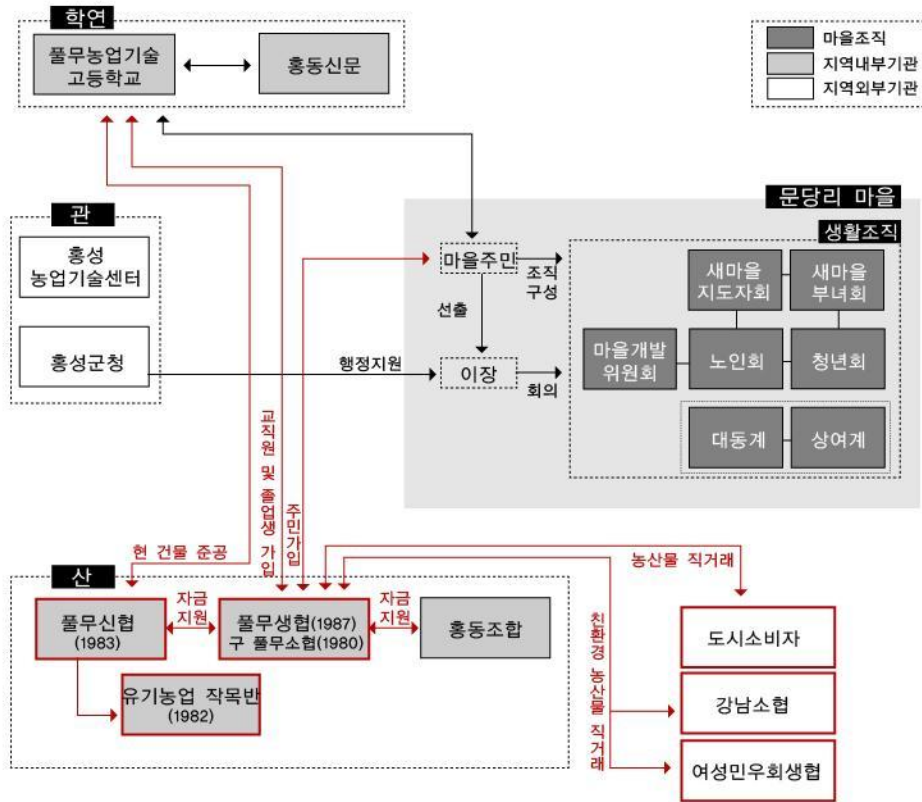
※자료: 문당리 역사관 연혁과 주민인터뷰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성

[그림Ⅳ-3] 1970년대 문당리 마을 공동체

마을 외에서는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를 기반으로 풀무신탁과 흥동신문이 생겼고 지역에 흥동조합(현 흥동농협)이 설립되었다. 주요 모임공간은 새마을회관이었으며 활동은 생성된 지역조직과 관계성을 맺지는 못하고 문당리 마을에 국한되어 있었다.

(3) 1980년대

1980년대는 주로 마을외부조직들이 생성·분화되며 지역생산체계를 잡아가는 시기이다. 특히 풀무학교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지역의 산업발전기관들에서 일하면서 조직 간의 유대를 발생시켜 보다 긴밀한 지역체계를 확립시켰다. 이 시기 풀무신탁은 유기농업 작목반을 결성하여 친환경 농사에 관한 지역적 범주의 생산유통체계를 조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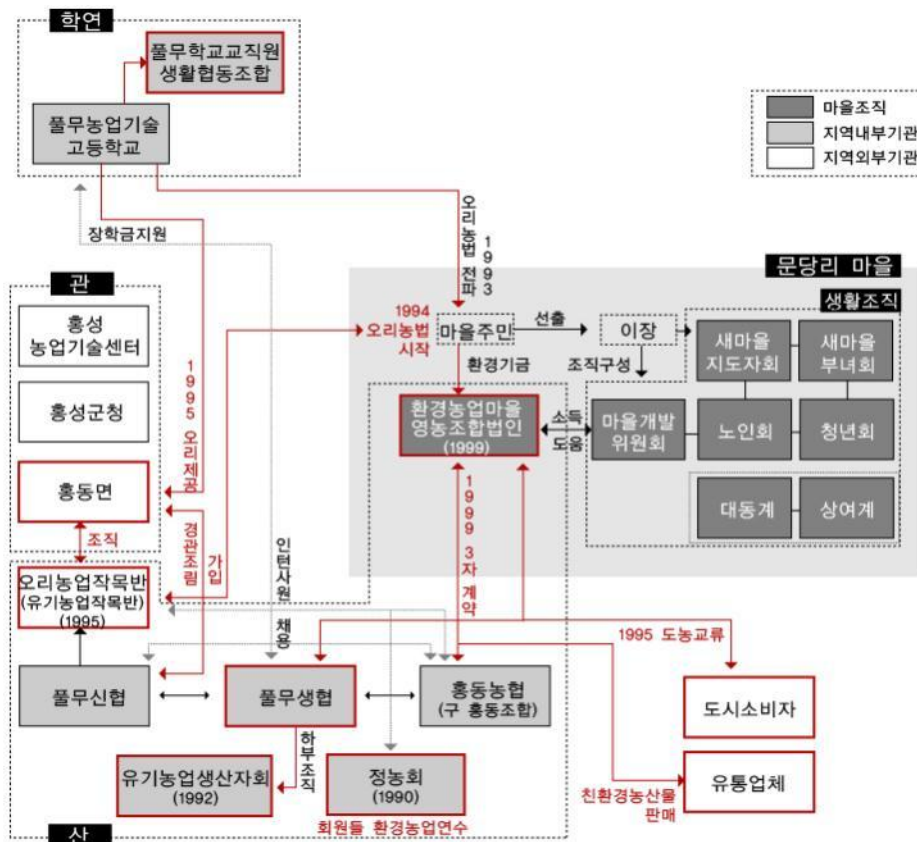


※자료: 문당리 역사관 연혁과 주민인터뷰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성

[그림Ⅳ-4] 1980년대 문당리 마을 공동체

(4) 1990년대

1990년대는 마을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생성되는 시기이다. 마을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주체, 조직, 활동이 대대적으로 변했다. 주체는 이장 외에 풀무학교 출신의 마을리더가 등장하였다. 그는 지역의 혁신주체가 되어 친환경농법을 마을에 전파하였는데 이는 붕괴되어가던 마을 주민들의 공동협력문화를 부활시켜 주민공동체를 다시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 다만 과거 농업생산 공동체가 아닌 소득중심의 경제공동체의 성격으로 변모시켰다. 혁신주체와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마을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 바로 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세워 지역의 풀무기관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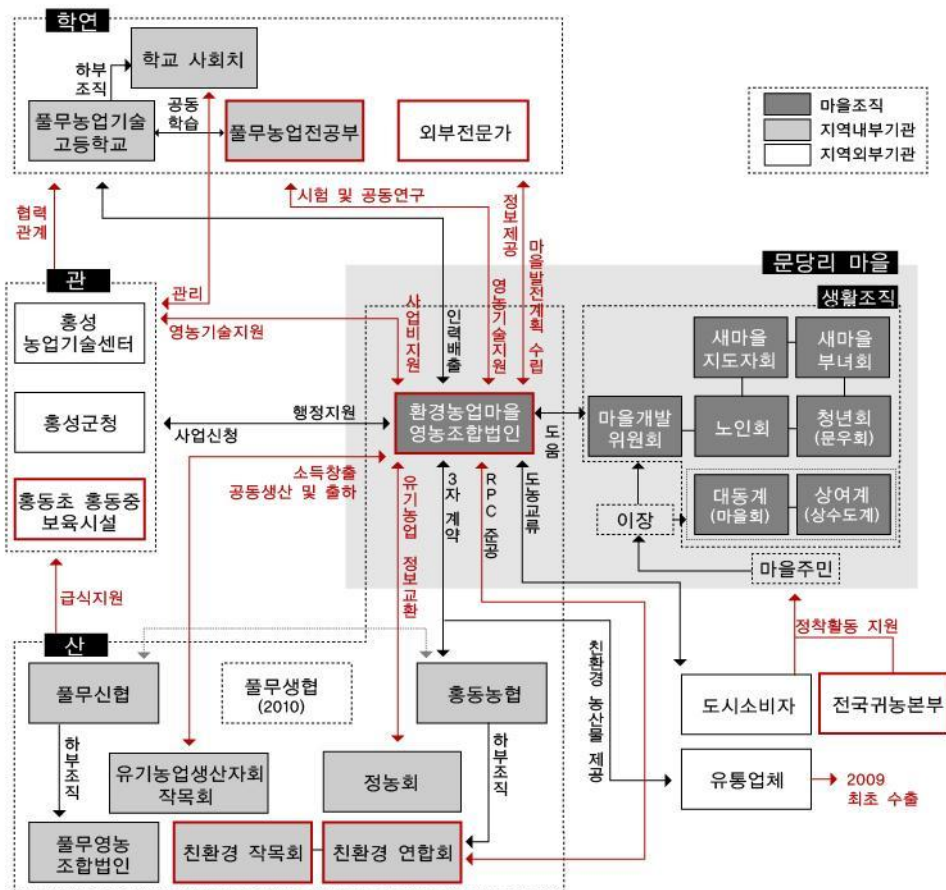


※자료: 문당리 역사관 연혁과 주민인터뷰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성

[그림Ⅳ-5] 1990년대 문당리 마을 공동체

공동체는 활동적인 측면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농법이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되면서 오리농법 행사가 열렸고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마을은 지역조직과 소득을 위한 3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증가시켰고 도농교류기반을 마련하였다.

(5) 2000년대



※자료: 문당리 역사관 연혁과 주민인터뷰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성

[그림Ⅳ-6] 2000년대 문당리 마을 공동체

2000년대에서 현재까지는 마을공동체의 본격추진기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개발 활동 및 공간 생성 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다수의 상향식 국가사업을 유치하여 지역소득창출과 마을개발에 힘쓰고 있다. 마을 내 조직은 생활조직과 생산조직이 완전히 분화되었다. 생산조직인 영농조합법인이 새롭게 지역과 마을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생활조직은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됐다. 활동측면에서는 지역 생산품이 브랜드화 되어 수도권 및 전 세계로 유통되면서 지역의 도농교류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지역 내 친환경 산업도 확산되었다.

(6) 종합

문당리 마을공동체는 1970년대 이전 초창기 전형적인 농촌 공동체의 모습에서 1970년대 마을공동체 기반조성기, 1980년대 지역공동체 기반조성기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렀다. 1990년대는 마을공동체의 본격생성기였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 마을공동체는 본격추진기에 접어들었다. 왕성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문당리는 공동체의 주체, 조직, 활동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주민들이 직접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유치해가며 소득기반시설들을 만들고 있으며 풀무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이점을 살려 지역단위로 생산체계를 뚫어나가 현재는 전국과 연계망을 맺고 유통하고 있다. 또한 이제는 마을주민만이 아니라 외부인을 고려한 친환경 및 도농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의 시기별 특징과 사업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당리 마을의 공동체는 농촌정비사업과 상호보완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향식 사업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던 1970년 새마을운동을 필두로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등이 조직되었다. 또한 이장의 의결기구로서 마을개발위원회도 생겼다. 이 조직들은 1980년대까지 마을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 동원되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마을의 국가적 지원이 줄어들자 활동이 자연스레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문당리 마을은 자체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마을리더가 전파한 친환

경 농업이 확산되면서 지역산업을 바탕으로 사라져가던 주민공동체가 다시 결집된 것이다. 이는 상향식 사업들로 전환되어가는 2000년대 사업들의 특성과 부합하며 마을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1970-80년 농촌정비사업은 직접적인 조직결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1980년대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조직의 활동을 해체시켰고 2000년에 들어와서는 사업형식이 상향식으로 변화하여 공동체와 상호관계를 맺으며 시행되고 있었다.

2. 공동체 변천 특성

이 같은 사업의 시기적 연관성 외에 내용적인 면에서도 공동체가 변해가는 특성은 농촌정비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그 관련성은 2000년대 나타나는 공동체 특성인 소득중심의 주민 자발적 공동체, 외부인을 위한 환경 생태적 공동체, 풀무기관중심의 지역 생산적 공동체 특성으로 설명된다.

(1) 소득중심의 주민 자발적 공동체: 혁신주체의 노력과 주민참여

문당리 마을공동체의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그 수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계층으로서 풀무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마을에 유입되며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젊은 노동 인구수가 높게 분포한다는 특징이 있다.

70년대 이전 생산과 생활의 터전으로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마을은 77년 풀무학교 출신의 마을리더에 의해 친환경 농사를 처음 시작하였다. 소득과 생산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마을리더 홀로 친환경 농사를 지었으나 90년대 UR 협상이 타결되면서 사회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당시 마을리더가 재배한 흑미쌀의 가격이 일반쌀보다 4배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면서 마을주민들도 친환경 농사에 관심을 가졌다. 재배방식과 품종에 대한 정보교류를 하며 마을 리더는 마을주민들에게 친환경 오리농법을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이에 점차 사라지고 있었던 공동 활동의 주민 공동체가 다시 생성·부흥하였다. 또한 1999년 농협과 생산자,

유통업체간의 3자 계약체결로 가격을 미리 책정하면서 친환경 농사에 대한 믿음이 커져 마을 주민들이 더욱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친환경농사를 선도하던 마을 리더는 영농조합법인을 마을에 만들어 상향식 개발형태로 변해가던 정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으며 생산과 소득에 관련된 지역기관들과 관계를 맺고 마을의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높은 수익금이 생기면서 주민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환경 자조금을 모아 환경농업교육관을 건설할 부지를 매입하고 마을 식재에 기금을 사용하였으며 교육관 및 체험시설을 만들 때 공동 참여하여 마을시설을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이처럼 마을 공동체를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장 중심의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 공동체에서 새로운 계층인 풀무학교 사람들이 유입되고 시장경쟁 체제로 변모하였으며, 마을에 분포한 비교적 젊은 노동력은 혁신주체에 의한 소득 중심의 공동체로 변모함에 있어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결성된 문당리 주민의 자발적 공동체는 2000년대 변한 사업 방식, 즉 상향식 사업과 적절하게 부합했다. 2000년대 사업들은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신청하여 판단 후 지원해주는 양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만의 특성을 살리고 어메니티를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는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사업유치가 어렵다는 말을 역설한다. 하지만 문당리 마을의 경우에는 주민공동체가 집결되고 활성화되어 마을개발에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받아 발전할 수 있었다.

(2) 외부인을 위한 환경 생태적 공동체: 친환경 및 도농교류의 생태공동체성 부여

문당리 마을 내 공동체는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음과 같다.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도농관련 활동이 증가하고 지역산업과 관련되어 친환경 활동도 생성되었으며 외부 전문가와 관련되어 마을의 환경 개선 및 생태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주민 의지가 반영된 활동들이 왕성해졌다.

1970년대 이전 농업생산과 관련되어 공동생산을 돕는 두레는 노동을 기반으로 하여 모내기, 타작 등 경작 전반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 활동에는 추수 후에 마을의 공동잔치를 하여 공동작업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있다. 또한 마을회로서 명절 때면 주민모임을 주체하는 대동계 활동과 마을에 상여가 발생하면 상여집에서 운영되던 상여계가 있었다. 1970-80년대에 들어서는 새마을운동의 여파로 마을 내 조직들이 재구성되었다. 주체가 되는 이장은 같았으나 대동계와 상여계는 별도 조직으로 차츰 분리되어 활동이 약화되었고 두레는 사라졌다. 당시 기계가 농촌에 보급되고 마을종교 변화로 상여집 등이 사라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마을에는 연령별, 성별로 조직구성원이 구분되어 새마을지도사회, 새마을부녀회, 마을개발위원회, 청년회, 노인회가 생겨났다. 또한 마을의 공동모임보다는 집단의 성격, 특성으로 조직되어 활동이 일어났다. 1990년대에는 친환경 농사가 마을에 도입, 전파되면서 주민 공동의 협력활동이 다시금 부활했다. 6월에 오리 축제와 10월의 가을걷이 축제를 하였는데 주민이 생산자로 참여하였지만 수도권과 지역등지의 외부인 또한 활동에 참여하여 그 규모와 주체 측면에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8년을 기점으로 가을걷이 축제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조류독감의 여파로 오리농법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규모는 더욱 커져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주민을 위한 자치 공동체 행사에서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및 도농교류와 소비자를 위주로 하는 행사로 변모하였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산업이 행사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확인되었으며 연령이나 성별에 구분 없이 화합하던 활동조직이 1990년대 이후에는 특정인 및 외부인을 위한 행사로 변모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환경생태를 필두로 하는 지역성의 변화는 사업의 내용과 일치하여 더 많은 사업지원 혜택의 배경이 됐다. 도시민의 주5일 근무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농촌으로 이어졌고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등 도농교류, 생태환경 및 경관 등을 주요 키워드로 사업이 계획되었다. 이러한 외부 요인과 결합하여 사업의 대상으로서 문당리 마을은 걱정했다고 추정된다.

문당리는 이미 1990년대 친환경농법을 도입하면서 2000년대 친환경을 마을 이미지로 육성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사업 시행 전, 외부전문가를 통한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으로 마을개발의 기본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환경농업마을로서 입지를 굳혔다. 이 기본계획서는 마을을 개발하는 지침서로서 상향식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성 퇴색을 방지하고 개발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 풀무기관중심의 지역 생산적 공동체: 지역생산조직과 상호작용 활발

문당리 마을의 공동체 조직은 전술한 마을리더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친환경농법 관련 조직들이 생성되고 풀무학교 및 풀무관련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발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1970년대 이전 마을과 지역은 구분되어 있었다. 1958년 이 지역에는 풀무농업기술 고등학교가 생성되어 마을주민 중 일부가 교육을 받았으나 그 밖에 별다른 연고는 없었다. 마을은 자체적으로 이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생활조직 체계, 즉 두레와 대동계, 상여계 등에 의해 운영되었다. 1970-80년대에 들어서 마을에는 풀무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유입되어 유기농업을 시작하였으나 당시 사회적 풍토상 지역이나 마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홍성군은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풀무학교를 통해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었고 이들이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 1970년 홍동조합, 1972년 풀무신헌, 1974년 홍동신문, 1980년 풀무소협, 1987년 풀무생협까지 지역의 유기적인 조직은 학교를 기반으로 이 무렵에 형성되었다. 풀무학교는 ‘지역이 학교이고, 학교가 지역이다’라는 교육관 아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친환경적인 생산 및 생활 공동체를 교육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통하여 작게는 학생들이 지역동력 기관들에서 일하게 되면서 홍성지역 전체의 공동체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넓게는 지역 통합의 기반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풀무학교 출신의 마을리더가 마을에서 오리농법을 시작하였고 주민의식 변화와 참여로 지역에 구성된 다양한 생산조직들과 마을이 관련을 맺기

시작했다. 유기농업생산자회, 오리농업작목반 등에 마을주민들이 가입하였고 홍동농협과 친환경농업 생산자들, 유통업체가 3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친환경농산물 판매가 활기를 띄었다. 1995년부터는 풀무생협을 주체로 도농교류가 시작되었으며 문당리는 도시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농업 구조는 전형적인 소농 구조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알려져 있는 만큼 지역에 조직화된 생산자 조직이 있다는 것은 큰 이점이라 할 수 있다. 1999년에 마을 내 영농조합법인이 들어서고 2000년대 들어서 군청과 행정지원을 다수 받았다. 기존 조직들도 더욱 분화되었으며 마을은 홍동농협, 풀무신협, iCOOP 생협 외에도 친환경 작목회, 외부전문가 등과도 관계를 맺게 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는 지역과 관계성이 강해지고 마을의 입지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지역발전의 주체로 변모하였다. 홍동초등학교, 홍동중학교 및 보육시설에 유기농급식을 지원하며 교육 및 영농기술을 전수하고, 지역 학생들은 마을 방문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 순환 고리를 형성하였다. 또한 지역 브랜드를 활성화하여 전국으로 연계망을 확장하게 되었다.

문당리 마을공동체 조직은 단독적으로 운영되던 생활중심의 마을자치공동체에서 복합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생산과 소득공동체로 분화된 조직적 특성을 보인다. 마을단위의 생산체계가 지역단위로 뻗어나감과 동시에 현재는 수도권을 넘어 전 세계로 브랜드화 된 유통체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마을 특징은 농촌정비사업과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하며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작용하였다.

2000년 사업들은 도농격차를 줄이며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농촌마을이 생산기반시설 없이 소득을 창출하기란 어렵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문당리 마을의 경우 지역에 풀무학교를 주축으로 움직이는 생산 공동체가 존재하며 사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1990년대 이미 마을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했기 때문에 2000년대 사업들도 투자가 가능했다.

3.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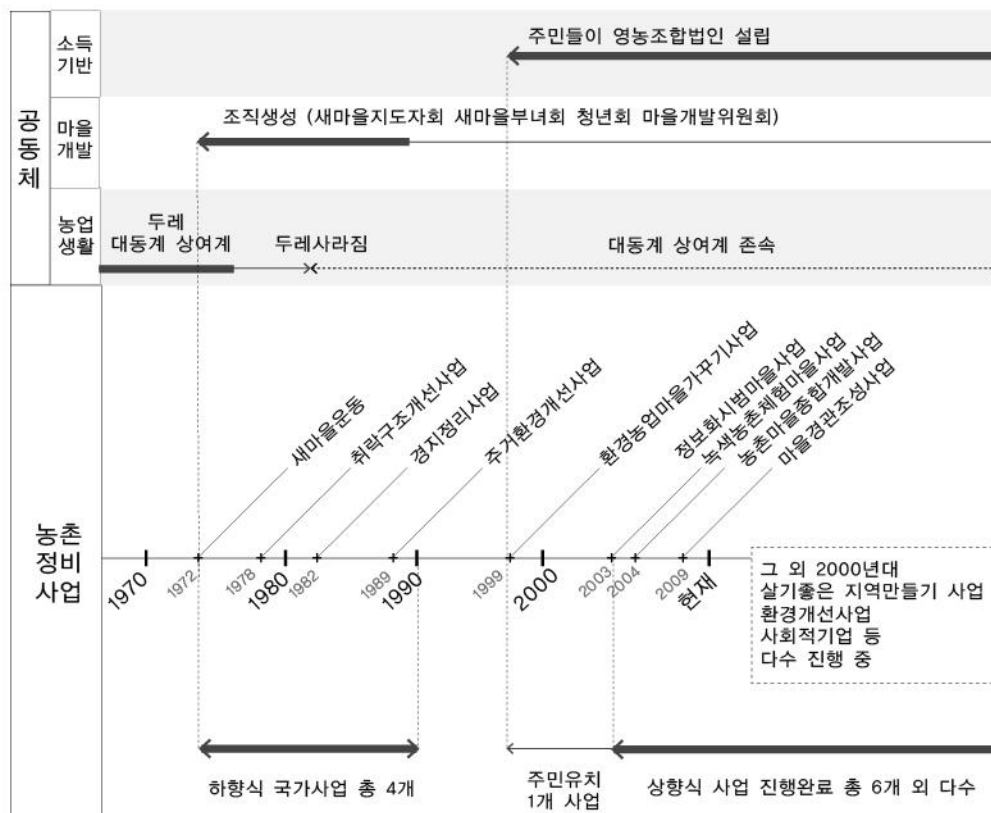
문당리 마을 공동체의 변천은 시기적, 내용적으로 그 특징을 구분하여 농촌정비사업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시기적 변천은 총 4단계로 1970년대 이전 초창기 전형적인 농촌 공동체에서 1970년대 마을공동체 기반조성기, 1980년대 지역공동체 기반조성기를 거쳐 1990년대 마을공동체 본격생성기, 2000년대 마을공동체 본격추진기로 구분되며 이러한 흐름은 농촌정비사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마을 내·외적 공동체 활동을 시기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1970-80년대에 마을 내 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여파로 다량의 조직들이 생겨나긴 했으나 생활관련 공동체 활동은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을 기점으로 급변하며 마을 내에 공동체 활동이 소득기반으로 형성한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2000년까지 활성화되었다. 마을 외 조직은 1970-80년에 조직분화가 왕성하였으며 기관들이 풀무학교기관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문당리 마을이 1990년 본격적인 생산 활동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내용적으로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역시 사업과 관계성이 농후하였다. 첫 번째는 1990년을 기점으로 풀무학교 출신의 혁신주체가 있었으며 그의 노력으로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생성되었고 소득중심의 주민경제 공동체가 결집하여 발전한 것이다. 이는 2000년에 들어 환경농업교육관 신축, 마을입구에 식재하는 활동에서 잘 나타난다. 왕성한 주민참여는 상향식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친환경 농업과 도농교류 활동으로 마을이 특화되고 있으며 외부인을 위한 환경생태마을의 공동체성을 굳혀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을은 1994년 친환경산업을 2000년 환경농업마을로서 기본계획의 지침이 되는 백년계획서를 만들었다. 이는 친환경의 관심이 증대되는 2000년대 시기적 상황과도 부합하며 마을 특색을 일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녹색농촌을 표방하는 다양한 사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세 번째 특징은 풀무학교라는 지역의 교육기관을 매개로 지역생산조직들이 구

성되었으며 관련기관들이 상호작용하여 지역생산 공동체가 발달했다는 점이다. 지역의 공통성이 있었으며 마을과도 혁신주체로서 연결고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연관 맺을 수 있었다. 이것도 소득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유치의 배경이 되었다. 지역 생산 공동체로서 마을의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당리 공동체는 친환경, 교육 등으로 함축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마을의 성격으로 받아들여 변천해왔으며 그 내용은 사회적 관심사와도 부합되었다. 또한 환경 및 경관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농촌정비사업 지향점과도 같았기 때문에 시너지 작용을 하며 소득 창출의 촉매제가 되었다.



[그림Ⅳ-7]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의 관계성

2절. 생활공간 변천

본 절은 문당리 마을의 변화 요인과 양상에서 종합적으로 현황 조사된 내용을 통해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생활공간 변화 요소와 변천 특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한 부분이다. 생활공간은 삶터, 쉼터, 일터로 구분하여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1. 시대별 생활공간 변천

(1) 1970년대 이전

1970년대 이전의 삶터는 외부공간과 주거 공간 간의 경계 구분이 모호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인 의식주의 생활공간은 주택이었다. 주택은 목재와 흙을 사용하여 건축한 가옥들로 단열형의 홑집 구조였고 초가지붕을 한 전통적인 주거형태를 띄고 있다. 주거지와 농경지를 잇는 마을안길은 자갈길이거나 흙길로 우마차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폭이라 생활에 불편함을 주었다. 주로 마을사람들은 여름철에는 우물터나 느티나무 정자목 주변에 모여서 일상의 소소함을 나누고 겨울철이면 사랑채가 있던 마을 내 큰 집들에서 모임을 가지며 이웃과 소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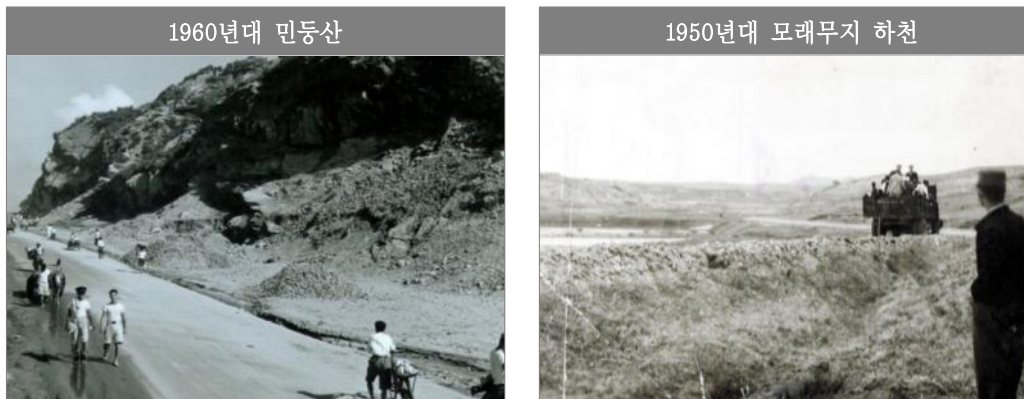
“...정자가 있었는데 교육관 넘어가기 전에 샘이 있는 곳에 정자나무가 크게 있었는데. 여름이면 단오날이면, 그네도 매고 그네도 뛰고 막 했지. 모이는 건 여름에는 정자나무 이런 데에 모여 있고, 대부분 나무 밑에 모여 있고, 이제 겨울이면 사랑방. 그때는 사랑방에 마실을 다녔지. 서로가 얘기 나누고 농사 얘기도 하고, 옛날에 살아왔던 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농사짓는 법도 알려주고, 지금은 각자 집에 TV가 있기 때문에 마실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지. 완전히 없어져 버렸지...”

황강석, 개인면담, 자택, 2012년 10월 9일

쉼터는 따로 조성된 공간이 있었다기보다는 산과 하천이 주민의 휴식처였다. 하지만

산림은 땔감사용과 주택 신축 및 개축 시 수목을 벌채하여 공수했기 때문에 인근산은 민둥산이었고 하천은 마을길 포장에 자갈을 사용했기에 모래무지 냇가였다. 따라서 주민의 휴식처이기도 했지만 생활의 기능을 담는 생활밀착형의 공간으로도 볼 수 있다. [표Ⅳ-1]의 사진은 비슷한 시기 홍동천 일대 모습이다. 정확한 대상지의 사진을 찾을 수 없었지만 인근 지역의 모습에서 산과 하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단편적으로나마 유추해볼 수 있다.

[표Ⅳ-1] 1970년 이전 문당리 일대 산과 하천 모습



※자료: <http://blog.ohmynews.com/jeongwh59> (좌)
<http://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94> (우)

일터의 중심은 농경지와 주택 앞마당이었다. 우선 농경지는 자연형의 다랭이논의 형태를 이었고 논 주변으로 도랑형의 농수로가 있었다. 경작의 과정 중 저장, 가공, 탈곡 등의 활동은 주택 앞마당에서 일어났다. 농지정리사업과 농기계 보급 전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농촌지역이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논도 전부 다랭이 다랭이 있었고, 수로같은 것도 파고, 쟁기질해서 서로 갈아서 농사짓고, 다랭이 골짜기란 전부 손으로 파. 논도 파기도 하고, 손으로 심었지...(중략)...”

김기돈, 개인면담, 자택, 2012년 9월 27일

(2) 1970년대

“...70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참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졌지. 뭐 그때 당시에 마을 안길, 농로 포장, 지붕개량, 그때 지붕개량은 주로 슬레이트, 함석, 기와. 그때 내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서 66년도에 제대했나? 제대하고 나서 71년도인데 기와공장을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기와 만드는 사업, 지붕개량, 기와집도 막 해주고, 그때가 한참 새마을 사업이 이제 막 붐 이룰 때야, 70년도...(중략)...”

황강석, 개인면담, 자택, 2012년 10월 9일

1970년대는 하향식 기반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던 시기였다. 특히 1970년대 농촌마을의 환경을 바꾼 핵심사업인 새마을운동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영향이 컸다. 당시 농경지와 하천은 아직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아 다랭이논과 자연형 수로의 모습이 남아있었으며 마을의 주거공간은 이 사업들에 의해 크게 변화하였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기반시설과 환경을 개선했던 국가차원의 대대적 사업으로 1972년 시작되었고 그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979년경까지 실행되었다. 주 사업 내용은 농로확장, 지붕개량, 하천보수, 안길 확포장 등이었는데 문당리 마을의 1977년 항공사진을 보면 전술한 변화사항이 확인되며 주민인터뷰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아 문당리 마을에 대한 새마을운동의 영향 규모를 유추해볼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우마차 폭 정도의 흙길이었던 비포장 진입로와 마을 안길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고 전통식 흙담들을 콘크리트 담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입구 부분에 새마을회관을 건설하고, 주택지붕을 함석 및 슬레이트, 기와를 이용하여 개량하는 등 삶터공간을 급변시켰다. 이 사업은 마을구조 및 기능에도 영향을 미쳤다. 새마을운동의 여파로 마을 입구에 새마을회관이 건설되어 단독 건물들이 인근에 생기며 마을의 입구성 및 중심성이 생겼다. 마을의 중요 모임이나 행사를 회관이 담당하면서 집회기능이 정자목이나 사랑채에서 회관으로 이동하였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영향도 컸다. 주택개

량 및 개축이 왕성해져 마을의 전체 건물수가 늘어나고 대형화되었다. 주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 안길 포장도 확장되었고 이는 생활에 편의를 가져다주었다. 개별적으로 분산된 건물들이 길을 따라 선형으로 입지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표Ⅳ-2]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문당리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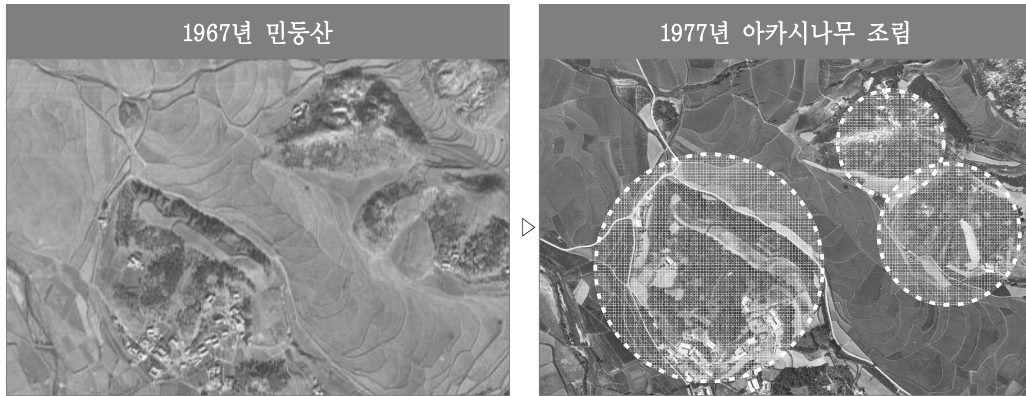
※자료: <http://theme.archives.go.kr> (좌), 직접촬영 (우)

당시 사업들이 정부주도 하에 하향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상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들이 발생했는데 특히 쉼터공간에서 그 영향력이 컸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시기 사업의 일부로 마을 오봉산 일대에 아까시나무를 조림했지만 난방은 여전히 땔감을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산림법 단속까지 엄격해져 민둥산이었던 산의 경관은 점차 바뀌었으나 생활적 측면에서 기능이 충돌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 나무는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심었지, 아까시나무로. 저 산은 빨갛어. 녹색은 구경도 못했어. 그때는 나무를 못 베었어 산림법이 무서워서. 그제 낮에는 산림법 때문에 밤이 되면 잔디 갈퀴로 긁어다 놓고 나무를 땀어. 얼어죽은 사람도 있어... (중략)...”

김기돈, 개인면담, 자택, 2012년 9월 27일

[표Ⅳ-3] 1970년대 새마을운동 전후 산림 변화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1967년 항공사진(좌), 1977년 항공사진(우)

일터는 물리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1977년 마을리더가 미꾸라지를 이용한 유기농업을 새마을회관 전면부에서 시작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친환경 농법을 처음으로 인지시켰다. 또한 사업적 영향으로 농수로, 농로들이 확·포장되어 농업생산이 한결 수월해졌다. 기타 주민인터뷰 내용과 사업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Ⅳ-4]과 같다.

[표Ⅳ-4] 1970년대 사업 전후 생활공간 변화

사업명	공간유형	사업 이전 생활공간	사업 이후 생활공간
새마을운동	삶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가집, 나래지붕 · 흙길, 자갈길로 보행 불편 · 겨울은 사랑채, 여름에는 정자목 · 우물터, 빨래터에서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석, 슬레이트 기와지붕 생성 · 콘크리트 포장으로 보행 편리 · 새마을회관이 모임기능 담당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땔감 사용으로 민동산 · 모래무지 냇가에서 빨래,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에 아까시나무 숲 생성 · 불법적인 벌목행위가 성행
	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랭이논, 자연형 수로 · 흙길의 농로로 폭이 좁았음 · 생산공간이 주택 내에 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로 정비 · 농로확장으로 우마차 이용 편리
취락구조 개선사업	삶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가집 건물 노후화 · 주택환경 열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석, 슬레이트 기와지붕 확산 · 콘크리트 담장 생김 · 건물 수 증가 및 규모 대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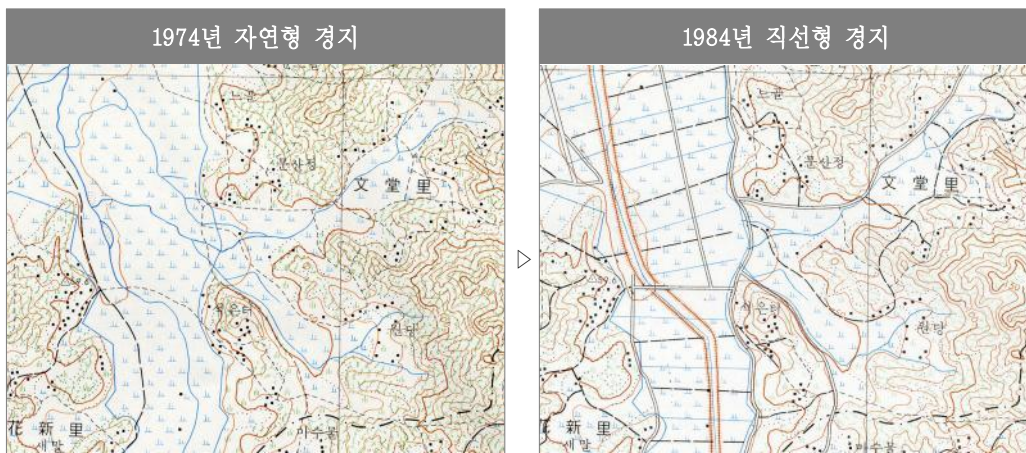
※자료: 주민인터뷰 내용과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종합

(3) 1980년대

1980년대는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하향식 사업이 주류를 이루며 주요 공간요소들을 대대적으로 바꾸었다. 특히 일터였던 농경지가 경지정리사업에 의해 크게 변하였으며 마을공동공간이나 주거공간도 사업의 영향으로 함께 바뀌는 양상을 보인다.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농지 정리의 확산은 농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서로 관계된 농수로, 길 등의 구조도 바꾸어 놓았으며 직강화에 따라 공동문화공간들을 훼손시켰다. 이는 주민의 활동과 생활에도 영향을 끼쳐 공간의 관계를 재구성시켰고 기능을 이전시켰으며 커뮤니티의 해체를 가져왔다.

특히 하천이 대대적으로 변했다.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삼교천 역시 직강화 사업을 하였고 교량 등을 설치하였다. 본래 자연형태의 물길이 지금의 형태와 같이 변모하였다. 삼교천을 중심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함에 따라 화신리 방향의 농경지부터 새마을회관 서측 다랭이논이 사각형의 반듯한 농지가 되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마을변화에 중요한 사건으로 경지정리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주민들에게도 크게 각인되어있는 농촌공간변화의 시발점으로 사료된다.

[표Ⅳ-5] 1980년대 경지정리사업 전후 경지 변화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1974년 1:25000 지도(좌), 1984년 1:25000 지도(우)

삶터와 일터는 1980년대에도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시행 여파로 마을진입로가 우마차폭의 2-3배 가량 확·포장되었고 논과 연계된 농로와 하천 양측 길도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농기계 보급과 자동차 사용도 증가되었다. 주택은 함석 및 기와, 슬레이트 지붕이 지속적으로 확산·보급되었고 추가적으로 벽돌이 사용되었으며 양옥집들이 이 시기 마을에 처음 등장하였다. 마을회관 옆에는 어린이집이 생겨 회관과 함께 운영되어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우리 새마을 회관은 그 때 당시에 어린이 집을 만들었어, 그 회관 한 쪽 방을 내어 어린이 집을 시작했어 ...(중략)... 길은 자꾸 자꾸 커져가고, 경지정리 하면서 버스가 들어왔으니까, 그때는 뭐 2차선은 아니어도 1차선으로는 넉넉했지. 한참은 모래, 자갈 가져다가 깔고 다녔는데 이젠 그 아스콘까지 다 깔았어. 양옥집 들어온 것도 87년도? 89년도 정도로 정부에서 지붕, 집 개량 할 사람, 그 때 10채도 채 안됐지? 그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 그때부터 양옥집이 생겼지...”

황강석, 개인면담, 자택, 2012년 10월 9일

[표Ⅳ-6] 1980년대 문당리 마을



1980년대 문당리 마을 농경지



1980년대 문당리 마을 진입로

※자료: 환경농업역사관 자료 (좌)

가을걷이 나눔의 축제 사진전, 2012년 10월 4일 (우)

이처럼 주거와 관계된 삶터와 일터는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재료, 크기, 형태 변화를 계속 겪었지만 쉼터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의 삶터는 경지정리사업에 의해 하천이 직강화 되면서 상당부분이 훼손되었다. 삶터의 공간이자 마을의 주 집회 공간이었던 공동 우물터는 집집마다 관정이 보급되어 작두샘을 사용하게 되면서 모임기능을 상실했으며 여름철 만남의 장소였던 느티나무 정자목과 마을 정자들은 경제성을 지향하는 시장경제의 확산으로 토지소유자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팔리거나 사라졌다.

“이때는 수도 샘 파는 게 나왔어. 샘, 작두샘이라고 눌러서 물 푸는 것. 인력으로 눌러서 푸는, 그때부터 자가로 샘을 파기 시작했지. 그 기계가 나오는 바람에 가정 샘들을 판 거지. 그 전에는 물지게라고, 물통 두 개 걸고서 떠다가 먹었는데 근데 이 샘들이 나오면서 그 우물터가 다 없어졌어, 지금도 형태는 있어...(중략)... 정자나무는 고목나무 사고 다니는 장사꾼들이 있었어. 느티나무가 결이 참 좋거든. 그러니까 논 같은 것 만드는데 팔아먹으려고 베었다는데 속이 텅텅 비어 있었어. 껍데기만 있고, 그니까 베어만 놓고서는 개네도 다 씹었다고 안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나무가 씹었지. 모르는 사람들은 갖다 떼기도 하고 땀감 없을 때니까...(중략)...”

황강석, 개인면담, 자택, 2012년 10월 9일

마을의 공동체 조직의 하나였던 두레도 이 시기에 사라졌다. 농기계와 가전제품이 보급되고 자동차 문화가 전파되며 자본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확산되는 사회환경의 변화 때문이었다.⁴¹⁾ 하향식 사업이 시행되면서 마을은 급속도로 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농촌 커뮤니티 장소들, 우물과 빨래터, 정자목, 사랑채 등도 변경되거나 사라지면서 농촌 주민의 커뮤니티 해체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주민들의 외부공간에서

41) 조혜정(1981)은 농촌주민들이 돈을 만질 수 있게 되고 편리한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TV를 보며 현대적 생활의 안락함과 재미를 즐기게 되니 더욱 돈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사람들의 돈에 대한 집착이 마을의 결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루어지던 모임, 휴식, 만남 등의 활동이 변화를 겪게 되었다.

[표Ⅳ-7] 1980년대 사업 전후 생활공간 변화

사업명	공간유형	사업 이전 생활공간	사업 이후 생활공간
경지정리 사업	삶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함석, 슬레이트, 기와지붕 · 농기계 및 자동차 사용 시작 · 새마을회관으로 모임장소 분산 · 사랑채, 정자목, 우물터, 빨래터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정 보급 · 농기계와 자동차 문화 확산 · 마을안길 포장 · 어린이집, 새마을회관에 신축 회관에 모임기능 집중 · 정자목 팔았으며 상여집 불태움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에서 놀이,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래터나 우물터 사라짐 · 하천활동 사라짐
	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 수확 우마차 이용 · 생산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확산 · 경지정리사업으로 생산량 증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삶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함석, 슬레이트, 기와지붕 · 주민생활양식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 화장실 등 외부시설 통합 · 서양식 주거 보급 · 벽돌사용 시작

※자료: 주민인터뷰 내용과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종합

(4) 1990년대

1990년대는 사업들이 상향식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며 이 시기 농촌의 물적 지원은 컸으나 대다수 면단위의 정주기반사업들이었기 때문에 문당리는 사업혜택이 적었다. 하지만 이 시기 마을에는 내부적인 변화가 컸다. 마을은 1994년 마을리더에 의해 유기농법이 도입하였는데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되어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불안이 커지며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 특히 품질에 관한 관심으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장려했고 문당리 마을의 사업인 유기농업이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친환경 식품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3자 계약 체결로 재배 전 소득이 보장되면서 친환경 산업은 더욱 확장되었다. 이 상황은 농업생산 관련시설, 대형축사들과 RPC 공장이 건립되고 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선순환을 위해 들어선 대형 축사들로 인해 하천공간이 훼손되기도 했다.

이 시기 삶터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는 어린이집과 새마을회관이 사라진 것이다. 즉 모임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 1990년 초반에는 없었다. 구 회관의 크기가 작아 더 이상 모임기능을 수용하지 못했기도 했거니와 사업지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적어지면서 조직의 활동도 줄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할 만큼의 어린이 수가 없어 사라지게 되었고 창고로 전환되었다.⁴²⁾ 이후 친환경 농법으로 마을의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은 자발적인 의지로써 환경자조금을 모아 환경교육관을 신축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주민을 위한 휴식과 모임 공간 기능을 하면서도 마을발전을 위한 상향식 사업을 유치하는 기반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흑향미가 굉장히 좋았고 비쌌어. 귀한거라. 그래서 흑향미 농사 한 가마에 돈 1만원씩 모은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부지를 산거지. 교육관 부지를. 옛날 회관 보면 알겠지만 좁잖아. 그래서 넓은 데로 갈려고 산거지. 또 21세기 문당리 발전 계획서를 그때 만들었어. 그래서 그 회관을 짓기 시작했지. 부락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외지 손님들 필요할 때 사용하고. 우리 환경농업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만들었지 ”

황강석, 개인면담, 자택, 2012년 10월 9일

삶터공간은 하천 인근이 가장 크게 변화였다. 1990년대 초기만 해도 삼교천의 물이 세수를 할 정도로 맑았다고 하나 오리농법 도입 후 친환경 농산물의 부산물로 사료를 만드는 선순환 체계를 지향하며 축사들이 들어왔고 오염이 시작되어 지금은 하급수로 그 오염도가 심해지게 되었다. 이후 풀무신협 기금으로 하천변 양측 4.5km 구간 벚나무를 1995년 6월 6일 조성하여 미관이 향상되었고 지역과 연계된 벚나무 길이 형성되었다. 마을 오봉산은 과거 조림한 나무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거지게 되면서 빛이 안보일정도로 째깍해졌으며 각각은 빛과 충분한 영양분이 없어 줄기가 가느다랗고 약했다.⁴³⁾

42) 주형도, 정예화 외 11명의 주민 인터뷰 내용에 근거함

[표Ⅳ-8] 1990년대 문당리 마을



※자료: 환경농업역사관 자료(좌), 직접촬영(우)

일터는 변화폭이 컸는데 사업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마을 자체적인 움직임 때문이었다. 오리농법을 도입하면서 오리집과 축사들이 새로운 마을공간요소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생산시설 역시 유기농이라는 특성상 일반 쌀과 섞이지 않게 분류해내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저장 및 가공의 단계에서 기존 새마을회관 옆에 있던 방앗간이 사라지고 원당마을 인근에 RPC 공장이 건축되었다.

“...(중략)... 거름을 주되 화학거름 말고 퇴비로 주자고 해서 오리를 도입했어. 근데 부산물도 많이 나오고 논 면적도 자꾸 넓어지고 그래서 짐승한테 화학비료 안주고 유기 농사를 한 벼짚을 주고 거기서 부산물 나오는 걸로 또 논에 거름할 수 있게 하는 형식으로 해서 축산도 시작한거야. 또 유기농법하면서 유기농 쌀이 일반 쌀하고 같이 섞이면 안되거든? 거기다 노동력이 자꾸 고령화되고, 생산은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자꾸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정미소를 지은거지.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샀어. 빛 얻어서. 근데 운영하기 어려워서, 농협에 인계했어. 그래서 지금은 농협에서 관리하지 ...(중략)...”

황강석, 개인면담, 자택, 2012년 10월 9일

43) 주형로는 2012년 10월 11일 개별면담에서 “80년대 숲은 우거졌으나 간벌로 정부가 관리하면서 아름다워졌다.”라고 말하였다.

[표Ⅳ-9] 1990년대 사업 전후 생활공간 변화

사업명	공간유형	사업 이전 생활공간	사업 이후 생활공간
환경 농업 마을 가꾸기 사업	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양식변화 · 자동차, 버스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진입로 확포장 · 버스 마을 진입 · 도농교류 활성화 · 외지인 방문 높아짐
	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친환경산업 확산 · 환경기금으로 공공부지매입 · 오리농법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업교육관 신축 · 도농교류 활성화 · 외지인 방문 높아짐 · 마을의 공공소득창출 · 마을 홍보 및 산업 활성화

※자료: 주민인터뷰 내용과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종합

(5) 2000년대

“ 옛날 사업은 관이 내려주는, 군수하고 잘 알면 따오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지만 환경농업교육관 계획서는 우리가 낸 거예요. 그걸 정부가 받아준 거죠. 그 후로는 다 우리가 직접 신청했어요. 정부사업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

주형로, 개인면담, 자택, 2012년 10월 11일

2000년대는 상향식 어메니티 사업들이 다수 시행되었다. 1990년대 결집된 주민공동체가 상향식사업 방식과 맞물려 적극적인 사업유치 활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상향식 개발사업⁴⁴⁾의 특징은 마을이 직접 원하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문당리 마을의 경우는 환경농업교육을 마을과 연결시키는 형태로 마을의 방향성을 잡아 주로 친환경 교육 목적의 시설들을 설치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목적성을 띄는 생산 공간들이 대거 등장한다. 즉, 이전의 생산 공간이라 함은 기존 축사나 농업관련공장이 주 설치요소였음에 반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외지인을 위한 체험시설, 환경시설 등과

44) 지역에서부터 개발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지 지향적 지역 개발로 지역 주민의 욕구와 참여에 바탕을 둔다.

같은 관련소득시설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처럼 2000년대 마을외부공간은 정부지원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바뀌었다.

쉼터공간인 산림은 정부지원의 간벌사업이 시작되었다. 1990년 무분별하게 생성된 녹지가 양도 많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마을의 우점종인 소나무 림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하지만 대다수는 주민들에 의해 변화였다. 마을 입구 배롱나무, 철쭉, 영산홍 식재, 마을 숲의 잣나무 관리, 소나무 및 단풍나무 조성 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경관을 바꾸었다. 또 외부인을 위한 체험시설이긴 하나 기존 논을 습지화하여 정화공간이자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했으며 각종 정자,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삶터는 주민의 의지로 사업 외에도 외부전문가와 마을발전방안을 논의해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을 수립, 태양열 시설 및 각종 환경친화시설들이 이 계획에 영향을 받아 설치되고 변경되었다. 주민들은 친환경 농사의 소득 일부를 환경 자조금으로 모아 식당, 강당, 숙소, 마을정보센터를 겸비한 환경농업교육관 신축을 했으며 각종 도농교류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였다. 또 새마을회관과 어린이집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이 이전하여 신축되었다.

일터는 농업생산시설보다는 소득기반시설인 체험·숙박 관련 시설이 대거 신축되었다. 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의해 황토 건강 체험방과 물놀이장, 전통가옥체험관, 등산로 및 약수터 복원, 조형물 등이 설치되었다.

“ 2000년에 녹색체험마을로 선정되고 2억을 받아서 마을 찢질방도 만들고 또 정보화 마을로 되면서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 2005년에서 2009년까지는 종합개발사업으로 전통체험가옥이나 마을 역사관을 만들고 저 위의 물놀이장, 수영장도 만들고 등산로도 정비하고 각종 그런 시설들을 했어요 ”

류근철, 개인면담, 환경농업교육관, 2012년 9월 27일

[표Ⅳ-10] 2000년대 사업 전후 생활공간 변화

사업명	공간유형	사업 이전 생활공간	사업 이후 생활공간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	삶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별 생활가전제품 사용 · 도농교류 시작으로 외지인 방문 · 마을이 친환경농법으로 유명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과 컴퓨터 보급 · 교육관 내 정보화센터 설치 · 주민교육 시작 · 도농교류 증가, 인터넷으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신청 · 온라인 생산유통체계 생성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경관에 대한 관심 고조 · 도농교류로 도시민 방문 증가 · 숲이 울창, 소나무, 잣나무, 아까시나무가 혼림되어있음 · 21세기 백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지 조성하여 농촌체험시설이며 소득시설이자 정화용 공간마련 · 주민이 조성 · 농경지 전환
	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증가, 인구수 감소 · 새로운 소득원 필요 · 도농교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토 건강 체험방 신축하여 외부인 숙박 제공, 소득창출 · 마을주민 모임장소로도 이용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삶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증가, 인구수 감소 · 21세기 백년계획 수립 · 환경의식 고조로 에너지 절약 · 환경농업교육관에서 모임하나 주민만의 모임장소 필요 · 새마을회관은 창고로 전환 · 도농교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관 앞 도로 아스팔트 포장 · 등산로 정비 및 약수터 복원 · 난방비 절약을 위한 태양열시설 · 마을회관과 노인 회관 설치 · 교육관과 모임 기능 분산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건강, 복지 의식 증가 · 환경과 경관에 대한 관심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정자, 등산로 인근 휴게 공간 조성했으나 이용도는 낮음 · 마을입구, 교육관 근처 경관식재
	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마을의 소득창출 고민 · 마을 어메니티 자원 생성 요구 · 도농교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시설로 물놀이장, 교육관, 비닐하우스, 체험장 등을 설치 · 주차장 설치 · 숙박시설 설치(전통가옥체험관) · 조형물, 물레방아 시설 등 등장
마을경관 조성사업	삶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 증가 · 차량증가에 따른 길 폭 확장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버스진입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경관에 대한 관심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식재하여 환경개선

※자료: 주민인터뷰 내용과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종합

(6) 종합

생활공간인 삶터, 쉼터, 일터의 시대별 변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삶터는 농촌의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곳으로서 주거 공간, 마을 기반 공간, 공동문화공간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1970년대 이전 주거공간은 목재, 흙을 이용한 가옥들로 단열형의 홑집 구조였으며 마을기반공간인 마을길은 자갈 혹은 흙 포장으로 걷기 불편했다. 공동문화공간으로는 우물과 정자목, 성황당 등이 있었는데 주로 여름철에는 우물과 정자목 주변에 마을모임을 가지며 이야기를 나누고 겨울철이면 사랑채가 딸린 개인주택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삶터 공간의 물리적 모습은 농촌이 근대화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촌생활환경개선이라는 명목하에 큰 변화를 겪었다.

우선 문당리의 주거공간은 가옥의 구조에서부터 형태나 크기, 입면모습, 재료 등의 측면에서 많이 바뀌었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인 근대화 운동이 일어났고 급변하며 동서양의 국제적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직접적 영향력은 도시에 비해 적어 과거 전통적인 주거형태라 볼 수 있는 초가집의 건축양식이 전승되었다.⁴⁵⁾ 하지만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크게 변혁기를 맞이하게 된다(김덕현, 1987; 이시영과 심준영, 2000; 예용광, 2003 등). 새마을운동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인해 주택, 특히 지붕개량이 강도 높게 추진되어 기존 초가지붕들이 슬레이트, 합석, 기와지붕으로 교체되었다.⁴⁶⁾ 또한 시멘트 담장과 60년대와 다른 재질의 지붕들로 농촌주택들은 입·평면적인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하며 전통적 농촌 주택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 주택 구조를 개선하는 전면적인 개축, 신축작업과 불량주택개선사업이 실시되었다. 주요 목적은 외부에 위치한 부엌, 목욕탕 및 화장실 등을 삶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내부에 위치시키는 것이었다. 이 시기 항공사진을 대조해 보면 같은 위치의 주택들이 대형화되거나 재조합되는 모습들이 포착된다. 이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의 외부형태뿐만 아니라

45) 마을주민 김기돈의 말에 따르면 초가지붕에 목재, 흙을 이용하는 가옥이 대다수였으며 재료는 인근 산에서 공수해왔다고 한다.

46) 이 당시 문당리 마을에는 처음으로 기와공장이 마을에 들어오기도 하였다.

내부 공간 개선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심근정 등, 1999). 거기에 추가적으로 80년대 양옥집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벽돌이 보급되었다. 2층 주택들이 이 시기 처음 등장했을 것이라 보이며 농가주택들 간에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개축 형태가 혼재되었다. 19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주거공간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시행되지 않았으나 개인적인 개축이나 신축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인다. 또한 2000년대 농촌정비사업의 경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환경개선을 꾀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마을가꾸기 사업들로서 도·농 교류를 목적으로 한 시설 중심의 계획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소득시설 및 체험시설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도시민을 고려한 현대주거양식 형태가 다수 나타났다. 거기에 오히려 과거 주택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통가옥체험관과 같은 공간도 마을에 등장했다.

마을기반공간의 경우 1970년 새마을운동의 도로정비를 빼놓을 수 없다. 마을길이 달라진 주요사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활환경개선이기보다는 마을기반, 특히 생산기반을 개선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이는 농로에 높은 정책적 관심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농림부, 1987). 따라서 이 시기의 변화는 마을 내 주요 마을길이 아닌 농로 개선 및 확장에 더 주력했다고 보인다. 마을 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주요 마을길 및 진입로 등의 현대화된 콘크리트 포장은 새마을운동,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나 당시에는 우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폭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의 모습을 띄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 이후 다른 사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새마을운동 시기에는 마을 내 전통적 형태의 마을길이 포장되고 정돈되었진 정도로 보는 게 맞겠다. 문당리 마을은 새마을운동 이후 특히 진입부의 두 갈래로 나뉘어있던 마을입구 길이 하나로 정돈되어 입구성이 부여되었다. 즉, 이 시기부터 마을의 영역성이 확고해졌다. 80년대에는 하천정비와 함께 버스가 다니게 되면서 마을외곽 도로 길이 확장되었고 1991년 농어촌도로사업 등의 영향으로 군도 이하의 도로 정비가 늘어남에 따라 마을 내 가로 뿐만 아니라 마을 외부공간과의 연결 및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주민의 생활패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형축사와 공장들이 들어서고 도농교류 관련 차량이 마을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필요성에 의해 도청지원으로 마을안길이 확장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도농교류가 활발해지면 전반적으로 마을길들이 확장되고 주차장들이 만들어졌다. 특히 교육관이나 체험시설을 중심으로 주위 길들이 확·포장되었는데 마을의

친환경 테마와는 다르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인 점에 비추어 보아 사업실행에 있어 지역성 고려보다는 편의성에 치중했다고 판단된다.

마을공동문화공간은 새마을 운동 특히,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사업에 의하여 종래의 커뮤니티를 담당하던 우물 및 빨래터, 정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공간인 새마을회관이 생겼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공동공간이 형성됨에 따라 주택의 사랑방에서 수행하던 집결공간의 기능이 새마을회관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 전 사랑채가 있는 큰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행사와 모임들이 이 시기에 사라지게 되었고 자본이 투자되고 기계화, 산업화가 확산되면서 두레와 같은 공동협력조직도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중요모임이 새마을회관으로 집결되었다. 새마을회관은 대다수 마을진입로에 형성되어 마을의 공동마당이자 상징적인 공간으로 역할도 담당하였으며 단독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인근 어린이 집을 비롯하여 방앗간이 함께 위치하여 마을주민을 모이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활성화되었던 새마을회관은 작은 건물의 규모와 노후화로 인해 창고로 전환되었고 1990년대 유기농법의 활성화로 창출된 부가 수입의 일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모아 환경농업교육관을 건립하였다. 이는 부족한 공유공간에 대한 주민의식의 발현으로 볼 수 있겠다.⁴⁷⁾ 또한 새로운 마을회관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의해 신축되었는데 새로운 마을회관은 토지가격의 문제로 교육관 맞은편 산에 조성되어 이용도가 낮으며 찜질방, 역사관, 전통가옥체험관과 함께 있어 주민과 외부인의 모임공간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 현재 중요한 행사와 모임은 주로 환경교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2000년대 이르러 추진된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의 도·농 교류형, 관광 기반형 사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마을 곳곳에 전통적 정자가 설치되었으며 물놀이장에는 물레방아가 도입되었고 기존 논을 활용하여 습지가 마을중심부와 찜질방 인근, 물놀이장 인근에 조성되어 정자나 조형물과 함께 꾸며졌다. 또한 아름다운 농촌 경관 창출에 대한 관심과 국가적 지원이 집중되면서 대

47) 문당리 마을에는 환경 자조금이라는 형태로 주민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사유 농경지, 산지를 마을 공동소유로 매입, 커뮤니티 공간이나 마을창고, 마을 체험공간, 교육관 등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로 매입하고 있다.

규모 단위의 경관 정비뿐만 아니라 녹지와 화훼 위주의 포켓 공간 조성사업과 다목적 체험 공간 및 운동 공간 조성도 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등산로와 옷샘 약수터가 새롭게 조성되었고 등산로 양측 꽃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마을길에 가로수를 조성, 외부 공간 꾸미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영역 및 활동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표Ⅳ-11] 문당리 마을 삶터 변천

삶터			
구분	주거공간	마을기반공간	공동문화공간
1970년대 이전	· 목재, 흙의 초가집	· 자갈길 및 흙길	· 우물 · 정자목 · 성황당
1970-80년대	· 콘크리트담장(+) · 함석, 슬레이트, 기와지붕(=) · 불량주택개축(=) · 부엌, 목욕탕 및 화장실 통합(=)	·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 마을안길포장(=)	· 새마을회관(+) · 빨래터(-) · 우물(-)
1990년대	-	· 마을 진입로 확포장 (=)	-
2000년대	-	· 등산로(+) · 아스팔트포장(=)	· 정보화센터(+) · 마을회관(+) · 태양열시설(+)
생성, 변경, 소멸된 공간	주택(+,=)	길(+,=)	모임공간(+,-)



삶터 변천 특성	내부지향적 생활의 삶터
----------	--------------

*(+): 생성 (=): 변경 (-): 소멸

이상 앞서 설명한 삶터공간의 변화요소들을 [표Ⅳ-11]와 같이 생성, 변경, 소멸된 요소로 구별, 종합해보았다. 종합해본 결과 농촌정비사업의 영향은 주택과 마을길의 재료와 크기를 지속적으로 변경시키고 공동문화공간의 경우, 외부에 있던 모임공간을 소멸, 시설중심의 모임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기능을 통합시키며 내부지향적인 생활에 적합한 형태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쉼터공간에 대한 사항이다. 문당리 마을의 생활공간 중 쉼터공간은 크게 산지와 하천, 그리고 기타 공간으로 구분된다.

그 중 마을의 입지에서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산지는 1960년 땔감 연료로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들이 벌목하여 민둥산이었으며 토양이 그대로 드러나 붉은 산이었으나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마을조림을 시작하고 산림법이 엄격해지면서 차츰 녹지가 생기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면담 내용에서 1970년대 초까지는 이 같은 법제의 영향이 커 낮에는 벌목행위가 일어나지 않다가 저녁 무렵에 산에서 나무를 공수해왔다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생활과 사업 간에 괴리가 있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는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 개별농가마다 난방시설이 바뀌어 더 이상 땔감을 얻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산지는 녹지가 풍성해졌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 숲이 급속도로 울창해져 높은 밀도로 인해 수목생장과 마을 경관에 방해가 되어 2000년부터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간벌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소나무림이 잘 보전되어 있다. 이 중 일부는 마을주민들이 교육관과 유물관 등을 도농교류 관련 사업을 유치하면서 준공할 때 단풍나무와 소나무를 추가적으로 관리, 조성한 부분도 작용했다.

하천은 1960년도 모래무지의 냇가로 깨끗한 자연형 하천이었다가 새마을 운동, 특히 경지정리사업 시 소하천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촌수변공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주민 면담 결과, 경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농경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을 길과 하천을 함께 대대적으로 정비하였고 당시 하천변에 조성되어있던 빨래터나 마을 길의 우물 등을 없애 버려 1970년까지는 생활의 일부로서 자연환경을 인식했었다면 경지정리사업 이후에는 농경지 관수 공간으로서 기능적 측면을 부각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초 마을에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을과 화신리를 잇는 부분에 교량들이 확 포장되었고 이는 하천에도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90년대 이르러서는 UR 협정과 함께 유기농법이 마을에 확산되면서 남는 쌀을 이용한 유기농 사료를 만들어 선순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거 축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축사의 유입은 마을하천 오염을 심각하게 만들었다. 1990년대 후반 도농교류가 활발해져 체험마을로서 가치가 부각되면서 기부를 받아 하천 양측에 뽕나무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는 2000년대 다양한 사업들과 맞물리며 주민 가치관을 바꾸어, 보여주는 경관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변화된 쉼터공간은 습지가 있다. 이는 기존 논을 도농교류 사업들을 유지하면서 기능성이 제고되어 체험과 교육 목적으로 습지로 전환하였다. 물놀이장과 찜질방, 마을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습지는 단순한 경관기능차원을 넘어 사용한 물을 1차 정화하는 환경시설로서 사용되고 있다.

[표Ⅳ-12] 문당리 마을 쉼터 변천

쉼터			
구분	산림	하천	기타
1970년대 이전	· 민동산, 붉은산	· 모래무지 냇가	-
1970-80년대	· 아까시나무 조림(+)	· 하천 직강화(=)	-
1990년대	-	-	-
2000년대	· 마을입구식재(+) (배롱, 철쭉, 영산홍) · 교육관 식재(+) (소나무, 단풍나무) · 정기적 산림 간벌 (-)	-	· 습지3개소 (+)
생성, 변경, 소멸된 공간	식재(+, =, -)	하천(=)	습지(+)

▼

특성	미적 상징 공간의 쉼터
----	--------------

*(+): 생성 (=): 변경 (-): 소멸

쉼터공간의 생성, 변경, 소멸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산림의 변화 양상이 가장 크다. 1970년대 이전 민동산을 새마을운동 때 아까시나무로 조림하였으나 이는 기능성 위주의 식재였다. 1990년대 마을산림이 울창해지면서 2000년대 정기적으로 간벌을 시작했으며 도농교류와 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입구 및 교육관 근처를 경관 식재하였다. 주민 자발적으로 잣나무도 관리하였고 지역기관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홍동천변 뱃나무도 식재하였다. 하천은 쉼터 공간 중에서 가장 변화가 적었다. 경지정리하면서 하천이 직강화되면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과 생활적 관계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기타 공

간으로는 2000년대에 습지를 조성한 것이 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일환으로 기존 농경지가 변경되었다.

마지막으로 일터공간에 관한 사항이다. 일터는 농지랑 농업시설, 그리고 소득시설로 구분하여 변천내용을 분석하였다. 농지의 경우, 1970년대 경지정리사업 이전에는 다랭이논 형태였으며 필지가 정리가 되지 않아 흙으로 된 논길과 함께 자연형의 경관을 띄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필지가 개간되었다.

농업시설인 불규칙한 수로와 농로, 논둑 등도 이 시기에 정리된다. 당시는 대내외적 영향으로 식량 확보가 중요한 안건이었고 식량생산량이 적어 개선의 움직임이 컸다. 이에 농지확대 개발정책을 펼쳤고, 농지를 확장하고자 야산개발에 주력하기도 했다. 따라서 일부 논과 밭이 확장되는 양상은 사회적 움직임에 따른 사업영향이라 보인다. 1990년대 들어 UR 협상 타결 이후 정부에서는 외부 개방에 대한 소득 및 산업 침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여 농촌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시설 변화를 지원해주었다. 문당리 마을의 경우 UR대응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977년부터 소수 진행해 오던 유기농법을 대폭 확장하여 1994년에 오리농법을 도입하였다. 이 시기는 어머니지 자원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시설을 상향식으로 요구하고 보고하여 사업비를 받아 개발하는 사업형태와 맞물려 마을개발이 활성화된다.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신설된 시설로는 정미소, 환경농업교육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개별 농가 시설로는 유기농법의 선순환 체계를 위해 많은 수의 축사들이 들어왔으며 대체로 대형규모로 주거지에 침투하였다. 또한 유기농업 관련공장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2000년에 들어서는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가 마을에 등장하여 새로운 농촌경관이 나타났고 친환경 체험마을로서 테마강조를 위해 기존 생산의 목적을 두었던 논을 습지나 환경 체험장으로 변형하여 사용했다.

종합적인 변화흐름을 볼 때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생산경관의 변화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변화가 지배적이었다고 판단되나 경지정리는 단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농경

지 구조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에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한 변화보다 2000년에 들어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도농교류관련 사업들에 의해 마을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이 바뀌고 마을 성격이 변화하여 농촌의 근간을 이루는 생산 공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함을 알 수 있었다.

[표Ⅳ-13] 문당리 마을 일터 변천

일터			
구분	농지	농업시설	소득시설
1970년대 이전	·다랭이논	·또랑형 농수로 ·농업용 저수지 ·우마차	-
1970-80년대	·경지정리(=)	·농로	-
1990년대	-	-	·환경농업교육관(+)
2000년대	-	-	·황토건강체험방(+) ·환경농업역사관(+) ·물놀이장(+) ·전통가옥체험관(+) ·유물관리모텔링(=)
생성, 변경, 소멸된 공간	농경지(=)	-	체험시설(+)

▼

특성	시장경제 방식의 일터
----	-------------

*(+): 생성 (=): 변경 (-): 소멸

일터는 1990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에 따라 생성, 변경, 소멸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주요 장소도 다르게 나타났다. 1990년대 이전에는 농지와 농업시설을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보다 열악한 기초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생산기반의 마을이었기 때문에 농경지와 농작에 필요한 관련 공간에 대대적인 변경이 있었다.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소득시설이 추가되고 있다. 어느 정도 농촌의 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반보다는 경제적으로 도농격차가 심각해지는 사회문제에 정부가 좀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농촌에 소득이 FTA, UR협상 등으로 농업생산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지

면서 다른 소득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고 주 5일제,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입지, 마을의 특수성과 맞물려 도농교류시설이 대거 추가, 설치되었다.

마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요소들 외에 마을 구조상에서도 영역성이 생성되며 확장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는 농촌정비사업이 촉진제 역할을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마을 입구의 크기와 위치, 진입로 생성 여부, 마을길의 확·포장, 건물의 수나 크기, 방향 등이 바뀌었는데 이는 마을영역에 영향을 미쳐 영역성을 확장시켰다. 비물리적으로는 마을의 공동체의 영향도 있었다. 개인주택 내 생산과 생활이 혼재되며 분산되어 있던 마을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에 입구가 생기고 길을 대대적으로 콘크리트포장을 하며 접근이 수월해졌다. 이로 인해 인근 마을과도 연계되어 교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계가 형성되어 있어 주민의식 상 4개 마을로 구분되어있었다. 1980년에는 주택정비사업들이 마을에 시행되었는데 서양식 주거양식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주택기능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부엌 등이 건물내부로 통합되었고 주거공간에서 담당하던 생산기능은 분리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1980년대 사라져가던 주민공동체가 지역산업을 매개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주민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소득시설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환경농업교육관을 신축하면서 마을건물들도 확산되었고 북동방향의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1980년대 경지정리사업으로 4개였던 우물이 2개로 줄어들고 간이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상수도계가 생성되었고 주민이 생각하는 마을영역은 크게 2개로 구분되었다.

“ 상여계가 상수도계고 같이 가지. 물을 같이 쓰는 사람끼리 계를 했으니까. 마을은 과거 동곡과 문산정이 합쳐서 상여계(상수도계)가 되었고 그 외 나머지가 상여계가 됐어요. 그래서 분리가 됐었지. 지금이 상여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지금이 하나되기가 더 좋은거지.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좀 그랬어요. 상여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지금은 이제 상여계가 없어졌으니까 오히려 마을이 하나가 된거죠 ... (중략)... 옛날에는 장날이나 밖으로 빠져나가지 다 그냥 지역 내에 있었는데 지금은 장도 아니고 완전히 개방된거지. 자기가 필요할 때 나가는... ”

주형로, 개인면담, 자택, 2012년 11월 26일

이처럼 사업은 길과 주택정비 등을 통해 마을의 구조적인 형태를 바꾸었고 경지정리 및 상하수도를 설치하면서 마을의 범주를 확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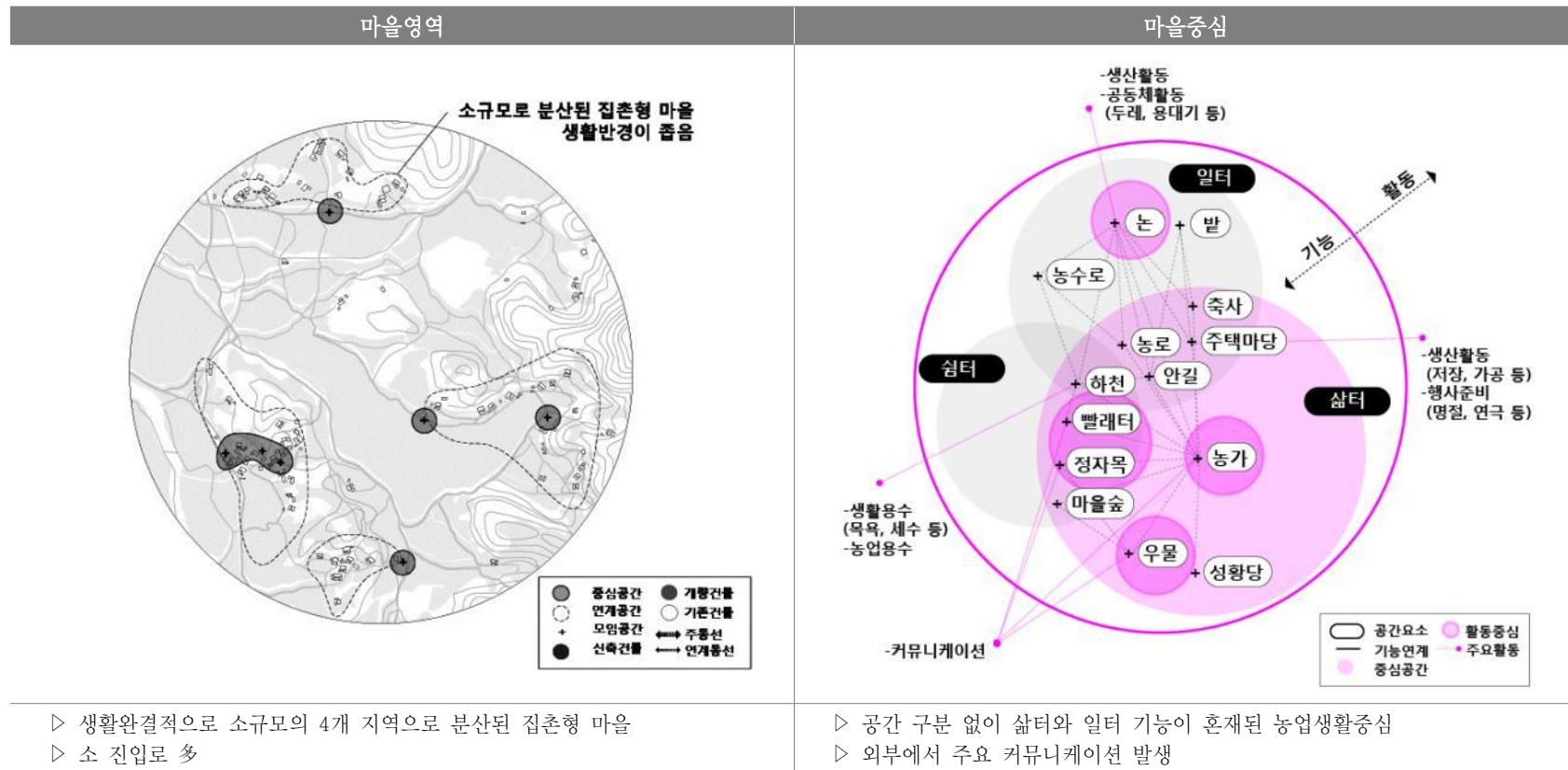
“...아주 어렸을 때로 가면 내가 10살 때(1970년대) 마을에 연극같은 걸 했지. 심청전이나 그런 거를 청년회에서. 초등학생일 때 추석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 연극이랑 콩쿨대회도 열었고, 노래자랑도 하고, 류근철씨 대표집 앞마당에서. 근데 80년대 사라졌어. 8,90년대는 마을회관, 새마을 회관 그것 밖에 없어요. 공간이 없었어. 해졌다 하면 거기서 모이고, 방송하면 모이고, 총회도 그렇고. 이제는 다 마을회관에서 모여요...”

주형로, 개인면담, 자택, 2012년 11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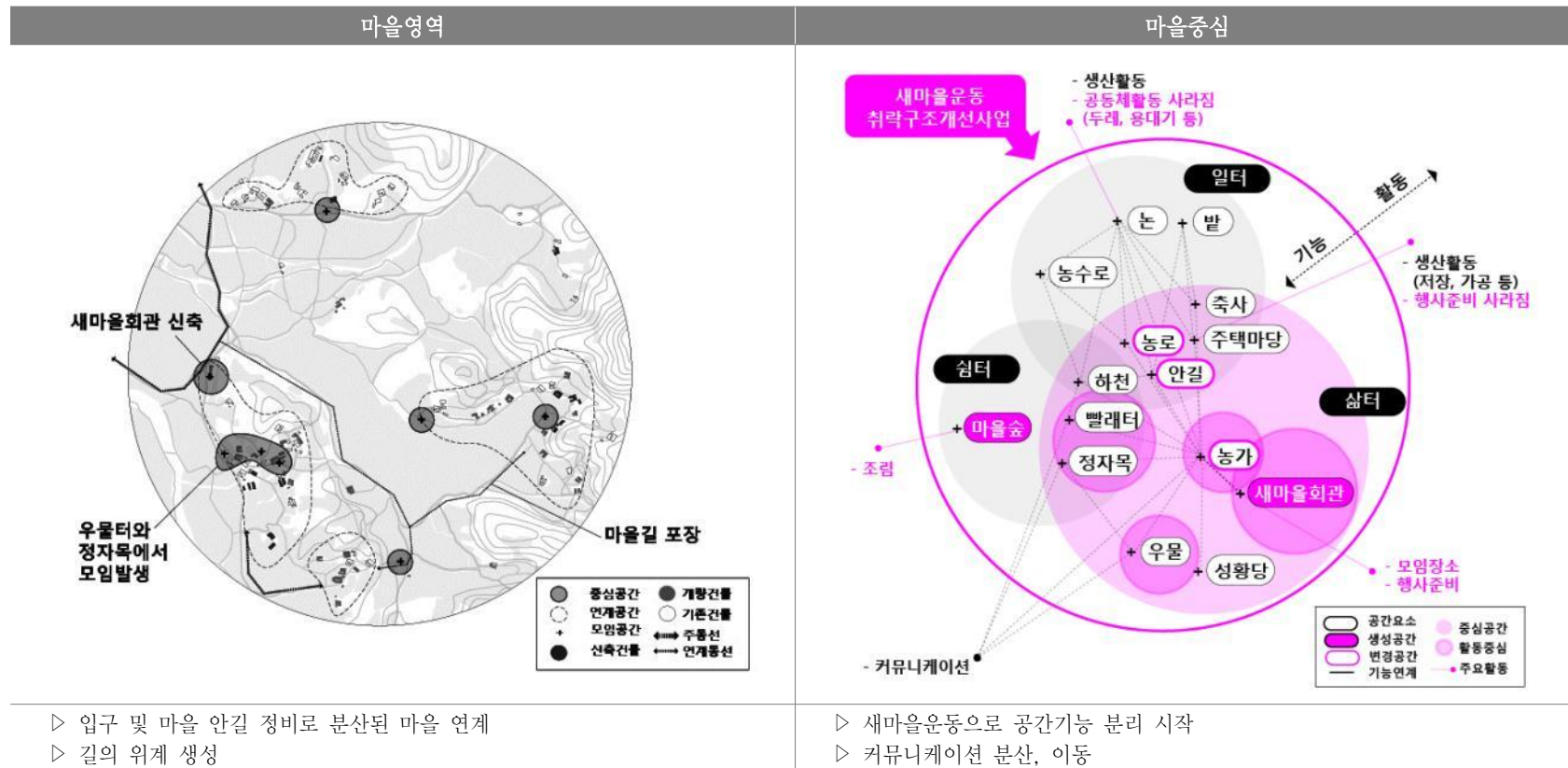
마을은 또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모임이 주로 일어나는 장소가 이동하고 새로운 중심 장소도 형성하고 있었다. 기존 빨래터와 우물, 정자목, 겨울에는 사랑채가 있는 주택에서 일어났던 마을모임기능이 새마을회관이 생기면서 이전되었다. 1980년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외부 공유공간에 있던 우물, 빨래터가 사라졌으며 정자목 역시 농촌 근대화 과정 속에 주민의식 변화로 사라져 새마을회관으로 기능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90년 주민공동체가 소득창출을 기반으로 결집하여 교육관을 설립하였고 기존 새마을회관의 노후화와 공간크기 문제와 맞물려 또다시 기능을 이전시켰으며 2000년대 각종 사업들이 시행되고 시설들이 교육관을 근처로 배치, 신축되면서 모임기능은 교육관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공동체 조직 간의 모임이 상충되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 마을회관이 신축되어 이장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조직들은 마을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현재는 주민 감소 등의 이유로 활용도가 낮은 편이고 교육관의 식당과 매점이용으로 기능이 충돌하고 있다.⁴⁸⁾ 이렇듯 마을모임의 중심공간은 70-80년대는 정부사업들로 인해, 90년대는 수용력과 건물 노후화문제로, 2000년대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진에 의해 변해오고 있다.

48) 주형로, 황강석, 류근철은 개별면담에서 최근 모임장소로 교육관, 마을회관, 찜질방을 꼽았으며 가장 활발한 모임장소는 교육관이고 찜질방, 마을회관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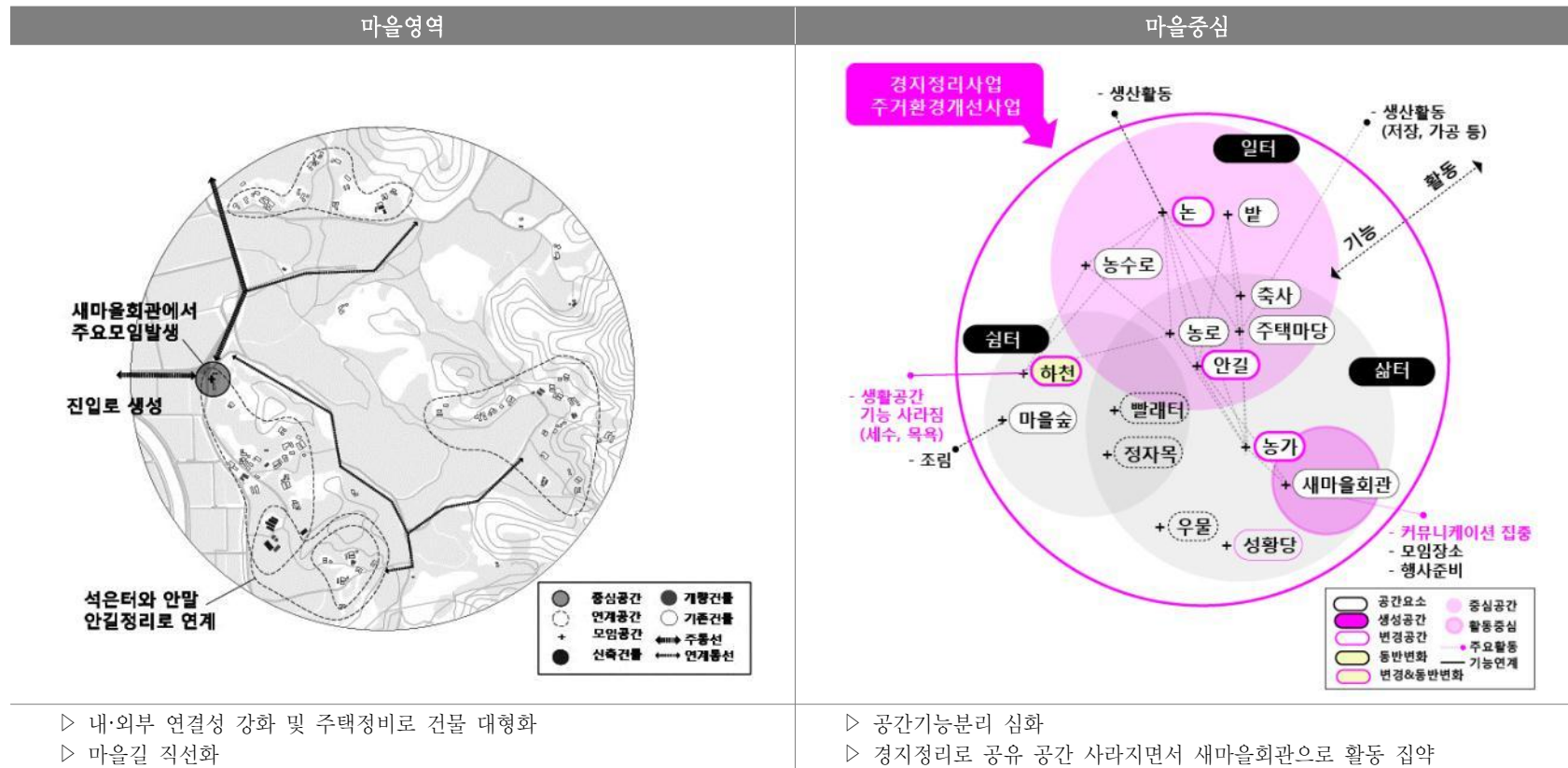
[표Ⅳ-14] 1970년대 이전 문당리 마을 영역과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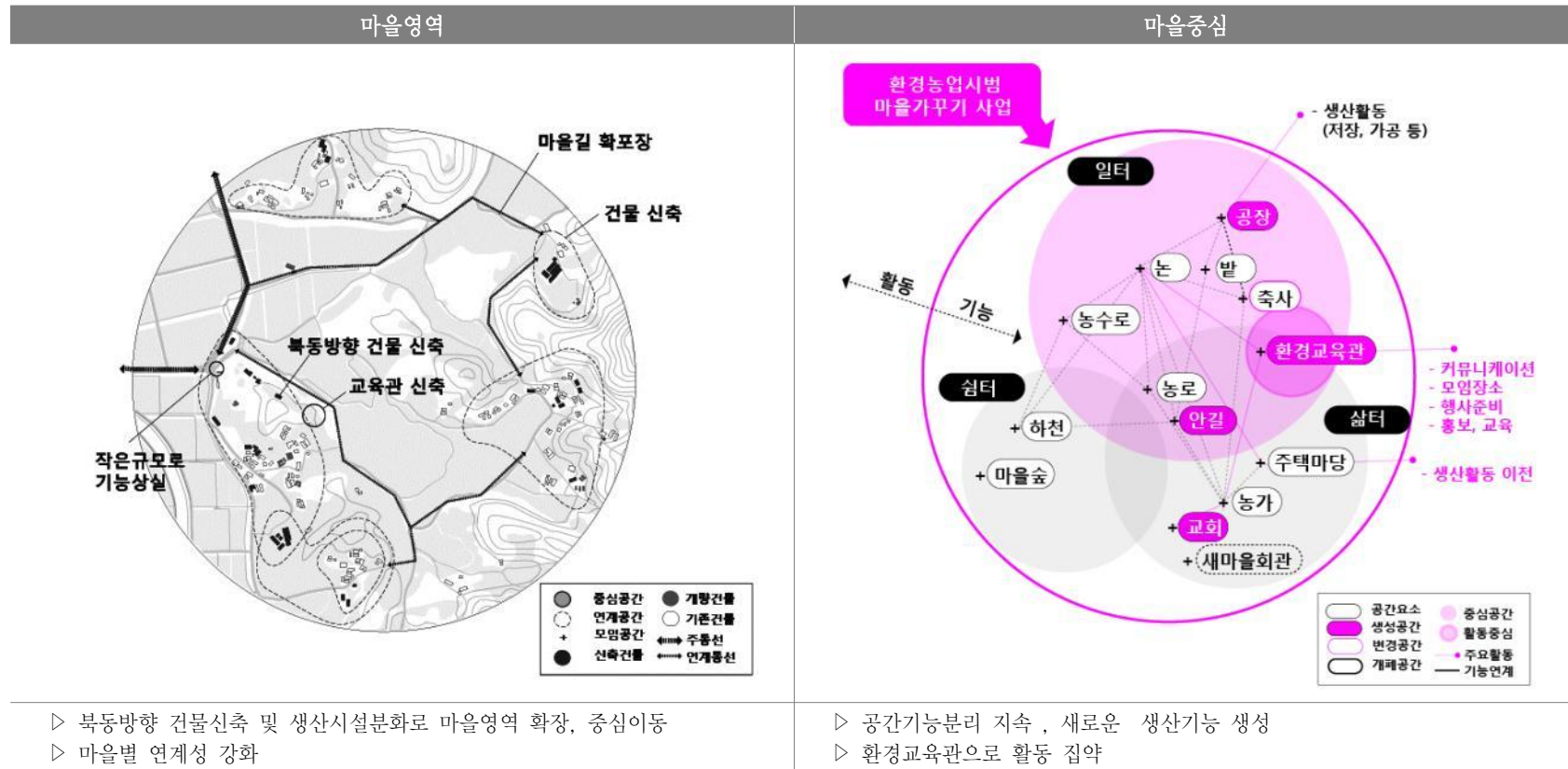
[표Ⅳ-15] 1970년대 문당리 마을 영역과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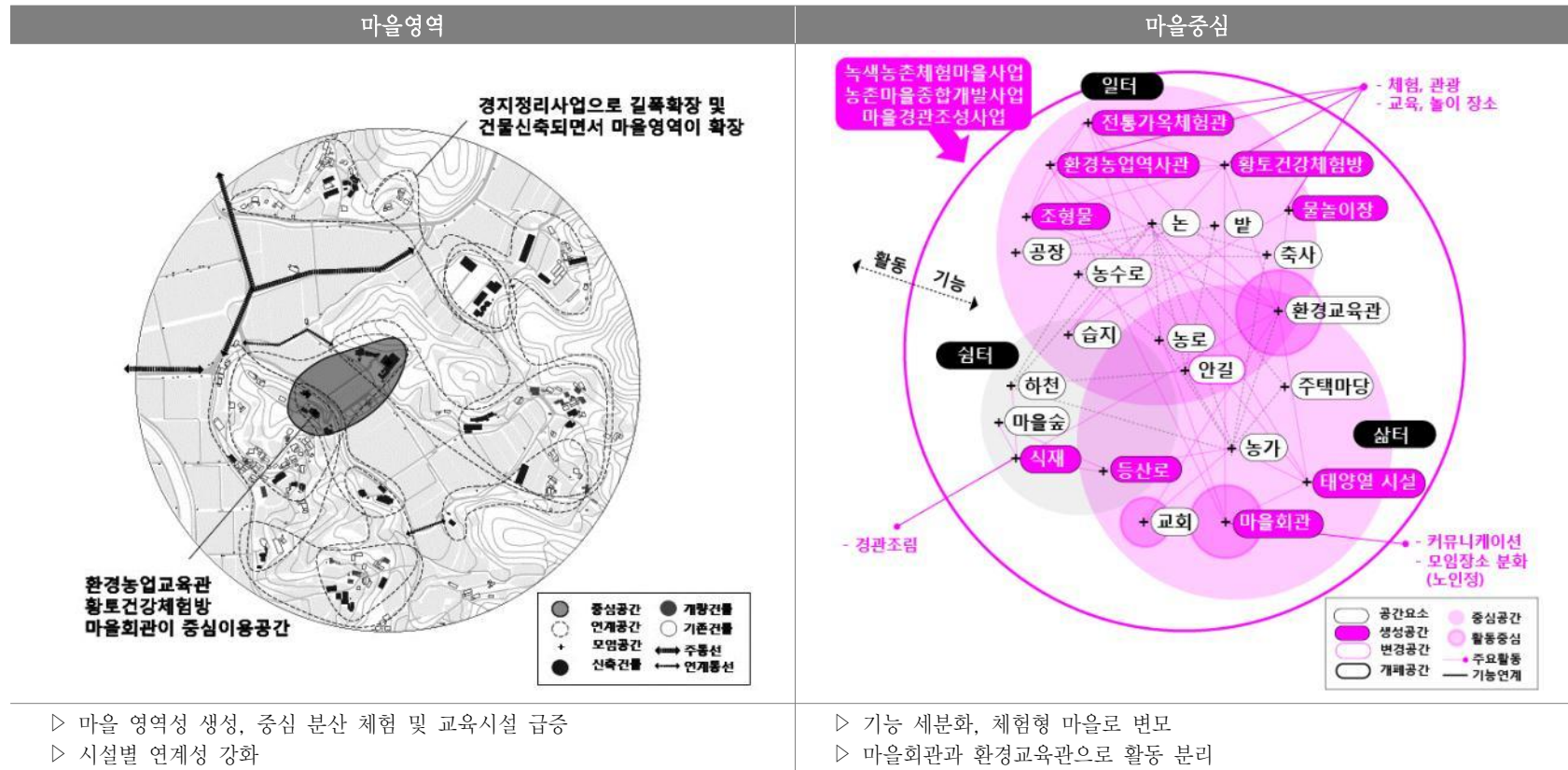
[표Ⅳ-16] 1980년대 문당리 마을 영역과 중심



[표Ⅳ-17] 1990년대 문당리 마을 영역과 중심



[표Ⅳ-18] 2000년대 문당리 마을 영역과 중심



2. 생활공간 변천 특성

(1) 내부지향적 생활 ‘삶터’

“...(중략)...지금은 TV 보느라 서로 만날 기회도 없지. 차가 있으니까 동창회고 친목회도 봉하고 나가서 만나지. 동네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게 없잖아요. 예전에는 어디 나가서 누굴 만날 줄을 아나. 여기 동네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랬지...”

정민영, 개인면담, 자택, 2012년 10월 11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거 공간, 마을 기반공간 및 공동문화공간으로 구성된 문당리 마을의 삶터 공간의 변천특성은 분산된 단일 기능형태에서 연관된 공간기능이 서로 통합되며 내부지향적 생활을 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주택과 공동모임장소의 세부모습을 보면 잘 보인다. 주택은 다양한 기능이 주거공간에 혼재되어 있긴 하나 소규모로 분산된 단일 기능들을 수행했다. 하지만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여파로 담장이 생기고 1980년대 대대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부엌과 화장실이 통합되며 내부 지향적이면서도 공간기능이 통합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는 80년대 서양식 주택 보급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표Ⅳ-19] 취락구조 개선사업 전후 주거 공간 변화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1967년(좌), 1977년(우) 항공사진

공동모임장소 역시 우물, 정자목, 빨래터와 같은 외부공간에 있던 모임장소가 경지정리 사업의 영향으로 소멸되고 새마을운동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의해 마을회관이 새로 조성되면서 내부시설로 모임기능이 이전되었다. 또한 1970년대 구분되어있던 새마을회관과 어린이집이 2000년대 마을회관으로 이전되면서 마을회의 장소 및 노인정, 어린이집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강의실, 정보센터, 식당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농업 교육관도 신축되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내부지향적으로 변하면서 쉼터공간은 생활의 편리를 가져온 동시에 주민간의 커뮤니티를 와해시키기도 하고 있다.

(2) 미적 상징 공간 ‘쉼터’

산림과 하천 및 기타공간으로 구성된 쉼터공간의 변천특성은 미적 가치의 증대와 외부인을 고려한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기능성을 고려한 식재는 2000년대 마을경관 조성사업을 하면서 미적인 고려를 한 화훼류를 주로 식재하였다. 수목성장이 빠른 것보다 더디지만 수목의 형태나 단풍, 꽃을 고려하여 배롱나무, 단풍나무, 철쭉, 영산홍 등을 심었다. 또 다른 특징을 외부인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식재지가 마을입구나 교육관으로 외부인이 주로 방문하는 동선을 따라 식재를 하였으며 습지 또한 외부인의 교육과 체험을 위한 시각적 목적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주로 물놀이장과 교육관 인근에 설치하여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간을 생성하였다.

[표IV-20] 문당리 마을 숲의 변화



※자료: 문당 환경농업교육관 제공 2001년, 2012년 문당리 소나무 림 간벌사진(좌, 우)

(3) 시장경제 방식 ‘일터’

농지, 농업시설, 소득시설로 구성된 일터는 시장경제 방식을 지향하며 문화 산업화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났다. 우선 농업생산기반의 농경지가 밭작물 체험장인 비닐하우스, 생태 체험장인 습지로 용도 변경하였다. 이는 외부인을 위한 소득 창출의 일환으로 산업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관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2000년에 생성된 시설들이 사용료를 받는 시설이라는 점에서도 경제성을 중시하는 풍토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사업에 의해 생성된 주요시설의 기능을 살펴보면 교육과 체험, 숙박, 식사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식당은 마을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쌀을 활용한 막걸리, 각종 식품을 판매하며 숙박은 전통가옥 및 태양열시설이 설치된 황토 건강 체험방을 운영, 친환경 마을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마을의 산업을 문화적 측면으로 받아들인 문화산업화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일터가 시장경제시스템으로 변해가면서 이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소득시설에 주민이 모두 가입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고 자본성에 기반하여 마을이 변해가면서 전통커뮤니티가 위협받는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2000년대 친환경·생태·도농교류 등을 강조하면서 탈산업적인 가치를 내포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마을 내에 존재하는 양면성 중 시장경제에 좀 더 무게를 둔 상황으로 보인다.

“...(중략)...제일 변한 게 인심. 인심이 변화가 많이 됐다. 요새 그런 게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누가 오면 퍼주는 것만 알았지, 그걸 아깝고 저 사람이 내가 줬는데 왜 저 이는 나한테 이렇게 안할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오는 게 좋았지, 지금은 나물장사도 도로가 뚫렸으니까 집집마다 다 와서. 돈하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인심이 박해졌어요. 뭘 보든 돈이랑 연결이 되니까 주는 게 아까운거야. 돈이 死야 死...”

정민영, 개인면담, 자택, 2012년 10월 11일

3. 종합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문당리 마을의 생활공간 변천 특성을 공간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생활공간을 삶터, 쉼터, 일터로 구분하여 각 농촌정비사업 별 공간변화요소를 도출하고 생성, 변경 및 소멸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삶터공간은 생활양식의 변화와 농기계보급, 자동차문화 확산 등의 사회변화의 이유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물리적으로 주택 재료와 크기, 길의 포장 재료와 너비가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 자주 변경되었다. 주민의 모임이 일어나는 70-80년대의 공동문화 공간은 경지정리사업에 의해 사라졌다가 2000년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자조금을 모아 직접 공간을 매입하고 정부에 요청하여 재 생성되거나 복원되었다. 주민들이 모이는 모임공간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삶터에서 나타나는 종합적인 특징은 우물터나 마당, 정자목 등 외부에 분산되어있던 생활밀접형의 모임공간들이 변경되거나 훼손되면서 건물 내부, 시설로 집중되어 내부지향적인 공간으로 변모한다는 점이었다. 또 대체적으로 공간들이 모임, 교육, 체험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면서 시설들이 대형화되는 점도 나타났다.

쉼터공간은 주민의식의 변화와 친환경 및 도농교류활동이 확산되면서 2000년대 들어 추가·변경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특이점은 대부분이 주민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마을 곳곳에 화훼류위주의 경관식재가 되었고 삼교천 주변에도 벚나무가 식재되었다. 하천의 경우는 경지정리사업을 제외하고는 변화가 적은 편이었다. 그 외에는 기존 논을 습지로 용도 변경하여 마을의 체험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였다. 쉼터에서 발생하는 특징은 기능성 위주의 식재나 공간 활용이 사회적으로 미적가치가 증대되면서 외부인을 고려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다. 또한 환경과 경관에 대한 관심이 마을의 자연환경, 특히 식재부분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문당리 마을의 일터공간은 마을의 산업이 농업에서 소득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관광 산업으로 변하면서 가장 변화폭이 컸다. 1990년대 친환경 농업 도입으로 마을은

친환경 교육의 메카가 되었고 이로 인해 외부 방문객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들을 수용하고 또 다른 소득창출을 위해 체험 및 교육, 숙박시설들을 마을에 설치하면서 중심 산업으로 서비스업이 대두되었다. 공간 변천 특징은 생활 및 생산의 일터가 시장경제성에 기반한 소비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친환경 산업을 문화 측면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을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문화산업화가 진행된다는 것이었다.

[표Ⅳ-21]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문당리 마을 생활공간 변천 내용

구분	삶터			쉼터			일터		
	주거공간	마을 기반공간	공동문화공간	산림	하천	기타	농지	농업시설	소득시설
1970년대 이전	목재와 흙 주택	자갈, 흙길	우물, 정자목, 성황당, 연극	민둥산 붉은 산	모래무지 냇가	-	다랭이논	또랑형 농수로, 농업용 저수지, 우마차	-
1970년대	시멘트담장 함석 및 슬레이트 기와지붕 (=)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새마을회관 (+)	아까시 나무 조림(+)	-	-	-	농로(=)	-
1980년대	불량주택개량 부엌, 목욕탕, 화장실(=)	마을길, 농로 콘크리트 포장(=)	빨래터 우물(-)	-	하천 직강화(=)	-	경지정리(=)	-	-
1990년대	-	마을 진입로, 입구다리 확포장(=)	-	-	-	-	-	-	환경농업 교육관(+)
2000년대	-	등산로 (+) 아스팔트 포장(=)	정보화센터 마을 회관 태양열시설 (+)	마을입구 식재 교육관 식재(+)	-	습지3개소 (+)	-	-	황토건강체험방 환경농업역사관 전통가옥체험관 물놀이장 (+) 유물관 리모델링(=)
특성	‘내부지향적 생활’			‘미적 상징 공간’			‘시장경제 방식’		

*(+): 생성 (=): 변경 (-): 소멸

3절. 소결: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변천 특성 및 영향

본 연구는 농촌정비사업이라는 외발적인 요인이, 현재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농촌마을, 즉 문당리 마을에서 공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마을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자 마을의 공동체와 생활공간의 변천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농촌정비사업은 마을공동체와 생활공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간에는 사업의 성격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화하며 시기적으로 마을과 직·간접적인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마을공간을 개발하는 공동체는 처음 농촌정비사업이 국가적으로 시행된 1970년 새마을운동을 필두로 조직되었다. 이전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의 성격은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 생활조직이었다. 하지만 1970년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등이 조직되었고 마을개발위원회가 생기며 이장을 중심으로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조직들은 각기 기능을 달리하여 마을개발에 힘썼다. 이 조직들은 1980년대까지 주요한 역할을 하며 마을의 기반을 설비하는 사업에 동원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마을의 국가적 지원은 사라지면서 이러한 조직들의 활동은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시기 문당리 마을은 자체적으로 마을리더가 전파한 친환경 산업이 확산되고 있었고 지역산업을 바탕으로 사라져가던 주민공동체가 다시 집결되었다. 이로써 2000년대 농촌 마을가꾸기,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향식 사업들로 전환되며 농촌이 다시 주목받게 됨에 따라 문당리 마을은 강력해진 주민공동체로 사업을 유치하여 현 모습에 이르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1970년 농촌정비사업은 직접적인 조직결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1980년대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조직의 활동을 해체시켰고 2000년에 들어와서는 사업의 성격변화로 공동체와 상호관계를 맺으며 시행되고 있었다.

문당리 마을의 공동체는 1990년을 기점으로 마을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 즉 주민경제공동체, 지역 생산공동체, 환경생태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특징은 2000년대 사업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었다.

주민 자발적 공동체의 경우 2000년대 시행된 사업의 방식과 상호작용한다. 2000년대 사업들은 지역성을 살리고 어메니티 발굴, 독창적인 마을 만들기를 지향하며 상향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신청해야함을 의미하는데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사업유치가 어렵다는 말을 역설한다. 문당리 마을은 이렇게 상향식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 주민공동체가 집결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마을이 발전할 수 있었다. 지역 생산적 공동체는 사업의 목표에 부합한다. 2000년 시행된 대다수의 사업은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농촌 마을이 생산기반시설 없이 소득을 창출하기란 어렵다. 특히 1980년까지는 도로정비, 주택정비만을 투자하다 1990년대에는 군·면단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반적인 농촌마을의 지원은 적었다. 2000년 들어 급속한 변화를 꿈꾸었으나 사실상 소득이 어느 정도 예상되거나 보장되지 않고서는 사업투자는 어려웠다. 하지만 문당리 마을의 경우 지역에 풀무학교를 주축으로 움직이는 생산 공동체가 존재하며 마을의 사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2000년대 사업들도 투자가 가능했다고 보인다. 환경 생태적 공동체는 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전통테마마을사업과 같은 2000년대 사업의 주 내용은 도농교류, 생태환경 및 경관 개선 등으로 환경, 생태, 전통 등을 주요 테마로 농촌을 육성시키고 있다. 문당리 마을은 이미 1990년대 친환경농법을 도입하면서 2000년대 주요 키워드인 친환경을 마을이미지로 육성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사업 시행 전, 외부전문가를 통한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으로 마을개발의 기본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환경농업마을로서 입지를 굳혔다. 이 기본계획서는 마을을 개발하는 지침서로서 상향식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성 퇴색을 방지하고 개발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분석을 종합한 결과 농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촌마을공동체 조직이 결성되거나 해체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00년대의 농촌정비사업 성격이 상향식으로 변화하면서 농촌마을공동체와의 관계가 중요해졌다.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지역의 생산기반이 있는지, 마을만의 테마가 있으며 육성될만한 사업과 마을의 기반시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생활공간은 공간유형별로 나누어본 결과 직접적이며 물리적 변화관계로 생성, 변경, 소멸되었으며 공간에 편의성과 소득차원, 경관개선차원에서는 긍정적, 커뮤니티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왔다. 농촌정비사업은 삶터 공간의 주택 재료를 목재에서 합석·기와·슬레이트 지붕에 시멘트담장, 그 이후에 벽돌로, 크기는 담장을 설치하고 부엌과 화장실을 통합시키며 서양식 주거형태로 확장시켜왔고, 마을길 역시 흙, 콘크리트, 아스팔트, 잔디블록이나 투수콘크리트 재료로 확포장하며 지속적으로 변경시켜왔다. 공동문화공간의 경우에는 외부에 있던 모임공간인 우물과 정자목, 빨래터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모임공간으로 새마을회관과 2000년대 마을회관 같은 시설중심의 공간으로 변경시켰다. 삶터공간에서 보이는 사업의 영향은 다양한 기능들을 수용하는 내부지향적인 생활로 보인다. 내부지향적으로 변하면서 삶터공간은 생활의 편리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주민간의 커뮤니티를 와해시키기도 하고 있다. 쉼터공간은 정비사업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나 산림은 기능성에서 가치 중심으로 목적이 달라졌고 공원형태의 기타 공간들이 만들어졌다. 산림은 빠른 성장을 위해 아까시나무와 같이 수목을 선택하여 식재하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경관과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화훼류를 심고 기존 아까시나무나 잣나무를 간벌하여 정리하였다. 하천은 경지정리사업으로 직강화 된 이후에는 사업이 없었으나 2000년 도농교류사업과 환경개선사업들의 파급효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경관식재를 하였다. 2000년에는 기타 시설로 기존에 없었던 습지와 휴게시설, 소공원들이 조성되었으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들이 생성되었다. 쉼터공간에서 보이는 사업의 영향은 공간이 나타나고 있는

지만 소비자를 위한 공간으로만 이용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는 심미적 상징 공간이 되었다는 점이다. 긍정적으로는 마을의 경관이 개선되었으며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외부 공간이 조성되었다는 것이지만 현재는 소비자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주민의 이용도가 낮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일터공간인 농지는 생산량 증대 목적으로 경지 정리된 후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사과의 확산으로 비닐하우스, 체험장을 개별 운영하며 용도가 바뀌었고, 농업시설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시설들이 대거 신축되었다. 형태와 용도는 1990년대 이전에 주로 변경되었고, 2000년에는 소득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사업의 목적이 소득창출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경제성을 중시하는 사과의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소득시설에 주민이 모두 가입된 상태는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다.

종합해보면 문당리 마을은 주민자발적인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지역생산 및 환경생태 공동체로 마을입지가 확고하나 그와 동시에 공간은 내부지향적인 생활로 주민커뮤니티를 와해시키고 있었으며 외부공간은 외부인을 위한 심미적 상징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소득시설로 마을에 이윤을 가져다주고 있는 일터는 시장경제 방식을 지향하면서 주민간의 소득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를 담고 있었다. 농촌의 커뮤니티 해체에 대한 말이 많으나 공간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부분은 그간의 연구에서 미흡했다. 문당리 마을 연구를 통해 시설위주의 사업, 생활개선차원으로 시행되는 내부지향적인 통합, 소비자를 위한 계획이 아닌 주민을 위한 외부 공간 계획, 편중될 수 있는 소득창출은 문당리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불안한 잠재요소로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Ⅳ-22] 농촌정비사업과 생활공간 간의 상호관계 분석표

시기	생활공간					사업	사업특성		사회상황		영향	
	공간명	생성	변경	소멸	유형		공간 개선	주민 요구	이전 상황	이후 상황	긍정	부정
1970	경관조림	○			쉼터	새마을운동	○		· 주민들은 난방으로 땀감 사용	· 불법 벌목이 성행		○
	농로확장		○		일터	새마을운동	○		· 흙길로 좁고 걷기 불편 · 우마차 사용	· 우마차 이용과 보행 편리해짐	○	
	진입로 포장		○		살터	새마을운동	○		· 냇가에서 공수한 자갈길로 좁고 걷기불편 · 우마차 사용	· 우마차 이용과 보행 편리해짐 · 냇가에서 더 이상 자갈 공수 안함	○	
	새마을회관	○			살터	새마을운동	○		· 소규모로 사랑채, 정자목, 우물터, 빨래터에서 모임	· 새마을회관에서 모이기 시작 · 마을조직 (새마을회, 부녀회 등)생김 · 우물터, 빨래터, 정자목의 모임횟수 감소	○	○
	주택지붕		○		살터	취락구조 개선사업	○		· 건물 노후화로 생활수준이 열악	· 슬레이트, 기와, 합석지붕으로 변경 · 농촌주택 획일화	○	○
1980	경지정리		○		일터	경지정리사업	○		· 다랭이논으로 생산량이 적었음	· 농기계 보급이 마을에 확산 · 경작물 생산량이 기계화로 증가	○	
	하천 직강화		○		쉼터	경지정리사업	○		· 자연형 하천 · 하천에서 세수, 목욕 등 놀거나 활동 ·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사용	· 경지정리의 일환으로 하천정비 · 우물 및 빨래터의 모임기능 사라짐 · 하천접근이 어려워 하천활동 사라짐		○
	빨래터 메움			○	살터	경지정리사업	○		· 빨래터에서 여성들이 모여 수다, 잡담 · 거리가 멀어서 이용의 불편	· 집집마다 관정이 보급으로 생활편리 · 주민모임이 사라짐	○	○
	우물 메움			○	살터	경지정리사업	○		· 우물터, 정자목이 주민의 모임공간 · 우물 이용하는 구역으로 마을인식	· 집집마다 관정이 보급으로 생활편리 · 주민모임이 사라짐	○	○

[표Ⅳ-22] 계속

시기	생활공간					사업	사업특성		사회상황		영향	
	공간명	생성	변경	소멸	유형		공간 개선	주민 요구	이전 상황	이후 상황	긍정	부정
19 80	마을안길 확포장		○		샅터	경지정리사업	○		· 흙길로 좁고 걷기 불편	· 콘크리트 포장으로 보행 편리 · 농기계 및 자동차 사용 확산 · 인근 마을과 연계	○	
	주택개량		○		샅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	○	· 화장실, 부엌 등이 외부에 있어 불편 · 서양식 주거 보급 시작	· 서양식 주거 확산(화장실, 부엌 내부통합) · 콘크리트 담장 생김 · 전통커뮤니티가 단절되기 시작	○	○
19 90	환경농업 교육관 신축	○			일터	환경농업 시범마을 가꾸기사업	○	○	· 친환경산업 활성화로 주민이 환경기금 을 모아 부지 매입하여 법인 설립 · 직접 사업을 신청, 공사에도 참여 · 새마을회관이 노후화되고 규모 작음	· 영농조합법인 운영으로 각종 사업유치 · 도농교류 사업으로 외지인방문 비율이 높아지고 마을의 소득 창출 · 새로운 모임공간으로 기능함	○	
	진입로 확포장		○		샅터	환경농업 시범마을 가꾸기사업	○	○	· 도농교류버스가 마을진입이 어려움	· 버스의 마을 진입이 수월해짐 · 마을주민의 차량진입도 수월	○	
20 00	정보화센터 신축	○			샅터	정보화 시범마을사업	○		· 수도권에 인터넷 보급이 확산 · 도농교류로 수도권과 연계된 마을홍보 필요성 대수	· 외지인 방문 증가 · 마을의 온라인 체계가 생성되면서 홍보 되었으며 마을식품 소득 증가 · 주민에게 컴퓨터 보급 후 교육 시작	○	
	향토건강 체험방 신축	○			일터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	○	○	· 마을 내에는 고령화가 진행 · 도농교류 증대되면서 새로운 소득창출 의 공간 요구, 특히 숙박시설 필요	· 외부인 숙박을 제공하며 새로운 마을 주 요 소득원으로 급부상 · 평상시 마을주민의 모임장소로 활용	○	

[표Ⅳ-22] 계속

시기	생활공간					사업	사업특성		사회상황		영향	
	공간명	생성	변경	소멸	유형		공간 개선	주민 요구	이전 상황	이후 상황	긍정	부정
2000	습지조성		○		쉼터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	○	○	· 21세기 백년계획 영향을 받아 친환경마을이라는 의식 강화 · 도농교류가 증대되면서 연계된 교육 및 체험시설 필요	· 기존 논·밭 기능을 살려 습지로 전환, 농촌체험시설로 이용하여 소득창출 · 주민들이 조성하며 의식 함양 · 짚질방, 물놀이장 정화로 에너지 절약	○	
	조형물 신설	○			일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	· 마을이 유명해지며 홍보 필요	-	-	-
	등산로 확·포장 및 식재	○			삶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	· 기존 흙길에 보행 불편 · 약수터 가는 길로 연계하여 정비	· 등산로 주변 화훼류식재로 경관개선 · 포장 후 차량진입 수월 · 습지, 물놀이장, 편의공간, 약수터를 잇는 체험관광공간 마련	○	
	약수터 복원		○		일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	· 마을의 어메니티 자원으로 가치증대 · 마을에서 도농교류 증가로 체험관광 시설 확대 원함	· 기존 약수터 공간이 경관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체험공간으로 변모	○	
	주차장 설치	○			일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	· 체험시설이용객의 주민생활 방해 · 도농교류 증가로 주차 공간 부족	· 외부인의 주차문제가 해결 · 주차장은 투수성을 고려한 잔디블록포장	○	
	마을정자 설치	○			쉼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	· 마을의 상징성 및 주민건강, 복지증대에 대한 의식 증가	· 마을 내 3개소 정자는 위치적 특성으로 주민이용이 낮고 외부인은 한시적 사용	○	○
	마을회관 신축 (노인회관겸)	○			삶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	· 주민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됨 · 새마을회관 노후화와 규모문제로 교육관에서 기능을 담당	· 공동체 모임이 교육관과 마을회관에 나눠 발생, 노인회가 마을회관에서 모임 · 고령화로 노인회관이 운영 · 겨울철 운영안하며 이용도가 낮은편	○	○

[표Ⅳ-22] 계속

시기	생활공간					사업	사업특성		사회상황		영향	
	공간명	생성	변경	소멸	유형		공간 개선	주민 요구	이전 상황	이후 상황	긍정	부정
20 00	환경농업 역사관 신축	○			일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	· 사업비 부족으로 인테리어가 미완성 되어 사업완료가 필요함	· 교육 및 마을홍보공간으로 역할하며 행 사시 활용 · 교육관, 전통체험관 등과 함께 이용	○	
	물놀이장 신설	○			일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	· 도농교류 증가로 소득시설요구 · 약수터 물 이용 공간 고려	· 소득연계시설로 외부인 방문 증가 및 도농교류에 간접적 영향 · 약수터 물 활용	○	
	전통가옥 체험관 신축	○			일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	· 도농교류 증가로 소득시설인 숙박시설 요구	· 마을소득 창출	○	
	유물관 리모델링		○		일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	· 조항문화재 기부로 유물관을 지었으나 사업비부족으로 내부시설 미완성 및 자 연재해로 유물관 앞 데크 훼손	· 편리한 시설 및 동선이 확보 · 유물관 운영	○	
	태양열시설	○			삶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	· 21세기 백년계획의 영향으로 친환경의 식 고조 및 에너지 절약 필요성 인지	· 찜질방과 교육관에 설치해 난방비 절약 · 외부인에게 교육적 효과, 홍보	○	
	도로확포장		○		삶터	마을경관 조성사업	○	○	· 도농교류 증가하며 교육관까지 버스가 들어왔으나 길 폭이 좁아 이용에 어려 움으로 도청에 지원요청	· 교육관까지 아스팔트 포장이 되며 체험 객을 태운 버스가 마을안쪽까지 진입	○	
	입구 식재	○			쉼터	마을경관 조성사업	○	○	·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 서 주민들이 직접 식재	· 마을입구 수목식재로 경관 및 환경이 개선	○	
	교육관 식재	○			쉼터	마을경관 조성사업	○	○	·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 서 주민들이 직접 식재	· 교육관의 경관 및 환경 개선	○	

[표Ⅳ-23] 공동체와 생활공간 간의 상호관계 분석표

시기	생활공간					사업	사업특성		사회상황		영향	
	공간명	생성	변경	소멸	유형		공간 개선	주민 요구	이전 상황	이후 상황	긍정	부정
19 80	마을정자목			o	삶터	-		o	· 개인소유로 인식하여 팔았음 · 새마을회관이 생김 · 그네, 마을행사, 모임 가짐	· 주민들이 아쉬워함 · 팔리지 않아 떨감으로 사용		o
	상여집			o	삶터	-		o	· 주민의식이 변하면서 불태움 · 상여집에서 장례를 치름	· 장례식장으로 대체 · 장례식비가 많이 나감	o	o
	성황당			o	삶터	-		o	· 주민의식이 변하면서 없앴 · 성황당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음	· 교회등장	o	o
19 90	축사	o			일터	-		o	· 친환경농업 선순환으로 축사생성	· 지역생산물 증가로 도농교류에 간접적 영향 · 하천오염 심각	o	o
	오리집	o			일터	-		o	· 오리농법 도입	· 지역홍보와 행사 유치	o	
20 00	RPC공장	o			일터	-		o	· 유기농쌀과 일반쌀 분류에 어려움 · 인구감소, 고령화로 농사짓기 어려움 · 마을주민이 지음	· 유기농쌀 분류, 저장 및 가공 · 방앗간 사라짐 · 주민 운영이 어려워 농협에 이관	o	
	농촌생활유물관	o			일터	-		o	-	· 조항문화재 기부 후 체험시설과 연계	o	
	비닐하우스		o		일터	-		o	· 농경지로 사용	· 밭 체험장으로 소득창출	o	
	체험장		o		일터	-		o	· 개인소유의 농경지, 밭 사용	· 체험시설과 연계하여 소득창출	o	
	갯나무관리		o		쉼터	-		o	· 숲이 울창하나 생장 불량으로 관리 요망	· 갯나무 간벌	o	
	홍동천 식재	o			쉼터	-		o	· 풀무신협에서 지원	· 지역 이미지와 경관 개선, 홍보효과	o	
	방앗간			o	일터	-		o	· 친환경 산업으로 방앗간 이용 감소 · RPC공장 신축 및 개인 탈곡기 이용	· 창고로 전환	-	-

	공간개선	주민요구 + 공간개선	주민요구
구분			
1970	일터 • 농로확장 농업시설 쉼터 • 경관조림 산림 삶터 • 주택지붕 주거공간 • 진입로 포장 마을기반 • 새마을회관 공동문화		
1980	일터 • 경지정리 농지 쉼터 • 하천직강화 하천 삶터 • 마을안길확포장 마을기반 • 빨래터메움 공동문화 • 우물메움 공동문화	삶터 • 주택개량 주거공간	삶터 • 마을정자목 • 상여집 • 성황당 공동문화
1990		일터 • 환경농업교육관 소득시설 삶터 • 진입로 확포장 마을기반	일터 • 축사 신축 • 오리농법 • 관련시설(오리집) 농업시설
2000	삶터 • 정보화센터 소득시설	삶터 • 마을회관 신축(노인회관 겸) • 태양열 시설 공동문화 • 도로확포장 마을기반 일터 • 황토건강체험방 신축 • 환경농업역사관 신축 • 전통가옥체험관 신축 • 유물관 리모델링 • 물놀이장 신설 • 주차장 설치 • 조형물 신설 소득시설 쉼터 • 습지조성 • 마을정자 설치 기타 • 입구 식재 • 교육관 식재 산림	일터 • RPC 공장(정미소) • 방앗간 소멸 • 비닐하우스 설치 • 체험장 설치 농업시설 쉼터 • 잣나무 관리 • 홍동천 식재 산림 하천

[그림Ⅳ-8] 농촌정비사업과 생활공간의 관계성

V. 결론

농촌마을은 새마을운동 이후 2000년대까지 압축 성장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어왔다. 1970년대 경제발전과 함께 생겨난 도시와의 소득격차는 농촌공간을 수요보다는 공급에 초점을 맞추게 하였으나 1990년대 어느 정도의 양적 확충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지역 활성화와 농촌생활의 질적 가치 증대에 대한 중요성으로 논의의 대상이 전환되었으며 이는 정책 사업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공간에 투영되었다. 특히 본 연구가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문당리 마을은 대상지가 가지는 특징적인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1970-80년대 하향식 사업부터 1990-2000년대 상향식 사업까지 아우르는 사업 스펙트럼을 지녔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사업내용들을 자체적으로 소화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농촌마을과 그 결을 달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및 지자체 등에 의해 추진되어 왔던 농촌정비사업을 내부적으로 소화한 문당리 마을의 양상, 즉 공동체와 생활공간의 변천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농촌정비사업과 마을공동체 및 생활공간간의 상호관계성을 파악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농촌공간뿐 아니라 나아가 농촌경관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추후 지역성을 고려한 농촌정책사업 시 참고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문당리 마을의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천에 대하여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지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상하향식 사업이 두루 시행되었으며 외발적 요인인 농촌정비사업을 마을이 자체적으로 소화해나가며 지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평가받는 절충형 개발사례인 충남 홍성 문당리 마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적 사업범위는 지역사회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로, 사업검토범위는 새마을운동 이후 정부부처에서 시행한 사업들로 한정하였다. 1958년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최초의 마을단위 사업이기는 하나 사실상 새마을운동에 흡수되었고 공간변화를 다루는 건축, 도시, 조경 분야의 많은 선행 연구자들 역시 1960년대까지를 전통농촌마을 양식의 지속으로 보고 새마을운동 이후를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자 물리적인 변화

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말하고 있으며⁴⁹⁾ 문당리 마을의 첫 정부사업이 새마을운동이기 때문이다.

연구는 인간의 삶과 환경 간에는 상호 작용이 존재한다는 문화생태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며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생활상과 공간 변화 그리고 그 영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방법은 사업보고서 및 관련서적과 현지조사, 주민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항공사진 및 지도, 현장사진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마을조사·분석에 앞서 농촌관련정책 및 정비사업, 농촌 공동체, 생활공간, 문당리 마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농촌정비사업이 농촌의 공동체와 생활공간을 물리적·비물리적으로 변화시킨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다수의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농촌공간의 변화가 주민생활에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상호관계성을 파악하면 주민의 삶을 읽을 수 있고 적절한 사업적, 공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 및 생활공간에 관련된 변화요인도 알 수 있었다. 공동체와 공간은 내·외발적 요인들인 농촌정비사업, 사회 환경, 마을리더와 마을기본계획서, 친환경 농업, 주민협력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자료 분석의 틀을 만들고 조사·분석하여 문당리 마을의 일반적인 변천 양상을 찾아내었다. 변천양상은 물적·비물적 환경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마을길 확포장, 건물생성과 방향, 크기 등의 공간 및 물적 요인들이 변화하고 있었으며 인구구성, 지역산업, 조직 활동과 같은 비물적 환경들도 변화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주민의식과 물적 공간상에서 마을영역이 확장되고 있었으며 시기 별로 농촌정비사업이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가 이동하고 있었다. 여기서 마을변천의 내용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내외적 공간변화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농촌정비사업이 공간내용, 기능, 활동 면에서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절충적 개발사례인 문당리 마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천 특성에 임하였다.

49) 이명진(2007)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발전방안에서 새마을운동이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라 명시한바 있다.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변천 특성에서는 절충형 농촌개발에서의 사업과 공동체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문당리 마을이 어째서 사업시행결과가 우수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대상마을은 사업과 공동체 간에 시기적, 내용적 관련성을 가지며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마을공간에 관여하는 공동체는 1970년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조직되었다. 이전 두레, 대동계와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이 있었으나 체계적이 못해 1970년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새마을지도사회, 새마을부녀회 등이 조직되었고 집중적인 마을개발을 하였다. 이장의 의결기구로 마을개발위원회도 형성되었으며 이 조직들은 1980년대까지 주요한 역할을 하며 마을의 기반을 설비하는 사업에 동원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마을의 국가적 지원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조직들의 활동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시기 마을에 마을리더가 전파한 친환경 산업이 확산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주민공동체가 다시 활성화되었다. 그로 인해 2000년대 강력해진 주민공동체로 다수의 상향식 사업을 유치하여 현 모습에 이르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1970년 농촌정비사업은 직접적인 조직결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1980년대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조직의 활동을 해체시켰고 2000년에 들어와서는 사업의 성격변화로 공동체와 상호관계를 맺으며 시행되고 있었다. 내용에 있어 문당리 공동체는 1990년을 기점으로 급변하며 나타난 세 가지 특징, 즉 주민 자발적 공동체, 환경 생태적 공동체, 지역 생산적 공동체가 2000년대 농촌정비사업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첫째 혁신주체의 노력과 자발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소득중심의 주민 자발적 공동체는 2000년 상향식 사업의 방식과 상호작용하였으며 둘째, 친환경농업과 도농교류활동으로 특화된 마을의 환경 생태적 공동체는 사업의 내용과 일치하며 사회적 현상인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주5일제 여가생활을 반영하여 환경, 생태, 관광을 테마로 하는 사업들을 유치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셋째, 풀무학교와 지역생산조직으로 구성된 풀무기관중심의 지역 생산적 공동체는 소득창출이 목표인 사업에 안정성을 제공하여 유치할 수 있었다.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생활공간은 공간유형인 삶터, 쉼터, 일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삶터공간에서는 사업이 주택 재료와 크기에 영향을 미쳐 공간을 통합시키며 서양식 주거형태로 확장시켜왔고, 마을길 역시 재료와 크기를 확·포장시키며 변경시켜왔다. 공동문화공간의 경우에는 외부에 있던 모임공간인 우물과 정자목, 빨래터들을 소

멸시키고 새로운 모임공간으로 새마을회관과 마을회관 같은 시설로 변경시켰다. 이 내용에서 보이는 종합적인 사업의 영향은 다양한 기능들을 수용하는 내부지향적인 생활로 변모시켰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생활의 편리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어려워져 주민간의 커뮤니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쉼터공간에서 산림은 기능성 식재에서 미적 가치 증대차원의 식재로 화훼류를 심게 되었고 하천에도 영향을 미쳐 주민 자발적으로 경관식재를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밖에 2000년대 주민복지를 위한 습지와 휴게시설, 소공원들이 생성되며 이용을 위한 쉼터들이 생성되었다. 쉼터는 주민을 이용자로 볼 때 정비사업의 영향으로 미적 상징 공간으로 변했다고 보인다. 사업상 마을의 경관이 개선하였고 주민을 위한 외부공간이 조성되었지만 현재 소비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민이용이 낮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터공간은 시장경제 방식을 지향하면서 농지가 용도를 변경하고 소득시설들이 다량 추가되었다. 농지에는 비닐하우스, 체험장 등이 생겼으며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 식사를 위한 소득시설들이 신축되었다. 이는 농촌 근대화로 시행된 소득창출에 집중한 사업의 영향이라고 보인다. 시장경제체제가 확산됨은 이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주민들 간의 내부적인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2000년대 농촌정비사업의 성격이 상향식으로 변함에 따라 사업계획 시 마을공동체와의 상호보완적, 협력적 관계가 사업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요하며 그 밖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 여부, 지역의 생산체계 확립, 마을의 지역성과 육성될만한 사업, 기반시설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마을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동체와 사업 간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이라 하더라도 사업이 시행됨에 있어 시설 위주의 사업, 생활개선차원으로 시행되는 내부지향적인 통합, 주민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외부 공간 계획, 편중될 수 있는 소득창출은 최대한 지양해야 농촌커뮤니티를 존속할 수 있을 것이라 보였다. 사업양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민요구를 반영하는 편이었는데 그 중 주민요구가 컸던 시설은 농업생산시설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었고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공간이 환경농업교육관과 마을회관이라는 점에서 모임 장소에 대한 주민요구도가 커졌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외부공간에도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성되고는 있지만 아직 이용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공간 형성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이전에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체성을 높이는 사업이나 도움이 되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사업과 주민공동체는 상호협력적인 관계로서 시너지 작용을 하기 때문이며 주민공동체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목적성을 상실한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마을사업과 더불어 지역과 마을에 생산기반체계가 육성되어 있어야 한다. 마을개별적인 사업투자는 존속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마을 단위 사업 이전에 군·면단위 연계기관을 육성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에도 주민공동체를 하나로 결성하고 지역조직과 긴밀한 체계를 갖추는 조직결성이 필요하다. 문당리 마을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마을개발에 일관된 다수의 사업을 유지시켰다. 이 조직이 마을개발의 촉매제가 되었다고 보였다. 셋째, 마을만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당리 마을의 경우 지역과 마을의 친환경기반이 있어 환경생태 농업마을의 입지가 있기는 했으나 그 내용은 마을의 지침기능을 하는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서에서 극대화되었다. 마을계획의 일관성을 수립해준다는 점에서 마을기본계획서를 제언한다. 넷째, 사업실행 시 공간계획은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 없이는 마을도 없기 때문에 시설의 집중, 내부지향적 형태, 소비자를 위한 외부공간계획보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형태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주민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는 이윤배분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업내용에 있어 유연하게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에 들어 상향식으로 사업이 변하고 주민이 사업을 신청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주민의 필요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좀 더 유연한 사업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농촌공간은 주민관심도와 사업시행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농촌공간은 한번 변화면 쉽게 재편되기 어렵고 생활에 영향을 미쳐 주민의 관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농촌 정비사업 시행 시 올바른 배치와 활용을 위해 공간계획 이전에 있어 마을공동체와 주민이용 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을의 인적자원과 산업, 조직 및 활동, 지역과의 관계, 주민의 요구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후에 상호협력적

인 공간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최근 농촌사업의 전략을 지속가능한 농촌사회개발에 두고, 농촌이 도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장점을 살리고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지인 문당리 마을의 내·외발적 변화요인 간의 상호작용과 변천과정을 살펴본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시행된 사업의 공간적 영향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상지의 특수성에서 절충형 발전의 알고리즘을 파악할 수 있다. 하향식부터 상향식까지 두루 시행된 사업들에 의해 변화된 마을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농촌계획의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 공간을 생활학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부족한 학계 상황에서 마을의 공동체와 생활공간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변화의 시계열적 고찰과 미시적인 공간조명은 향후 농촌 관련 기초 자료 구축과 공간 형성 및 변화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연구의 대상이 하나라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성급히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점과 공간변화를 조사하는 부분에서 주민 인터뷰 결과에 많은 부분 의존하여 도출했기에 기억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농촌정비사업과 공동체, 생활공간 간의 상응관계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변천 과정을 파악하여 조경학적 의미를 확장하였다는 점, 인문·사회·경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농촌을 해석하고자 했다는 점, 미시적으로 농촌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가시적으로 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인용문헌

- 강영은 (2012), 한국 농촌경관 변천 특성 연구: 1950년대 이후 농촌개발사업의 경관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용배 (2004), 농촌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사례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8(4): 5-30
- 강정원 (2009), 마을공동체 세시의 쇠퇴: 서울 인근의 한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2(2): 3-34
- 국제농촌개발협력사업단 (2011), 농촌개발 협력 프로그램 연구보고서
- 권승문 (2011), 농촌지역의 발전 사례에 관한 연구: 충남 홍성군 홍동면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강섭과 이상정 (2004),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변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6(3): 1-14
- 김강섭과 이상정 (2006),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2(2): 3-10
- 김정량 (2007), 한국농촌의 비전과 과제, 한국농업경제학회 학술대회 연구보고
- 김정량, 김지용 (2005), 지역농정의 현상과 과제, 농업경제연구 46(1): 61-83
- 김덕현 (1987), 최근 한국촌락의 경관변화에 대한 이해: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경남문화연구 10: 13-35
- 김백준 (2000), 마을공동체의 생태 친화적 재구성과정에 관한 연구: 문당리 마을공동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범과 이상정 (2006), 농촌마을 공유공간의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진주시 취락구조개선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3): 1-14
- 김석규와 이상정 (2000), 농촌마을 공유공간의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진주시 취락구조개선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3): 1-14
- 김수진, 정해준, 심우경 (2007), 전통마을 공동체적 공간의 의미해석: 전남 영광군 효동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전통 조경학회 25(3): 94-105
- 김수진, 박정임, 심우경 (2010), 전통마을 공동체 공간의 문화경관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4): 14-27
- 김승근 (2005),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충북 감곡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7(3): 19-26
- 김영민 (2001), 퍼머컬처 원리를 적용한 농촌마을의 환경계획: 충남 홍성군 문당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근, 조중현, 심정선 (2008), 농촌마을 공동상업 운영상 야기되는 갈등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6(3): 1-8
- 김용렬, 박시현, 이동필, 성주인, 신은정, 최경은 (2006),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전략: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방안 연구보고
- 김주원 (2003), 인센티브형 상향식 농촌개발전략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대한 국토도시학회지, 38(4): 103-121
- 김진일 (1980), 농촌취락과 생활공간에 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지 24(4): 3-10
- 김충식과 유주은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경관형성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5(3): 11-22
- 농림부 (1987),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농림부 (1999), 한국농정50년사
- 농림부 (2010), 통계연보
- 농촌진흥청 (1978), 농촌지도사업전개과정
- 농촌진흥청 (2006), 농촌 어메니티 자원도 관리 및 활용 기술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생태문화관광 육성을 위한 관광프로그램 운영 사례연구: 지역의 녹색관광 활성화
- 박진도 (2007), 참여정부의 농촌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전국지역리더대회
- 박한식, 황길식, 김영택 (200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내용분석과 시사점: 01-07년 사업대상지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 14(4): 121-128
- 송미령 (2006),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5: 340-341
- 송미령 (2007),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전략과 과제, 열린 충남 37: 148-151
- 송미령, 박시현 (1999), 환경 친화적 농촌마을 정비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중진, 송승현 (2008),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민약속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10): 193-202
- 심근정, 강신용, 김수봉, 김용수 (1999), 농촌지역 노거수의 변천과정과 보전대책, 환경과학논집 4(1): 79-95
- 양병이, 이관규, 송병화 (2002),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문당마을 백년계획수립,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2): 307-316
- 양병찬 (2008), 농촌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충남 홍동 지역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교 14(3): 129-151
- 엄인섭, 김종인 (1991), 농촌주민의 주생활공간평가(II): 가설검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11(1)

- 예용광 (2003),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나타난 마을 및 주거 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1980년대 경기도 충북지역의 우수마을로 선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갑식 (2006),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3)
- 윤상우 (2007),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와 도농문제: 성찰과 전망, 지역사회학, 9(1): 5-40
- 이만갑 (1973), 한국 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진 (2007),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발전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기 (2006), 농촌정책의 전개와 평가, 서울: 보성각, pp49-85
- 이상현 (2004), 계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활성화 방안, 민속연구 13: 71-94
- 이시영과 심준영 (2000), 한국농촌 주거경관의 변화 양상: 1920-1990년대까지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8(1): 32-42
- 이정덕 (2003), 지역축제가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연구, 5(2): 261-279
- 이종수 (2008), 지역 공동체와 주민조직, 자치행정 249: 11-13
- 이영애 (2007), 아파트 단지 내 사이버 공동체 콘텐츠 유형화와 거주자 평가,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해진 (2009),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사례로, 농촌사회학회지 19(1): 7-47
- 임승빈 외 (1996), 농촌주택과 마을의 주거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2차년도 보고서, 농촌생활연구소
- 임은진 (2010), 지속가능한 촌락에 대한 고찰: 충남 홍성 문당리를 사례로, 한국사지리학회지 20(3): 61-72
- 정기환 (2002),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의 방향, 농정연구센터 논집 2:113-153
- 정다영 (201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촌마을 공간 구성,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웅 (1984), 한국의 농촌: 그 구조와 개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지웅 외 (1992), 농촌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262
- 조정현 (2009), 공동체신앙의 축제화를 통한 마을 활성화, 민속연구 18: 201-228
- 조준범과 최찬환 (1999), 농촌마을 개발제도의 변천과 농촌마을에 대한 영향, 한국농촌건축학회지논문집 1(2): 109-117
- 조진상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구례방광권역 주

- 민소득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5(4): 109-124
- 조혜정 (1981), 농촌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와 문화 4: 121-135
 - 채혜원, 홍형옥 (2002),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33-44
 - 최승호 (2009),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발전 방안 모색- 충남 홍성군 홍동 풀무마을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9(1): 237-268
 - 최영완, 윤용철, 김영주 (2010), 농촌마을정비 시 농촌공간특성별 정비유형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6(2): 1-10
 - 최재권 (2002),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 문화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재율 (2009), 농촌사회학, 서울: 유풍출판사
 - 최효승, 임금화, 김태영 (2007), 두만강 북안 조선족 농촌마을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대한건축학회지 23(11): 19-28
 - 충남발전연구원(200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충남발전연구원(2010), 충청남도 농어촌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한마음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방안
 - 한경혜, 김주현, 강혜원 (2005),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마을의 특성과 노인들의 상호작용: 강원도 지역 3개 마을 사례연구, 농촌사회 15(2): 85-13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5),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연구보고
 - 한필원과 이광노 (1990), 농촌마을 공간구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북 금릉군 구성면 상원리 원터마을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3): 105-112
 - 허영숙 (1997), 아파트 거주가구의 주생활양식 유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환경농업마을 (2000),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
 - Dennis E. Poplin (1979), Communities :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Macmillan Publishing Co. Inc. New York, pp.1- 25
 - George A. Hillery Jr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 R ural Sociology ,20(2), pp.111- 123
 - Lewis (1979), Axioms for reading the landscape: some guides to the American scene. Meining, D.W(ed),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orton, W.(1989), Explanations in the understanding of landscape: a cultural geography. 이진, 최영준(역), 문화지리학 원론, 서울: 법문사, 1994

〈홈페이지 및 기타〉

-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 국토 공간 영상정보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http://air.ngii.go.kr/>)
-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1966/ 1977/ 1984/ 1996/ 2010년) 및 지도 (1:5000/ 1:25000/ 1:50000)
- 나라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
- 농림수산물식품부 (<http://www.mifaff.go.kr/>)
- 농촌경제연구원 농업통계 (<http://krei.re.kr/kor/statistics>)
- 문당환경농업정보화마을 (<http://mundang.invil.org/>)
- 문당환경농업정보화마을 가을걷이 나눔의 축제 사진전, 2012년 10월 4일
-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 정보공개시스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계획서 (2012)
- 정보공개시스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서 (2004)
- 정보공개시스템: 정보화시범마을 사업계획서 (2002)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문당환경농업정보화마을 환경농업역사관 전시자료
- 문당환경농업정보화마을 환경농업교육관 소장자료
- 홍성군 (1999), 홍성군 통계연보
- 홍동면사무소 (2012), 통계자료
- 홍동면지 편찬위원회 (1994), 홍동면지, 홍동면
- 홍성 옛 모습 사진공모전, 이미지검색일: 2012년 10월 10일
(<http://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94>)
- 이미지검색일: 2012년 10월 10일 (<http://blog.ohmynews.com/jeongwh59>)

■ 부록 (자료조사표)

[자료조사표]

시기			1972				1978	
외발적 요인	농촌 정비 사업	관련사업	· 새마을운동 (지붕개량, 담장보수, 소하천개보수, 농로, 마을안길 확포장, 사방, 조림)				· 취락구조개선사업 (주택 신축·개축)	
		정책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사회 환경	·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기초생활환경수준 열악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내발적 요인 및 비물적 변화양상	인구구성		· 13개 성 혈연구성				· 13개 혈연구성, 풀무학교 출신 마을리더	
	지역산업		· 일반벼농사				· 일부 유기농업	
	조직 활동	조직명	·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정농회	
		활동	·주민동원	-	·주민동원	·주민동원	·주민동원	-
물적 변화 양상	쉼터	생성	아까시나무					
		변경						
		소멸						
	일터	생성						
		변경				농로		
		소멸						
	삶터	생성		마을회관				
		변경			진입로, 마을 안길 콘크리트 확포장		함석, 슬레이트, 기와 지붕 개량	
		소멸						마을정자
동반변화	생성	-	-	주택	-	기왓공장	-	
	변경	-	-	-	-	주택	-	
	소멸	-	-	-	-	초가집, 나래지붕	-	
	인근 시설	소나무	진입로	수로, 주택	농수로, 논	-	우물, 공동마당	
기능변화	이전 기능	떨감	-	보행, 우마차	농지에 관수	비막이	모임	
	현재 기능	조림	모임, 행사주최	보행, 우마차	농지에 관수	비막이	-	
주민 활동			밤에 떨감	-	-	-	-	
근거			구술	현장, 구술, 지도	구술, 지도	구술	현장, 구술, 지도	구술

[계속]

시기			1979-1983 (추정)					
외발적 요인	농촌 정비 사업	관련사업	· 경지정리사업 (농경지 교환, 변형, 개간·배수·관개 설비 개량)					
		정책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2-1986)					
	사회 환경		·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 기초생활환경수준 열악 ·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 버스 운행* · 관정보급					
내발적 요인 및 비물적 변화양상	인구구성		· 13개 혈연구성, 풀무학교 출신 마을리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작					
	지역산업		· 일부 유기농업					
	조직 활동	조직명	·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정농회					
		활동	-	-	-	-	-	-
물적 변화 양상	쉼터	생성						
		변경	하천 직강화					
		소멸						
	일터	생성			교량 설치			
		변경	경지정리					
		소멸						
	삶터	생성						
		변경					마을길,안길 확포장	
		소멸						
동반변화	생성		-	교량	길	빨래터 상하수도	우물 관정	-
	변경		농로, 길, 하천	논, 농로, 길	-	-	-	주택
	소멸		빨래터	보, 빨래터	자연석다리	-	-	-
	인근 시설		진입로, 하천 (화신리 방향)	논 (삼교천)	-	하천 (삼교천2개)	정자목 (석은터3개)	수로, 주택
기능변화	이전 기능		농업생산	세수, 목욕, 농업용수	보행	빨래, 모임	식수, 모임	보행, 우마차
	현재 기능		농업생산	농업용수	보행, 차	-	-	보행, 우마차, 차, 농기계
주민 활동			용대기, 두레			대화, 잡담	대화, 잡담	
근거			지도, 기사, 구술	지도, 구술	지도, 구술	선행연구, 구술	선행연구, 구술	산행연구, 지도

[계속]

시기			1989	1992		1993		
외발적 요인	농촌 정비 사업	관련사업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불량주택 개량, 부엌, 목욕탕, 화장실)	· 정주기반 촉진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취락, 도로 정비, 개발 택지조성, 문화복지시설, 용수·배수 개발) (복지회관, 노인정, 놀이터, 상하수도, 도로, 오페수 정화시설)				
		정책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오지개발촉진법(1988) · 제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7-1991)·도서개발촉진법(1986)	· 농어촌발전특별법(1990)·지방자치제 본격화(1991)·지방잉여금제도(1991) · 농어촌구조개선대책(1991)	· 신농정5개년 계획(1993)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사회 환경		· 자동차 확산·도농 격차 증가·문화복지 요구증가	· 친환경 농산물 수요증가 · 사회형평과 지역균형개발 · UR 시장개방 · 농촌자연과 도시편리성 조화 요구				
	인구구성 지역산업		· 풀무학교 출신 마을리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진행					
내발적 요인 및 비물적 변화양상	조직 활동	지역산업	· 유기농업 확산			· 오리농법 시작		
		조직명	·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정농회			·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정농회, 유기농업 생산자회		
물적 변화 양상	쉽터	활동	-			-		
		생성						
		변경						
	일터	소멸						
		생성				축사		
		변경						
	삶터	소멸				오리농법		
		생성	양옥집			방앗간 RPC 공장		
		변경						
동반변화	소멸	생성	-			축사, 오리집		
		변경	길			-		
		소멸	-			-		
	인근 시설	함석, 기화, 슬레이트 지붕			새마을회관 어린이집	-		
기능변화	이전 기능	-			-	벼농사		
	현재 기능	가옥			사육	유기농 농사		
주민 활동			-			-	체험활동, 행사	
근거			기사, 구술			현장, 구술, 지도	현장, 구술, 지도	현장, 구술, 인터넷

[계속]

시기			1999	2000
외발적 요인	농촌 정비 사업	관련사업	· 정주기반 촉진사업 · 문화마을조성사업 · 환경농업시범마을 가꾸기사업 (취락, 도로 정비, 개발 택지조성, 문화복지시설, 용수·배수 개발) (복지회관, 노인정, 놀이터, 상하수도, 도로, 오페수 정화시설)	· 환경농업시범마을 가꾸기사업 ·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
		정책	· 준농림 제도 시행(1994), · 농어촌정비법(1994),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000-2020)
	사회 환경		· 친환경 농산물 수요증가 · 사회형평과 지역균형개발 · UR 시장개방·농촌자연과 도시편리성 조화 요구	· 국민 가치분 소득 향상 · 주5일 근무제 도입 · 농촌경관의 수요 증가 · 신자유주의 · 초고속교통 및 정보망 형성 · 귀농, 귀촌 증대 · 마을가꾸기 사업 증대
내발적 요인 및 비물적 변화양상	인구구성		· 풀무학교 출신 마을리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진행, 귀농	
	지역산업		· 유기농업	
	조직 활동	조직명 활동	·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정농회, 유기농업 생산자회, 영농조합법인	
물적 변화 양상	쉼터	생성		·환경자조금 형성
		변경		
		소멸		
	일터	생성		환경농업교육관(식당, 강당, 숙소, 마을정보센터)
		변경		
		소멸		
	삶터	생성		진입로 및 입구다리 확장
		변경		
		소멸		
동반변화	생성	환경농업교육관	가로수, 아스팔트	체험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변경	-	수로, 뚝	도로
	소멸	-	-	산림
기능변화	인근 시설	방앗간, 어린이집, 진입로	환경농업교육관	교회, 유물관
	이전 기능	모임, 행사주최	보행, 차	-
	현재 기능	마을 공동 창고	보행, 차, 버스	교육, 모임, 행사주최, 휴식, 체험
주민 활동		-	-	주민 모임의 장소
근거		지도, 보고서, 구술, 현장	지도, 구술, 현장	지도, 현장, 구술

[계속]

시기			2002		2003		
외발적 요인	농촌 정비 사업	관련사업	· 환경농업시범마을 가꾸기사업 ·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		· 정보화시범마을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 (컴퓨터 보급 정보화시설센터 설치) (마을경관정비사업, 생활편의시설조성, 농촌체험기반시설)		
		정책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000-2020)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000-2020)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2003) · 농업, 농촌 종합대책 (2003)		
	사회 환경		· 국민 가처분 소득 향상 · 주 5일 근무제 도입 · 농촌경관의 수요 증가 · 신자유주의 · 초고속교통 및 정보망 형성 · 마을가꾸기 사업 증대 · 귀농, 귀촌 증대				
	인구구성 지역산업		· 영농조합법인 마을대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진행, 귀농 · 유기농업				
내발적 요인 및 비물적 변화양상	조직 활동	조직명	·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정농회, 유기농업 생산자회, 영농조합법인				
		활동	· 조항문화재 기부	· 주민 건립	-	-	-
물적 변화 양상	쉼터	생성					습지(3개소)
		변경					
		소멸					
	일터	생성	농촌생활 유물관	환경농업정미소		황토건강체험방	
		변경					
		소멸					
	삶터	생성			컴퓨터 보급		
		변경					
소멸							
동반변화	생성		-	길	마을정보센터	주차장, 습지	정자, 의자
	변경		도로	-	-	도로	길
	소멸		산림	방앗간, 산림	-	산림	-
	인근 시설		환경농업교육관	다살림 공장	환경농업교육관 내, 교회, 유물관	전통가옥체험장, 마을 회관, 환경농업역사관	물놀이장, 찜질방, 교육관
기능변화	이전 기능		-	-	-	-	논
	현재 기능		전시	식품 가공, 저장	주민교육, 홍보	모임	오수 정화, 교육
주민 활동			-	-	행사주최	-	랜드마크, 휴식
근거			현장, 보고서	현장, 보고서, 구술	현장, 보고서, 구술	현장, 보고서, 구술	현장, 보고서, 구술

[계속]

시기			2004					2007	
외발적 요인	농촌 정비 사업	관련사업	· 농촌종합개발사업 1단계 ·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철거,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공동육묘, 공동저장, 집하시설, 프로그램)						
		정책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000-2020)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4)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						
	사회 환경		· 국민 가처분 소득 향상·주5일 근무제 도입 · 농촌경관의 수요 증가·신자유주의 · 초고속교통 및 정보망 형성 ·마을가꾸기 사업 증대 · 귀농, 귀촌 증대						
	인구구성		· 영농조합법인 마을대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진행, 귀농, 외국인						
내발적 요인 및 비물적 변화양상	지역산업		· 유기농업						
	조직 활동	조직명	·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정농회, 유기농업 생산자회, 영농조합법인						
		활동	-	-	-	-	-	-	· 주민자발
물적 변화 양상	쉼터	생성							
		변경							
		소멸							잣나무 관리
	일터	생성	환경농업역사관	물놀이장	등산로	전통가옥체험관	조형물	마을회관	
		변경							
		소멸							
	삶터	생성							
		변경							
소멸									
동반변화	생성		-	습지, 물레방아, 의자, 정자	-	-	-	노인정	-
	변경		도로	안길 포장	약수터	-	-	-	-
	소멸		산림	-	-	산림	-	새마을회관	-
	인근 시설		황토건강체험방 전통가옥체험관 마을회관	축사	물놀이장, 농가주택	황토건강체험방 환경농업역사관 마을회관	환경농업교육관 환경농업역사관 마을회관 등	황토건강체험방 환경농업역사관 전통가옥체험관	소나무림
기능변화	이전 기능		-	-	주민보행	-	-	-	조림
	현재 기능		교육	체험, 놀이	관광, 보행	교육, 체험	장식	노인 모임	경관 조림
주민 활동			-	-	-	-	-	모이지 않음	-
근거			현장, 보고서	현장, 보고서	현장, 구술	현장, 보고서	현장, 보고서	현장, 보고서	현장, 구술

[계속]

시기			2009				
외발적 요인	농촌 정비 사업	관련사업	· 마을경관조성사업 ·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 문당리 농촌종합개발사업 2단계 · 환경개선사업(도) ·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전기통신시설, 조정, 부지정리, 주택건축, 농장농원, 마을회관) (테마별 관광사업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복지시설 확충)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철거,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공동육묘, 공동저장, 집하시설, 프로그램)				
		정책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000-2020)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4)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				
	사회 환경		· 국민 가처분 소득 향상·주5일 근무제 도입 · 농촌경관의 수요 증가·신자유주의 · 초고속교통 및 정보망 형성 ·마을가꾸기 사업 증대 · 귀농, 귀촌 증대				
내발적 요인 및 비물적 변화양상	인구구성		· 영농조합법인 마을대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진행, 귀농, 외국인				
	지역산업		· 유기농업 확장, 우렁이 농법포함(250만평)				
	조직 활동	조직명 활동	·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정농회, 유기농업 생산자회, 영농조합법인				
물적 변화 양상	쉼터	생성	마을 입구 식재 (배롱, 철쭉, 영산홍)	교육관 식재 (소나무, 단풍나무)	-	-	-
		변경					
		소멸					
	일터	생성				나무계단	
		변경					
		소멸					
	삶터	생성			태양열 시설		
		변경					아스팔트 도로
		소멸					
동반변화	생성	-	-	-	-	-	
	변경	-	-	*	-	수로, 뚝	
	소멸	-	잣나무	-	산림	-	
	인근 시설	하천, 진입로	교육관, 유물관, 체험장	교육관, 유물관	교육관, 체험장	교육관, 유물관	
기능변화	이전 기능	보행, 차, 버스	-	-	-	보행, 차	
	현재 기능	보행, 차, 버스, 입구성	경관 조립	교육, 난방	보행, 휴식	보행, 차, 관광버스	
주민 활동		-	-	-	랜드마크	-	
근거		현장, 구술	현장, 구술	현장, 보고서, 구술	지도, 현장, 보고서, 구술	현장, 지도, 구술	

**A Study on Changing Process of Community
and Spatial Structure by Rural Development Project**

: A Case Study of Mundang-ri, Hongsung Country, Chungnam Province

Myeong-eun Ha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Jong-sang Sung

The present study consider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rojects, communities and space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the communities and life space in farming villages and by focusing on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s as an extrinsic factor among the major factors having dominant effects on farming villages with a view to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spatial formation and modernization in rural communities. The analysis is conducive to breaking away from the established physical and static methods of approach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favor of dynamic aspects of spatial changes in rural areas so as to understand overall space and landscape of farming villages. The site selected for this study is Mundang-ri village in Hongsung Chungnam, where they have embarked on multiple projects and engaged actively in resident communities, as a case of crossover rural area development. This study focused on the period since the government-led Saemaeul Movement project implemented in the village. The findings of this study on the case of Mundang-ri village indicate how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crossover development efforts have worked for residents' living and space beyond simple physical changes and how the village has dealt with the projects internally for further development.

This study i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ecology that human life and environment are interrelated with each other. As for study methods, project reports and relevant books were reviewed and field surveys and resident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data collection. Also, aerial photographs, maps and site images were used for verification so as to take approaches as substantial as possible and to derive visible and tangible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erived in terms of two aspects: that i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life space and communities in the village and resultant effects on residents' life, and secondly future directions and implications of projects. In sum, concerning the changes in communities and characteristics,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1970 had direct effects on formation of organizations, whilst in the 1980s the projects exerted indirect effects on disorganization of community activities. In the 2000s, as the projects turned into bottom-up from top-down characteristics, it came to have complementary relations with village communities. Also, thre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changes were found in relation to the projects. That is, the village turned into residents' voluntary, ecological and local productive communities. Specifically, first, the income-oriented residents' voluntary community based on village leaders' efforts and resi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were found to have interacted with the bottom-up project method in the 2000s. Second, the ecological community based on eco-friendly farming and urban-rural exchanges specific to the village conformed to the project specific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attracting projects under the themes of environment, ecology and tourism in line with the social phenomenon of eco-friendliness and the increase in leisure activities thanks to the 5-day workweek system. Third, the local productive community based on the Poolmoo agency consisting of Poolmoo School and local production organizations

provided stability, validity and effectiveness for the projects aiming at income generation. This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ies in the village established that active residents' communities, foundation for local productive system, distinctive local characteristics, viable projects and infra were associated with successful projects. These factors will constitute the guidelines for future village project planning in other rural areas.

Regarding the effects of the projects on life space, in the 1970s–80s, village infra, notably housing and road materials and sizes were changed. In the 2000s, income infra for urban–rural exchanges was generated, followed by recent positive acceptance of residents' demands. However, infra needed for farm production and establishment of eco-friendly space for residents were far from sufficient. Instead of clinging to immediate income generation, spatial planning for facilities for residents' living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s needed. Besides, as the projects were implemented, life space turned into facility-based internal space, aesthetic and symbolic space for outsiders and income-based space pursuing market economy, which seemed positive given the convenience of life, better visual landscaping and growth in income generation. At the same time, such changes implied a factor of malaise in relation to rural communities, especially residents' meetings, space and relationship. In implementation of projects, bias for facilities, internally oriented design for better living conditions, planning external rest space for consumers only, not residents, and income generation for the benefit of a few residents must be shunned for the sake of sustain-ability of rural communities.

Based on the findings he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or future projects. First, it is desirable to carry out projects directly or indirectly conducive to raising the community spirit with a view to enhancing residents' communities

prior to commencement of projects. Second, it is necessary to persist with projects and to generate income by fostering local productive system in connection with villages. Third, like the Hundred Year's Planning for Mundang-ri, plans need developing from long-term perspectives to uphold distinctive local characteristics via a master plan for the village. Fourth, in terms of spatial planning, supports for communities need be considered by reflecting real life of residents. Fifth, residents should be empowered to choose projects, relevant details and space on their own volition by means of wider scopes of projects so that they can cope flexibly with social changes and other shifts in villages.

Although it is hard to generaliz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s it focused on just one site and relied on interviews with residents surveyed to a great extent in respect of spatial changes, which was highly likely to end up in errors resulting from limited memories, this study is meaningful on the grounds that it focused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rural area improvement projects, communities and life space to examine the changing process and further to extend the significance to landscaping, that it analyzed a rural village from multifaceted perspectives of humanities, society and economy and that it shedded tangible and microscopic light on the specifics of rural life.

■ Keywords : Rural development project, Rural community, Life space, Mundang-ri village, Changing process, Interrelationship

■ Student Number : 2010-22372